佛事 전념 20年
불교미술전시관
☎ 02)733-4800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노대형/발행인 겸 편집인:김광삼/논설고문:고은/인쇄인:김규석/등록번호:다-3379/㉾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737-8881/편집국:722-4162 FAX:737-0698/광고국:732-1522/구독신청: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11월 10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245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신도교육의 부실

우리나라 종교 가운데 최고의 역사와 가장 많은 신도를 차지하는 불교. 하지만 20~30년간 절에 다녀도 불교가 도대체 무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신도가 아직도 부지기수이고, 사회적인 역할도 타종교에 비해 여전히 앨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왜일까? 그 원인은 바로 체계적인 신도교육을 받지 못해서이다. 제대로 된 교육이 없으니 신행이 기복 차원에 머무르고, 불교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종교의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시대에 맞는 변화와 발전도 쉽게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7월 포교 및 신도관련 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경기지역 사찰 가운데 신도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26%에 불과했다. 나머지 74%의 사찰에서는 신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신도교육의 심각성을 드러내 보였다.

신행보다 교리중심 교육
'불교 어렵다' 인식 팽배

94년 종단개혁 이후 신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조계종은 98년을 신도교육의 해로 정하고 사찰마다 교리 예절 등 입문교육 6개월 과정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9월 신도교육을 기본-전문-지도자교육의 3단계 과정으로 나누고, 입교교육-입교의식-기본교육-오계수지의 기본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신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신도교육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러나 법만 개정했다고 신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신도교육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의 일차적인 주체인 승가 구성원이 교학에 대한 통일적 인식을 갖추어야 하고, 신도교육에 대한 책임감으로 일선에 나서야 한다. 신도들도 스스로 불교공부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 (02)700-0108
은행지로 번호 : 8003478번
의환은행 : 189-13-03929-3
국민은행 : 827-25-0020-943
농 협 : 069-01-238223
예금주 : 불교방송

"새 천년 인류 정신문화 이끈다"

한국선학회 내년3월 발족

선학硏도 '禪의 역할' 학술회의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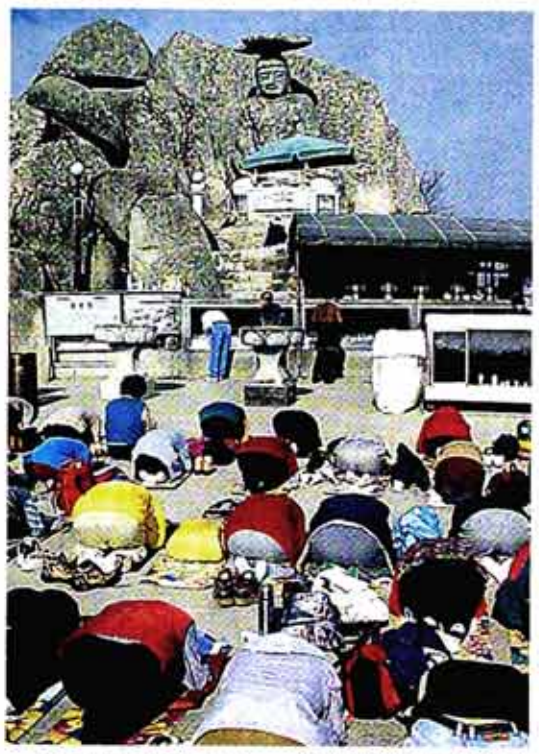
새 천년 인류 정신문화를 이끌 절실한 화두로 '선(禪)'이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선의 새로운 중흥을 위한 '한국선학회'가 국내 처음으로 새 천년 3월 발족한다. 또 선의 대중화·생활화·현대화·세계화를 취지로 지난 1월 개원한 한국불교선학연구원(이사장 법장스님)도 '21세기와 한국선'을 주제로 새 천년 4월 학술회의를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등 21세기 정신문화사를 이끌 한국선학계의 행보가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한국선학회 준비위원회는 10월 30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준비모임을 갖고 학회 회칙 제정, 운영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본격적인 창립준비에 착수했다.

한국선학회는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선의 생활화와 세계화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21세기 지성사의 주류가 될 운영방안 마련에 진력하고 있다. △수행방법 고찰 △심리학 문학 등 유관학문에 대한 연구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교육 등 현대사회 제문제들에 대한 선적 해법 모색 △외국학술단체와 교류및 연구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이 주요 연구과제로, 무비·지오·혜남스님 등 승가대학 강주, 현각·법산·종호스님 등 동국대 교수를 비롯 최병헌(서울대 교수), 이평래(충남대 교수), 신규탁(연세대 교수), 양형진(고려대 교수), 이종철(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등 2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창립에 앞서 한국선학회는 새 문명의 메시지를 담은 선관련 논문 목록을 11월말까지 공모한다. (02-2260-3135)

한국불교선학연구원은 내년 4월 7일 수덕사에서 한국선이란 무엇인가와 대로운 시대를 맞는 선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조명해 보는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박이문교수(포항공대)가 '뉴 밀레니엄의 문명 패러다임과 선불교', 종호스님(동국대)이 '한국선의 특수성과 보편성', 심재룡교수(서울대)가

☞ 2면으로 계속



줄잇는 수능기도 17일 대입수능시험을 앞두고 정상을 찾은 갓바위에는 기도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10월30일 조계종 총무원측의 단전 단수조치로 정화개혁회의측 스님들이 자진철수함에 따라 평화를 되찾은 갓바위에 한격기원의 불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윤호 기자)

"불교자주-개혁 멈출 수 없다"

재가원로·단체대표 39인 성명발표

불교계 재가원로와 단체대표자 39인은 4일 오전 11시 송현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종단의 혼란스런 상황으로 국민과 불자대중에게 깊은 자괴감과 우려를 끼친점에 대해 재가불자의 원로 및 대표자들로서 뼈아픈 참회의 말을 드린다"고 밝혔다.

재가원로와 단체대표자들은 "재판부의 오판을 바로잡는 헌법소원 및 연대소송운동을 통해 법적인 명예회복을 실현하겠다"며 재가불자의 신행혁신, 사부대중 참여에 의한 종단운영, 삼보정재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향후과제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불교자주권수호를 위한 범불교서명운동에 5만여명이 동참했다"며 "8일 전국의 5백개 사찰에서 불교자주권선언 동시법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김종서(전 교육개혁위원장), 백창기(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주영운(행원문화재단 이사장)씨 등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지선-정대-장주스님 총무원장 후보등록

15일 조계사서 투표

고산스님 출마 포기 "산중으로 돌아간다"

조계종 제30대 총무원장선거에 전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과 전 종회의장 정대스님, 종회의원 장주스님 등 세 스님이 출마했다.

지선스님은 후보등록 첫날인 5일, 정대스님은 6일, 장주스님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차례로 입후보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산스님은 5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산중에 들어가 노구를 탁마하는 데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며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출마가 예상됐던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은 등록하지 않았다.

지선·정대 후보측은 잇따라 지지자 모임을 갖는 한편 기자간담회와 회견을 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공약 및 프로필 3면>

중앙선관위위원장 덕운스님은 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총무원장선거법에 따라 입후보자 자격심사를 실시한 결과 세 스님 모두 결격사유가 없어 입후보등록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선거는 15일 오후1시부터 4시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실시되고 투표 종료 후 바로 개표에 들어간다.

중앙선관위는 또 10월 31일부터 4일까지 실시된 교구선거인단 선거에서 선출된 선거인단 240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불련, 조계종 등에 월말 북경회동 제안

조선불교도연맹 박대화 위원장은 2일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총무원장과 경화불일불교협회 앞으로 곽시밀리 전송문을 보내 27~30일 북경에서 각각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총무원은 조불련과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한 데 따라 종단협의회 또는 민족화합불교추진위와 협의해 조불련과의 만남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조불련의 이번 제안은 지난 10월 월동의류 지원 요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사 령

의원면직 최정희
편집국 편집국장
위촉 편집고문
㊙ 제작총괄 편집위원
이창호
1999년 11월 1일자



20세기 고승메달 2차분 출시

조폐공사 - 현대불교 제작 보급

20세기를 마감하면서 근세 100년 한국사회와 불교계를 이끌어온 고승 16인이 기념메달로 우리 곁에 다시 왔습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제작, 품질을 보증하는 고승기념메달은 동(銅)에 금도금을 입힌 국내 최대의 크기(지름 8cm)로 사찰 가정 사무실 등에서 늘 가까이 두고 친견할 수 있습니다. 고승기념메달은 20세기 한국불교 근대사의 정리일 뿐만 아니라, 큰스님들의 삼과 사상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불교계에 자성과 함께 희망과 용기를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1차 8분 제작에 이어 이번에 2차 8분을 제작 완료하고 일반에 보급하고 있사오니, 많이 소장하시고 가족과 이웃에게 권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 스님:
1차: 만공 용성 만해 한암 경봉 청담 고암 성철
2차: 영호 동산 금오 효봉 묵담 탄허 자운 월산
◇ 보급: 남개 각 5만원 · 8분 1세트 40만원(500개 한정)
◇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 (02)737-8881, 722-4162
◇ 은행계좌: 국민은행 006-01-0783-27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다시 山中으로 돌아가며

비록 9개월 여의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뒤돌아보는 小納으로써는 결코 짧게 만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극심한 內訌을 겪고있는 종단의 현실이 못내 안타까워 본의 아니게 총무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고 나서, 무너진 종단의 권위회복과 종단안정을 염원하는 종도대중의 言命으로 알고 맡은 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개 사법판결에 의하여 종단이 또다시 혼란과 혼동의 소용돌이에 휩싸이는 것을 보고 자신의 부덕함에 많은 고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山中에 들어가 소납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을 懺悔하고, 老軀를 琢磨 하는 길이 그 나마 종도 여러분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결심을 종도 여러분들에게 피력하게 됨을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일찍이 山中에 들어가지 못하였음은 마지막까지 所任을 다하기 위해서 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9개월 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소납을 믿고 重策을 맡겨주신 종정 예하와 원로·대덕스님 그리고 종도대중들로부터 한량없는 恩德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총무원 운영에 애정 어린 질책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종회의원스님과 본사주지스님, 그리고 본인을 도와 밤을 낮과 같이 밝히면서 宗務에 열과 성을 다했던 종무원 여러분에게도 무량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고 小納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종단의 질서와 안정 그리고 대 사회적인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창한 것이 〈初發心回復과 慈悲의 大衆化 운동〉이었습니다.

초발심운동 발대식과 초발심 순회법회를 가지기도 하였고, 자비의 대중화운동을 기획하여 그 실행을 준비하던 차에 금번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종단외적으로는 다종교사회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종교간의 화합이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천주교, 기독교등 각 종교와 그리고 각 종단과도 협력과 우의를 다지기 위한 노력에도 많은 공을 드려왔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에 더하여 종단 내적으로는 포교원장스님과 교육원장스님, 그리고 각 부실국장스님과 종회의원 스님들의 도움으로 농지법시행규칙의 개정과 공원법의 정비, 중앙신도회 창립, 승가대 김포학사 건립과정의 부실문제 해결과 사업비 절감 근거를 확보하였고, 금강산순례를 비롯하여 종단안정에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 대하여 小納은 커다란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小納의 불찰과 부족함도 이에 못지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동안 종무행정을 수행하면서 얻은 작지만 소중한 보람들을 안고 山中에 들어가 老軀를 琢磨하는 데 남은 여생을 보내겠습니다. 小納은 이번 사법부판결 이후 닥쳐온 혼란과 어려움을 종도여러분의 단합된 힘으로 지혜롭게 마무리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처 다하지 못한 소임과 무거운 짐을 남겨두고 떠나는 듯하여 종도대중에게 한편의 송구함이 있으나, 다시 山中에 들어가 부처님전에 發願하고 懺悔하는 것으로 一佛弟子의 도리를 다 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과 종도여러분 모두에게 부처님의 加被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43년 11월 5일

소납 고 산 합장

사 설

종교갈등도 풀리는데…

종교간 화합의 물결이 일고 있다. 교황이 앞장서 가톨릭교와 개신교, 이슬람교 사이의 오랜 반목과 갈등을 청산하고 지구촌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선언하는 모습은 정말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의 행복을 위한 종교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모든 이들이 함께 경하해 마지 않을 일이며, 우리 불교계도 이러한 화해의 모습에 진정에서 나오는 축복을 보내 마땅하다.

종교 사이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불행한 사태가 인류 역사에 기록되었던가를 돌이켜 보라. 개신교와 가톨릭간의 갈등, 기독교와 이슬람 교와의 갈등, 유태교와 이슬람교와의 갈등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인명이 살상 당했던가? 또 지금도 종교간 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이 새로운 화해의 물결은 앞으로 종교 사이의 화합과 공존의 길을 여는 새로운 복음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큰 흐름에 한편으로 경하해 마지 않으면서도, 불교의 입장에서는 진한 아쉬움과 반성이 없을 수 없다. 우선 아쉬움이라는 것은 이러한 종교간 화해의 흐름은 당연히 불교에서 나왔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종교 사이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종교본연의 목적에 반하는 비극을 야기했던 것은 주로 지금 화해의 몸짓을 보이는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교이다. 불교 전파의 역사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다. 오히려 불교에는 "자기 종교를 선양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것은 곧 자기 종교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다른 종교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했던 아쇼카왕의 비문을 자랑스런 전통으로 간직하고 있다. 가까이로는 부처님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귀일함을 밝혀 불교내 종파 사이의 갈등을 철학적으로 해소했던 원효 스님의 위대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런 자랑스런 전통에 걸맞게 불교가 앞장서서 모든 종교의 화해와 공존을 선언하는 큰 물결을 일으켰어야 옳지 않은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우리 한국에서라도 모든 종교계의 지도자들을 이끌어 종교화해의 큰 선언을 이끌어내는 선도적 역할을 했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두 번째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계가 화합의 종교라는 전통에 무색하게 너무도 반목과 갈등에 멍들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반성이다. 대처와 비구의 갈등은 수십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도 불교계 내 각 종파들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단결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 현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계종 내 총무원 측과 정화회의의 갈등도 그 갈등의 근본 요소에 비하여 너무나 큰 파장을 보이며 불교계를 망치고 있다. 하루 빨리 불교계 내의 갈등을 해소하고 세계 종교의 화합과 공존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교의 장점을 결국 남의 종교에서 배우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불교에는 다른 종교가 갖지 못한, 종교 간 화합의 바탕이 될 고유한 교설이 있다. 불교의 방편설은 모든 방편은 여건만 맞으면 목적을 위해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어떤 방편이고 100인 것도 0인 것도 없다고 말한다. 부처님 가르침이 수승함은 말할 것이 없으나, 거기에도 집착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위대한 열린 정신이 있다. 이제라도 이 가르침의 정신에 근본하여 우리 교계의 화합을 이룩하고 그에 바탕하여 세계 종교의 화합을 앞장서는 진정한 불교의 모습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이쪽 안전은 생각않고…

"노-사 합심 불교TV 살리자"

'내년 1월 정상방송' 등 16개 협약안 합의

허문도씨 '대표이사 직대 정지가처분' 신청

노조의 파업과 직장폐쇄로 맞서던 불교TV 노·사가 단체협상을 통해 제2의 개국을 선언하고 위기에 빠진 회사를 회생시키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불교TV 이수덕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윤상호 노조위원장을 대표로 한 노·사 양측은 4일 단체협상을 갖고 △2000년 1월부터 정상 제작 방송 △노사협의체 구성 △밀린 상여금의 출자 전환 △무쟁의 회사 선언 △회사 정상화를 위한 16개 단체협약안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단체협약안 서명식에서 "노조의 파업과 회사의 강경대처는 대의적으로 불교TV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불제자로서의 명분을 갖추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노사가 굳게 손을 잡고 제2의 개국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문도 前 사장은 같은 날 "10월27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본인에 대한 해임안은 무효"라면서 "지난 1일 서울지법에 대표이사 직무대행 집행정지 가처분과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와 불교TV노조는 "허문도 사장의 해임은 언론불사의 미래가 더 이상 표류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사회의 강인한 의지를 교계내외에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문도 전 사장은 신허, 범하스님, 효강 총지종법장원장의 요청으로 3일 임시이사회 소집(22일) 공고를 낸 상태이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수덕 직무대행을 대표이사로 선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경영정상화를 위한 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TV 이수덕(왼쪽)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윤상호 노조위원장은 4일 단체협약안 서명식을 갖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법타·돈명스님등 징계 경감

조계종 특별심사위 1차 13명 재심사

조계종 징계자특별법에 의한 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월서 호계원장)는 10월 30일 1차 심사위원회를 열어 전 은해사주지 법타스님 등 13명을 재심사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특별심사위는 또 5일 회의를 열어 98년 11월21일 이후 징계자 전원을 재심사 대상으로 해 심사를 개시했다.

재심사 징계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접수 순, 괄호 안은 이전 징계 내용)

△적문-공권정지 1년6월(공권정지 3년) △석담-공권정지 6월(공권정지 2년) △덕조-공권정지 3월(공권정지 1년) △진욱-면직(면직) △기연(전 제주 천왕사 주지)-면직(면직) △돈명(전 은해사 부주지)-공권정지 6월(공권정지 1년3월) △태관(전 마곡사 부주지)-공권정지 6월(공권정지 1년3월) △하종-면직(면직) △종석-문서견책(공권정지 1년) △육문-공권정지 3월(공권정지 6월) △법타-공권정지 2년(공권정지 4년6월) △성천-공권정지 1년(공권정지 1년) △무영-공권정지 2년(공권정지 2년). 이 가운데 돈명스님 등은 지난 2월 재심호계원에서 징계가 결정된 이후 6개월이 지났으므로 징계가 완료됐다. 3차 심사위는 11일 열린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1면 '선학회'서 계속

'한국선의 현실과 21세기의 역할', 한중광교수(동국대)가 '경허의 선사상과 한국선의 진로', 이은윤씨(중앙일보 종교전문위원)가 '만공의 선세계와 미래문명의 비전' 등을 각각 발표한다.

또한 91년 설립된 한국선문화연구원(원장 성본스님)은 매주 세미나를 여는등 인재양성을 배출하는 기초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성철선사상연구원, 보조선사상연구소 등 선학 및 불교학 관련 단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새 천년과 맞물려 활발해 지고 있는 한국선학계의 움직임에 대해 성본스님(동국대 선학과)은 "21세기 정신문화의 시대에 선이 가장 큰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선에 대한 확실한 이론적 이해없이 선을 생활화하고 세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기초선원 갈마회 제도화"

조계종, 정원제한-입방 절차 개선키로

정원제한과 입방등록 절차 개선등으로 기초선원의 수행풍토가 쇄신될 전망이다. 조계종 기초선원 운영위원회(위원장 무여)는 기초선원 입방 시기 조절 및 갈마를 통한 수행 면학 풍토 조성에 주력키로 했다.

기초선원운영위는 이를 위해 그동안 안거 해제후 실시했던 기초선원 교과안거 입방등록시기를 안거전으로(선심사 후 입방) 변경, 2000년 봄 교과안거 입방을 4일까지 접수했다. 또 1안거 입방생을 12명으로 제한키로 한 지난4월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을 엄수하고, 갈마회도 제도화함으로써 소수정예 납자를 엄선, 질적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한편 사미니 기초선원으로 동화사 부도암과 양진암이 2000년 봄교과안거부터 첫 개원돼 사미니 수행 풍토도 일신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대각회 사암연합회 결성

회장에 원성스님

재단법인 대각회(이사장 흥교) 소속 30여 사찰 주지스님들이 10월 28일 서울강북구 본원정사에 모여 사암연합회를 결성하고, 회장에 원성스님(본원정사 주지), 운영위원장에 자우스님(금강사 주지, 전 동국학원 법인사무처장)을 선출했다.

대각회 소속 사찰의 사암연합회 결성은 조계종 소속 승려의 법인 결성 및 사찰의 법인화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조계종-선학원 합의문 인준이 7월 종회에서 유보된 이후여서 주목된다. 현재 대각회는 정관에 조계종 종지 봉대를 명시했으며, 이사도 모두 조계종 승려다.

"새 총무원장과 법인대책특위 위원장을 만날 생각"이라고 밝힌 원성스님은 "분담금 납부 등 종도로서의 의무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회의록' 발간

현대 조계종 역사의 역대 조계종 중앙종회 회의록이 책과 CD-롬으로 발간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4일 첫째 권 '제1대 중앙종회 회의록'를 펴냈다. 중앙종회는 올해 안에 2대 종회, 내년까지 11대까지의 회의록을 펴낼 계획이다.

19.5×26.5cm 크기 474쪽 분량의 제1대 종회(62년 8월~66. 6) 회의록에는 당시 종회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종회의원 명단 및 변동 사항, 본회의 발언 내용, 상임분과위 구성, 총무원 간부 명단, 안건 처리 현황, 본회의 개의 일수 및 참석 현황 등을 실어 당시 조계종 역사를 재현했다.

정성운 기자

종무기관 예산안등 16일부터 심의

조계종 중앙종회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5일 총무원1층 불교회관에서 145회 정기종회를 열고 안건 심의 순서를 결정한 후 정회, 총무원장선거 후인 16일부터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동국학원 정관 개정 촉구 결의 등의 안건을 심의키로 했다.

종회는 또 의장 법등스님의 사의 철회를 요청키로 하고 부의장 청화·명진 스님이 법등스님에게 이같은 뜻을 전달키로 했다. 법등스님은 사의를 거둬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선거무효 가처분 서울지법 첫 심리

정화회의가 중앙선관위원장 덕운스님 등을 상대로 낸 총무원장 선거 무효 등에 대한 첫 심리가 3일 오후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 부장판사실에서 열렸다. 양측 변호인의 청구 취지 및 반론을 청취한 재판부는 다음 심리일을 정하지 않고 통보해주기로 했다. 관결은 조계종 30대 총무원장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중앙선관위원장 덕운스님의 자격무효도 원고측이 요청하고 있어 선거일인 15일 이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화회의는 10월 29일 서울지법에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 직무정지 △종회의장 법등, 부의장 청화 명진스님이 집행한 종회 업무 무효 △선관위원장 덕운스님은 자격이 없다는 청구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정성운 기자

선학원과 협상 재추진키로

조계종 법인대책위

조계종 법인대책특위(위원장 혜창)는 4일 종회사무처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조계종-선학원 관계정립을 재추진키로 했다.

법인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96년 당시 월주 총무원장과 선학원 이사장 정일스님이 합의한 4개항을 바탕으로 관계정립안을 만들어 조계종내의 의견을 조정키로 했다.

월주스님과 정일스님은 96년 8월 △조계종과 선학원은 한뿌리임을 확인하며 그 동안의 갈등과 불편한 관계 종식 △선학원에 대한 조계종의 규제 해제 △선학원 정관에 '재단의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 신설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를 합의했다.

정성운 기자

※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법 제15조에 의한 제30대 총무원장 선거입후보자 종책광고입니다.

'대화합의 원융종단' 실현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30대 총무원장 — 왜 지선스님이어야 하는가?



기호 1 지선

1946년 1월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상도리에서 출생
1961년 5월 백양사에서 석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운문선원에서 3안거 성만
1964년 3월 범어사에서 동산 대종사를 계사로 보살계 수지
1967년 3월 범어사에서 석암 대종사를 계사로 비구계 수지
1970년 8월 백양사 운문강원 대교과 졸업 및 수의과 수료
1972년 3월 서옹 대종사를 법사로 건당
1976년 1월 조계종 중정 시서실장
4월 조계종 제4대 중앙중회의원
10월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
1978년 9월 조계종 비상종회의원
1980년 4월 조계종 제6대 중앙종회의원
1981년 11월 제3회 '세계승기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
1986년 6월 정토구현전국승가회 의장
1987년 5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삼임 공동의장
1992년 10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1993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 공동의장
1994년 3월 범승가 종단개혁추진회(범종추) 상임지도위원
5월 조계종 개혁회의 상임부위원장 및 개혁회의 의원
10월 조계종 제18교구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1998년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교구본사주지 모임 회장
대한민국 제2건국 추진위원회 삼임위원

변화된 종단의 환경은 새로운 인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종단 안팎의 환경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모습으로는 1600년 한국불교의 위상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변화된 환경은 새로운 구조와 참신한 인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도들이 소외됨이 없는 '원융종단'의 건설과 이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지선스님! - 이 시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안정을 기원하는 종도들의 바람을 실현시킬 철학과 비전이 있습니다!

모두들 종단이 안정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정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의 불씨를 잠재우고 종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적임자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원융종단에 대한 철학이 있고 준비된 비전이 있는 지선스님, 그가 바로 종단안정의 적임자입니다. 오랜 활동을 통해 지선스님이 체득한 조화의 능력과 역동적인 리더십은 종단안정에 대한 종도들의 염원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폭넓은 지지기반은 종단안정을 이룰 수 있는 최대의 힘입니다!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대다수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이미 지선스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화합과 안정의 적임자는 지선스님이라는 것이 원로스님과 대다수 중앙종회의원 및 중진스님들의 판단입니다. 행정부인 총무원은 입법부인 중앙종회의 광범위한 지지기반 없이는 종단안정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문중과 혈실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중진스님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된 지선스님의 지지기반은 종단안정의 튼튼한 밑거름입니다.

종무행정을 책임질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원장은 시대적 흐름과 종단적 요구에 어긋남이 없는 행정능력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지선스님은 그동안 종단의 크고 작은 소임을 원만히 수행했으며, 사회조직의 책임자와 전문가들과 오랫동안 교류하며 합리적인 행정의 안목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많은 스님들과 공의를 거쳐 준비된 풍부한 경륜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준비된 행정능력을 종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뿐입니다.

종단의 대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회지도자들은 지선스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지난 세월 민주화운동과 다양한 사회활동 과정에서 맺어진 인간적 우애도 있지만, 긴 세월 동안 지선스님이 보여준 수행자다운 기개와 통찰력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종단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총무원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종단과 종도들을 위한 일이라면 국가도 설복시킬 수 있는 총무원장, 바로 지선스님입니다.

한국불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경험과 안목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민적으로 검증된 지선스님의 도덕성과 사회지도력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선스님은 21세기 한국불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사회의 정신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건강한 한국불교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힘있는 불교! 사회를 이끌어가는 불교! 지선스님과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화합종단 만들겠다" 한 목소리

조계종 30대 총무원장 후보 종책분석 지선-정대스님 '2파전' 예상

15일 실시되는 조계종 30대 총무원장선거에 출마한 지선, 정대, 장주스님은 종책자료집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종책을 발표하며 종단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지선스님은 '원융살림체제의 확립'을 중심으로 한 △대화합 조치 단행 △사회부 기능 강화 △선불교 중흥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국제연대사업 확대 등 7대 분야 30개 공약을, 정대스님은 △종지 종풍 진작 △화합하는 종단 △포교와 승가 및 신도교육 매진 △미래사회를 향도하는 종단 구현, 장주스님은 △교구본사중심제로 전환 △포교원 교육원 기능의 강화 △직영사찰 및 특별분담금사찰제도의 폐지 △종단 차원의 수익사업 운영 △중앙종회 기능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번 선거에는 세 후보가 출마했지만, 지선-정대 두 스님의 경쟁으로 압축된 가운데 두 스님 모두 '원융살림'과 '화합종단 구현'을 강조하며 징계자 사면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선스님의 공약 중에는 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보인다. 불교관계법 개정,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남북불교교류국 신설, 불교시민사회개발센터 등 10개 항을 내놓았다.

반면 정대스님은 승가의 청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최우선의 과제로 제시했다. 선원에 대한 지원 확대, 승가종합복지대책 수립 등을 통해 서구식의 가치관단이 만연해 있는 종단을 수행중심의 모습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전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종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조계사 성역화 사업에 대해 지선스님은 종도들의 공의를 모은 불교회관 건립을, 정대스님은 불교종합회관 건립을 공약으로 밝혀 조계사 성역화 사업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apia.com)

기호1번 지선스님



- 46년 전남 장성 출생
- 61년 석산스님 은사로 득도
- 67년 석암스님 계사 비구계
- 관음사 백양사 주지, 6대 종회의원, 전국연합 공동의장, 실천승가회 의장, 개혁회의 상임부의원장 역임
- 현, 제2건국추진위 상임위원

원융살림 회복 △대화합 조치 단행 △수평적 의사결정구조 강화 △교구본사주지회의 위상 강화 △종책자문기구 구성 △중앙종회 활성화 △총무원장 권한 간소화

효율·책임있는 종무행정 △종무행정 전문화 △중앙종무기관 구조조정 단행 △사회부 기능 강화

종단현실 맞는 재정정책 △종단 자산의 생산적 활용 △종단 예산 축소 및 분담금 정책 현실화 △종단 운영의 투명성 확보 △직영·특별분담금사찰 제도 형평성 제고

수행·교육 중심의 종무 운영 △선불교 중흥 △수행 풍토 조성 △교육의 내실화 △역경사업 기반 확충

새시대 포교방략 추진 △수행과 전법 교화 활동의 안정성 보장 △신도교육의 강화 및 재가 위계제도 도입 △정보·문화 포교전략 수립 △신도정책 수립 △어린이·청소년 포교 위한 사찰 역할 증대 △국제불교활동 전개

한국불교 위상 제고 △대정부 교섭력 증대 △국립공원입장료 전면 폐지 △종교편향 및 혜불 대책 마련 △월드컵 대비 불교문화 상품화 △불교의 대중화 국제화

통일시대 사회지도력 창출 △사회복지시설 지원 △남북불교교류국 신설 △불교시민사회개발센터 설립 지원

기호2번 정대스님



- 37년 경북 울주 출생
- 63년 전강스님 은사로 득도
- 67년 석암스님 계사 비구계
- 용주사 신륵사 주지, 총무원 총무부장, 4~5 7~11대 종회의원, 종회의장 역임
- 현 종회의원, 동국학원 이사, 평통 자문위원

종지·종풍 진작 수행 중심의 가풍을 크게 진작하고 율장과 청규, 종헌종법의 정신이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이에 따라 선원에 대한 지원 확대, 승가종합복지대책 수립, 역경불사 현대화.

화합 종단 종도들의 공의가 모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장하고 부단한 의견수렴과 반영으로 종도들의 불만을 없애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같은 방안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원칙에 입각한 대사면 단행, 아울러 종정 및 원로스님 위상제고.

종도 받드는 종단 종단 운영을 정례적으로 공개하고 보고하는 노력의 경주, 군림하는 총무원이 아니라 아래서 심부름하는 총무원이 될 수 있도록 사찰운영의 자율성 확대, 본사 역할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

포교와 승가·신도교육 매진 △행자교육 정비 △기본교육 내실화 △신도교육 체계화 △종무원 전문역량 배양 △재가전문인력 육성 △연수교육의 지적 발전 도모

미래사회 향도하는 종단 △생명, 환경에 입각한 사회활동 강화 △민족화합을 위한 남북불교교류 활성화 △불교사상과 민족문화 창달 △불교정보화 마인드 구축 △불교종합회관 건립

기호3번 장주스님



- 49년 제주 출생
- 60년 월산스님 은사 사미계
- 70년 석암스님 계사 비구계
- 임허사 오어사 주지 역임
- 현 종회의원, 법보신문사 사장

한국불교의 병폐는 보완적 수준으로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중병이라고 확신한다. 전면적인 쇄신조처만이 한국불교를 살릴 유일한 방도라는 점을 강조한다.

모든 병폐를 일시에 제거하고 포교와 수행에 전념케 해 모든 중생의 귀의처로 거듭나는 종단이 되어야 한다.

교구본사 중심제 조계종단의 중흥의 전기를 마련키 위해 종단의 권력구조의 큰 틀을 총무원 중심제에서 교구본사 중심제로 전환하는 획기적 조처 시행.

포교원·교육원 기능 강화 총무원은 직할교구 분담금으로 운영하되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포교원과 교육원의 기능을 강화.

직영·분담금사찰 제도 폐지 직영 및 분담금사찰의 정재는 그 지역 불교계를 위해 사용토록 한다. 총무원이 축소되면 직영·분담금사찰 제도는 불필요하다.

종단 차원 부대사업 안정적인 종단운영의 재원을 마련키 위해 생수 판매 사업 등 전개하며, 나아가 수입의 일부를 재가신행단체에 지원.

중앙종회 기능 강화 중앙종회의원의 겸직을 허용한다. 중앙종회에서 종책을 수립하고 사부대중의 여론을 수렴하는 창구의 기능을 확대한다.

수행승-정치승 틈 못좁혀

고산스님 왜 불출마 선언했나

'종단정치 맑히기' 도중하차로 막내려

고산스님이 끝내 조계종 제30대 총무원장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산스님은 5일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다시 산중으로 돌아가며'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산중에 들어가 노구를 탁마하는 데 남은 여생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불과 1주일전인 10월 29일 출마를 선언했던 것에 대한 정반대의 의사표시여서 당혹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많았다. 일부에서는 이번 선거가 경선 구도로 굳어지며 예견된 상황으로 보기도 했다.

고산스님의 불출마 선언의 가장 큰 이유는 수행승과 정치승의 이중적인 모습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고산스님 특유의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고산스님의 상좌인 영담스님(종회의원)은 "정치하러 총무원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며 고산스님의 심중을 전했다. 고산스님도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해 내홍을 겪고 있는 종단의 현실이 못내 안타까워 본의아니게 총무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종도대중의 언명으로 알고 받아들였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그러나 어차피 총무원은 다양한 종도들의 의견을 조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이 있는만큼 종단정치의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세속에서와 같은 부정적인 면을 숨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많은 종도들은 대강백이며 율사인 고산스님이 높은 수행력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불교의 가르침에 바탕한 종단정치의 전형을 보여주리라 기대했다.

결과적으로 수행승의 종단정치 맑히기는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너무 짧은 9개월만에 법원의 판결에 의한 도중하차로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기도 전에 막을 내린 셈이다. 그렇지만 가능성이라도 보여주길 바랐던 종도들의 아쉬움은 적지 않다.

집행부의 한 스님도 "어차피 이곳은 이해관계가 엇갈린 정치판이다. 흙탕물이라고 해서 발을 담그지 않겠다는 것은 산중에서나 가능한 것 아니냐"며 끝내 속말을 토로했다.

불출마 선언의 배경을 '고산스님 재추대'가 깨지고 경선 구도로 방향이 잡혔기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고산스님은 10월 29일 출마선언 회견에서 "대중의 뜻에 따라 (출마)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분위기는 경선구도로 굳어졌으며, 이같은 변화가 불출마 결심의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영담스님은 "그렇지 않아도 세인들은 종권다툼으로 본다. 고산스님도 종권에 집착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로 고산스님의 뜻을 전했다.

또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선거의 당선자를 좌우할 수 있는 종회 내 최대그룹인 육화회가 지선스님 지지로 방향을 잡은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정성운 기자

■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필요성 대두

"경쟁구도 승가질서 역행"

재가여론수렴 제도적 장치도 필요

이번 조계종 30대 총무원장선거 과정에서도 선거법이 과연 불교의 가르침과 그에 합당한 절차인지를 묻는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왔다. 종책과 인물 경쟁으로 종도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선거이므로 재가자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종회의원은 선거의 속성상 피할 수 없는 경쟁적인 요소가 승가의 질서를 혼란케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30년 이상 수행 또는 포교에 정진해온 후보가 상좌뻘인 선거인단을 숙소로 일일이 찾아다니며 한표를 '부탁'하는 모습은 위계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승가의 정서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총무원장이라는 소임이 큰 이권이라도 있는 것처럼 세속에 비쳐지고, 과열양상이 나타나면 종권다툼으로 매도될 수도 있다며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다른 종회의원은 "선거라는 공간을 통해 종책을 내놓고 종도들의 판단을 구함으로써 바람직한 종단의 미래상을 그려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은 부작용보다 장점이 많다"며 당분간은 경선을 통해 총무원장을 뽑는 선거 제도가 불가피하다며 반론을 폈다. 그러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가자 입장에서는 '스님들만의 행사'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한 재가단체 간부는 "자칫 선거인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선자가 좌우될 때 종책 경쟁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가불자의 여론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현재처럼 종회의원과 교구에서 뽑힌 선거인단 321명이 뽑는 총무원장선거로는 재가불자의 의견이 작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 스님은 아예 지금과 같은 선거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원로의원과 계단위원 등 종단의 권위를 상징하는 어른들이 한자리에 모여 뽑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후보자 없이 총무원장 대상자를 용지에 기명, 최다 득표자를 총무원장으로 뽑자는 것이다.

정성운 기자

목어

정치력 실종시대

새 천년을 목전에 맞이하여 '정치실종' 이니 '정치부재' 라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정치인의 현실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요즈음 온통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언론문건'의 여파와 미래에 이 나라를 걸머질 자신들의 자녀가 유흥장에서 떼죽음을 당해도 슬퍼하기는 커녕 내 자식 아니어서 무관심한 듯 딴전만 피우고 있는 것 같아 가슴 아픈 일이다.

정치인이나 정부관료의 병역기피가 밝혀지면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마음에 또 한번 혀를 찰 수 밖에 없다. 만약 법원이나 구치소 경력까지 들추어내면 국민은 모두 실신할런지도 모른다.

국민의 혈세를 세비로 받아쓰고 유권자의 피맺힌 돈을 정치자금으로 끌어다 쓰며, 고급 승용차에 호의호식하며, 실속없는 큰 소리만 치고 싸움만 빠락빠락하는 이름만 내세우는 정치인들의 세상, 뼈 빠지게 땀흘리며 한숨만 짓고 살아가며, 선거철이면 그래도 할 수 없이 누군가에게 한 표 찍어 주어야 하는 국민의 이 아픈 마음 누가 알아줄까.

집권여당이 사상유래 없이 돌이나 되면서도 정말 이 난국을 풀어나갈 영도력과 창의력이 없다는 말인가. 막강한 행정경력과 정치경력을 가진 단일야당은 왜 이를 살려 국민의 편에서 정치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입장에서 환골탈태(換骨脫胎)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없단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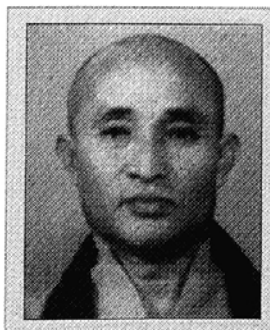
언론은 정론직필이 생명이다. 그러나 지금의 언론에 거는 기대는 양심있는 대다수의 기자들마저 독자들을 의심케하고 있다. 조계사의 만명대중의 일사분란한 집회는 한 마디의 언급도 없고 문전에서 싸우는 소수의 폭력만을 부각시켜 외신에까지 띄우는 언론은 '언론문건' 사건과 함께 진정 정치의 시녀인 것이다. 정치도 언론도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한다. 한시바삐 어리석은 미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함정행경(阿含正行經)〉에 "미혹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은 정심(正心)이 근본이 된다"고 하였다. 바른 마음을 가진 슬기한 정치인 언론인을 국민이 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본지논설위원)

※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법 제15조에 의한 제30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종책광고입니다.

경험과 연륜으로 여는 안정과 화합의 종단!



기호 2번
서정대(徐正大)

● 수행이력
출생: 1937년 3월 7일생
수계: 1963년 - 인천 용화사에서 전강스님을 은사로 득도
1967년 - 통도사에서 비구계 수지
학력 : 전북대학교 대학원 영문학과 수료
이력 : 1964년 - 수원 용주사 중앙선원에서 수선안거이래 도봉산 망월사, 덕숭산 수덕사 선원 등에서 수선안거 성만
1969년 - 83년, 경기 여주 신륵사 주지 역임
1973년 - 총무원 사회국장, 재정국장, 규정국장 역임
1974년 - 총무원 사회부장, 77년 재무부장, 80년 사회부장, 81년 재무부장, 82년 사회부장, 85년 총무부장, 87년 부원장 역임
1975년 - 4대, 5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중앙종회의원(現)
1983년 - 94년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 역임
1984년 - 제8대 중앙종회 부의장 역임
1988년 - 91년 제9대 중앙종회 의장 역임
1989년 - (재)불교방송 이사 역임
1989년 ~ 95년 - 문화재위원 역임
1991년 -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現), 평화통일 자문위원(現)

· 이사(理事)가 원융한 종무행정

금번 종단 사태는 우리 종단의 청정 수행가풍과 승가본연의 자세를 망각한 풍토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조계종단의 오랜 전통인 수행정신을 크게 진작시켜 종지와 법통을 선양하는 것만이 땅에 떨어진 종단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종단의 사회적 역할과 행정의 효율성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 경륜과 지도력 필요

스님은 근 40년 가까운 승려생활에서 일선 말사에서부터 수말사, 본사주지 소임을 두루 거치시고, 총무원의 주요 부장과 부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종무행정의 경험과 지도력을 인정받으셨고, 종단의 대의기구인 중앙종회의 제9대 의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8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주요 종단현안을 원만히 조정하여 그 정치력과 조정력이 검증되었습니다. 또한 스님은 종단 안팎의 주요 공직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사회적으로도 신망이 높습니다.
스님은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종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때로는 조정자로서, 때로는 중심에 서서 탁월한 안목과 방향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함으로서 원로큰스님과 중진스님, 그리고 종도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난국을 수습하고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반석위에 올려 놓고 종단이 나아가야 할 비젼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원칙과 책임있는 자세와 더불어 오랜 행정 경험속에서 쌓여진 연륜과 지도력을 겸비한 스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종단 자주성을 회복해야

분규로 얼룩진 최근 교단사는 우리 스스로 1600여년 유구한 불교의 사상적 정통성과 자주성을 지켜내지 못한 종도 모두의 책임입니다. 분규의 교단사를 끝내고 화합과 청정수행교단을 수립하는 길은 종정 예하 이하 원로대덕스님 그리고 전 종도의 단합된 의지를 결집함으로써 한국불교의 자존심을 다시 확인하고 화합승풍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른 내분이 있다면 일단 덮어두고 원융무애한 단결과 화합의 조치로써 종단의 자주성을 확인하는 것만이 현재 최우선의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 5대 중책과제 ⊙

1. 종풍을 진작하는 종단
수행가풍 진작/선원에 대한 지원 확대/율장과 청규, 종헌종법에 근거한 청정종풍 확립/승가종합복지대책 수립/역경불사의 현대화

2. 화합하는 종단
종도대중의 공의제도 정착/원로 중진님의 의견수렴 정례화, 제도화/ 종정 예하 및 원로스님의 위상 제고/부단한 의견수렴과 종책반영/원칙적인 대사면 단행

3. 종도를 받드는 종단
종단 운영의 정례 보고 및 공개/종무행정 서비스제도 도입/사찰운영의 자율성 확대/본사 역할 확대를 위한 행정 지원

4. 포교와 교육에 매진하는 종단
행자교육 정비/기본교육 내실화/신도교육 체계화/종무원 전문 역량 배양/ 재가전문인력 육성/연수교육의 질적 발전 도모

5. 미래사회를 향도하는 종단
생명, 환경에 입각한 사회활동 강화/민족화합을 위한 남북 불교 교류 활성화/불교사상과 민족문화창달/불교정보화 마인드 구축/불교종합회관 건립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퇴행성 관절염 무료수술 제1호로 혜택을 받은 백금향씨, 동인천길병원 이수창 원장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퇴행성 관절염 무료수술 1호 백금향씨

"통증없이 걷다니 꿈만 같아요"

본사-동인천길병원 공동주최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5주년을 맞아 동인천길병원(원장 이수찬)과 공동으로 펼치는 퇴행성관절염 무료 의료지원사업의 첫 결실로 포항에 사는 백금향씨(64세, 불명 대일현)가 3일 양쪽 무릎 관절수술을 받았다.

진각종 신교도(불정심인당)인 백씨는 현대불교신문 독자인 사위 김대용씨의 주선으로 이번에 제1차로 접수하고 제1호로 수술 혜택을 받은 것이다. 지난달 28일 동인천길병원에 입원해 건강진단을 받고 고혈압을 조정한 뒤, 3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이수찬 원장이 수술을 집도했다.

30년전부터 관절염을 앓아온데다 퇴행성 관절염까지 겹친 백씨는 두 무릎 통증이 심해 거의 거동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최근 수술을 조속히 받으라는 관정이 내려졌던 상태.

"백씨는 다리가 O자형태로 휜데다가 연골이 다 녹아 없어진 관절염 말기였습니다. 수술결과도 아주 좋구요." 이수찬원장은 첫 수술에 만족해했다.

일반 환자들과 함께 711호에 입원해있는 백씨는 "그저 고맙습니다"고 거듭 말하며 "수술내내 옴마니반메훔 진언을 했다"면서 "제대로 걸어나가게돼 기쁘다"고 말했다.

"퇴행성 관절염은 폐경기 이후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지는 여성이 주로 앓게되며, 육체노동의 강도가 큰 사람에게 발병율이 높아 대체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걸립니다. 수술비용도 만만치않고 결국은 통증도 심해 고통속에서 생활하게되는 안타까운 병이지요."

이원장은 퇴행성관절염에는 전문가로 1일 평균 3명을 수술하고 있다.

관절염수술도 과거와는 달리 연골삽입후 20여년은 족히 정상인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한다. 수술비용은 평균 1쪽 무릎에 3~4백만원정도이며, 입원기간은 2주일 정도이다. (02)722-4162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원로의장 탄성스님 고승메달 제작격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사진 왼쪽)과 법주사 주지 혜광스님은 2일 한국조폐공사 경산조폐창을 방문하고 '근세100년 고승 기념메달' 제작과정을 둘러보고 격려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한국조폐공사가 20세기를 결산하는 문화사업으로 결치고 있는 고승 16인 기념메달 제작과 관련 금오스님 기념메달을 감수하기 위해 방문한 두 스님은 약 2시간 동안 조폐공사 주화카드처 정직일 처장의 안내로 디자인 조각 인각 압인 등 고승 기념메달 제작 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어 前 조폐공사 금강회 회장 이복희씨(주화카드제작)의 안내로 경산조폐창내 단독건물로 들어선 법당 금강원을 참배했다.

위영란 기자

군종감 이치영 법사 입적

육군본부葬 영결식…대전국립묘지 안장



군 포교의 최선봉장이었던 육군 군종감 이치영법사(대령)가 1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 자택에서 과로로 입적했다.

이법사의 영결식은 3일 오전 국군수도통합병원 영결식장에서 육군본부장(장례위원장 육군 참모차장)으로 거행됐다. 종단 및 각 종교계, 군관계자, 육·해·공군 전체 군승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영결식은 김말환 법사의 약력보고, 이희용 군승단장의 조사, 헌화 및 분향, 포교원장 정련스님의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정련스님은 "고인의 높은 원력을 본받아 군포교에 더욱 정성을 모으자"고 말했다. 안장식은 4일 오후 대전 국립묘지에서 봉행됐다.

이치영 법사는 마곡사에서 출가해 장곡사 주지 등을 역임했으며 73년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74년부터 증위로 임관, 군포교에 헌신해 왔다. 3군단, 5사단, 수도군단, 국방부 등의 군종법사 및 군종참모, 육해공군군승단장 등을 역임, 99년 1월부로 육군의 법사 목사 신부를 대표하는 육군 군종감으로 취임해 업무를 수행해 왔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개혁 운동 역사 조명"

'불교근대사 바로알기' 펴내는 박희승씨



"현대 한국불교의 현실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50년대 불교정화당시, 나아가 일제강점기 및 근대불교사를 먼저 알아야 했어요. 이를위해 근·현대 불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집필 작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 박희승 교육과장이 6년여의 작업 끝에 (가칭)(한국 불교근대사 바로보기)(들녘刊)를 20일경에 펴낼 예정이다.

조선말 1850년부터 일제에 의한 사찰령 공포시기인 1912년까지의 근대불교사를 통해 근세 불교 종단의 성립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이 책은 시기별·주제별로 모두 8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조선후기 승가의 생활 △개화기 불교와 개혁운동 △승려의 입성 금지 해제 △근세불교의 중흥조 경허스님과 결사 △근세종단의 재건과 발전등이 그것.

김재경 기자

교차로

포항시암련 초청법회



철웅 대구 파계사 성전암 조실은 11일 오후7시 포항상공회의소 강당에서 포항불교사암연합회 주최 초청법회에서 법문한다.

회갑기념논총 봉정식



현성 중앙승가대 총장(청교련 회장) 스님은 15일 오후 3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화갑기념 논총 봉정식을 거행한다.

백두산부대서 법문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은 10월31일 육군 21사단 백두법당 도솔사(주지법사 이익수) 초청법회에서 법문했다.

제8회 초의상 수상



성우 파계사 주지는 10월 29일 대둔사에서 열린 제8회 초의문화제에서 김리언 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과 함께 제8회 초의상을 수상했다.

'생활 불교' 특별법회



대효 제주 참선생활본부 원명선원 회주 스님은 7일 천불연등 공양과 '생활속에서 깨닫는 불교'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삼화사 무설전 상량법회



원행 동해 삼화사 주지는 8일 지역 기관장과 신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무설전 신축 상량법회와 삼동백일기도 입제식을 봉행했다.

뉴욕불자의 밤서 공연



지범 제주 불광사 주지는 19일 미국 뉴욕사암연합회가 주최하는 뉴욕불자의 밤 행사에 초청돼 자작곡 부모은중경 게송, 은혜, 근심걱정과 나레이션 등으로 음성공양한다. 21일 귀국.

정토사 삼천불 봉불식



덕진 울산 정토사 주지(대한불교어린이포교회장)는 13일 오전 11시 창건 11주년 기념 삼천불 봉불식 및 정토사 개산제를 봉행한다.

갑사로 가족사찰 순례



법장 서울 무진법장사 주지는 14일 계룡산 갑사에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하는 가을추억 만들기' 주제로 가족 사찰순례 기도법회를 갖는다. (02)948-3111

'티벳의 불교문화' 특강

초펠 티벳 스님은 19일 오전 11시 대구 태전동 연흥사, 오후 7시 파동 법왕사에서 각각 '티벳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특강한다. (053)766-3747



동국대 법대 후원의 밤



이연택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연기영 동국대 법대 학장과 공동으로 18일 오후7시 동국대 상록원에서 동국법학 창설 50주년기념 '동국법대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서귀포 장애인복지관장에



정수현 제주시 선광사신도회장(한라불교신문 논설위원)은 1일 사회복지법인 춘강에서 위탁운영하는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관 관장에 취임했다. (064)732-2353

日 불교유적서 작품 구상



정찬주 소설가는 한-일 고대불교사와 관련된 작품의 취재를 위해 10일 1개월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도쿄 교토 오사카 나라지역의 백제불교 유적지를 답사한다.

조선대 미술대 학장에

고현 조선대 교수(응용미술학부)는 최근 미술대학 학장으로 임명됐다.

전통차 맥잇기 방안 논의

박동춘 동춘차후원회장(과천서당 원장)은 지난달 16일 서울 인사동 지리산에서 제1차 총회를 열고 초의선사에서 서암, 응송스님으로 이어지는 전통차의 맥을 잇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불교학자 다무라 교수 동국대에 장서 기증



일본 불교사학계의 태두로 꼽히는 다무라 엔초(田村圓澄, 82) 일본 규슈대 명예교수가 불교학 관련 개인장서를 동국대에 기증한다. 다무라 교수는 최근 자신이 모은 장서를 동국대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편지를 통해 평소 친분이 두터운 불교사학자 황수영 박사(전 동국대 총장)에게 보냈다.

이에 따라 동국대는 중앙도서관에 다무라 문고를 만들어 학생과 연구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제5회 신행수기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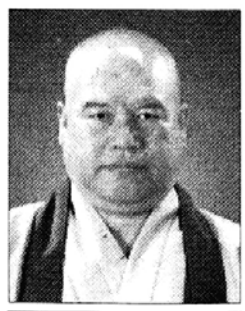
교계의 정평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내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5회째를 맞았습니다. 가슴에 담아 두어온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신행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게재됩니다. 2000년에 발표되는 신행수기 공모에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원고지 30매…마감 12월18일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
△마감: 1999년 12월 18일
△당선작 발표: 2000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시상내용
◇ 대상(유마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우수상(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천태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관음종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상: 상장, 부상 (순금 행운의 열쇠)
◇ 응모자 전원: 기념품 증정

※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법 제15조에 의한 제30대 총무원장 선거 입후보자 종책광고입니다.

제 30대 총무원장 선거 출마선언문



기호 3번 장주

歸依三寶하옵고,

佛祖의 慧命이 이 땅에 전달된 지 1700여 년, 주지하다시피 불교는 이 장구한 세월동안 民族 精神文化의 바탕이 되어왔으며, 찬란한 민족문화를 일구어온 土臺가 되어왔습니다.
高句麗, 百濟, 新羅 시대는 물론이고, 統一新羅와 高麗에 이르기까지 佛敎는 민족의 精神과 物質 모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國敎의 위치를 수행해 왔습니다. 비록 朝鮮祖 500년 동안 抑佛政策으로 인해 침체기를 맞기도 했지만 불교는 오히려 이 기간 동안 民衆의 삶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名實相符한 民族宗敎로서의 기능을 다해왔으며, 나라가 危機에 처할 때에는 분연히 일어나 護國의 氣槪를 만천하에 떨쳐 보였습니다. 개화기에는 민족과 나라의 將來를 慧眼으로 일구었으며, 일제기에는 獨立運動의 先鋒에 서서 우리 나라와 민족이 나아가야 할 方向과 座標를 提示했습니다.

소납은 매우 오랫동안 우리 종단이 지금의 모습을 계속 유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나름대로 종단운영 방안에 대한 苦悶을 해왔습니다. 非合理的인 종단 權力構造를 革新하고, 나아가 紛糾를 終熄시킬 완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構想과 代案을 모색해왔던 것입니다.

소납은 우리 조계종단이 모든 舊習과 舊態를 벗고 中興의 轉機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단의 權力構造, 즉 宗團運營의 큰 틀을 현 總務院 中心制에서 敎區本寺 中心制로 轉換하는 劃期的 조처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현재의 총무원은 直轄敎區의 分擔金으로만 운영하되, 規模를 大幅 縮小하고 布敎院과 敎育院의 기능을 强化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구본사 중심제로 종단운영의 큰 틀이 정리될 경우 총무원이 현재처럼 肥大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布敎院과 僧伽敎育을 전담하는 敎育院의 역할을 擴大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直營寺刹과 特別分擔金寺刹 제도를 廢止하여 그 사찰의 淨財는 그 지역과 그 지역 불교계를 위해 사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총무원이 축소되고 그 운영재정이 직할교구의 分擔金으로 充當된다면 직영사찰과 특별분담금사찰제도는 不必要한 제도일 것입니다.

넷째, 종단차원의 附帶事業을 통해 安定的인 宗團運營 財源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生水사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종단의 소속사찰 중 산 좋고 물 좋은 名山大刹이 많습니다. 이 사찰에서 생산되는 오염되지 않은 淸淨生水를 불자들 가정에 보급하는 사업을 종단차원에서 전개한다면 분담금과 특별분담금에 의존해야 하는 궁색한 종단운영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수입의 일부를 在家 신행단체에 지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中央宗會의 기능을 대폭 强化해야 합니다.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총무원이 축소될 경우 발생할 지도 모를 문제점들을 보완할 代替機構로 중앙종회를 내세워야 합니다. 중앙종회에서 바람직한 宗策을 수립하고, 종단 四部大衆의 輿論을 수렴하는 창구의 기능을 확대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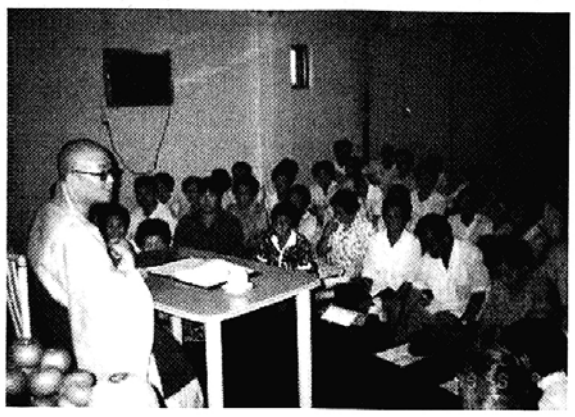
이상이 소납이 생각해온 宗團運營의 基本骨格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소상히 발표할 계획입니다.

소납은 이 어려운 시기에 總務院長이라는 重責을 수행하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智慧와 德行이 부족하고 다양한 경륜이 부족한 것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한 점들은 종단의 어른을 恭敬하고 그 분들의 경륜과 경험을 열린 가슴으로 收容함으로써 補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종단은 새로운 轉換點에 서 있습니다. 그 전환점에서 宗團의 未來를 先導해갈 指導者는 새로운 人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智慧와 勇氣와 투철한 使命意識으로 현실을 正面突破할 수 있는 政治力 있는 人物이 필요한 時點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조계종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病廢를 일시에 除去하고 布敎와 修行에 전념하는, 그리고 만 중생의 歸依處로 거듭나는 宗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납은 감히 그 役割을 自任하고자 합니다. 不足한 줄 알지만 위법망구의 決意와 純粹한 愛宗心으로 重且大한 所任을 수행해야겠다는 決心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탐방 국민회의 부산 · 경남 연등회



◇연등회 생활관에서는 월 1~2회 법사초청 법회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 9월 통도사 부산포교원 심산스님 초청 법회 모습.

노숙자 돌보며 국민화합 앞장

회원 2백여명 활동 지역봉사 '일심동체'

정치와 관련된 모임이 생기면, 정치가 불교를 이용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 부산 · 경남연등회(회장 사상호 이하 '부경연등회')는 창립이후 포교를 위한 흔들림 없는 행보를 보이며 지역불교를 일구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98년 4월, 정치권내 불교 바로 알리기, 종교를 통한 국민화합과 다사회적인 불교역량을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부경연등회는 창립됐다. 부경연등회는 현재 부산불교연합회 성오스님, 삼광사 주지 덕수스님을 비롯한 부산불교계 지도자 스님으로 구성된 상임고문과 지도법사, 부산 · 경남지역 국회의원, 당원, 종사자등 2백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부경연등회의 1년 사업은 사안별로 1백50여명의 청년과 보살봉사단을 비롯 기존의 신행단체나 사찰 신도회와 결합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경연등회는 창립당시 일선 업무자 전원이 새벽예불에 참석한 후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21일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그 신심과 열정은 실직 노숙자 무료급식, 노숙자 쉼터 연등회 생활관 운영, 자비의 국수나누기, 지역 봉사활동 등의 활동 전반에 한껏 발휘되고 있다.

부경연등회의 주력사업인 연등회 생활관은 98년 11월 개원해 3백21명의 실직자들이 이 생활관을 거쳐 갔으며 이중 1백87명이 귀가했으며 53명에게 취업을 알선했다. 현재는 80명이 입소중이다. 연등회 생활관은 노숙자 자활을 위해 선무도, 심리조절, 사회봉사 프로그램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유대사업으로 무료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등에 실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연등회 생활관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 월 1.2회의 법사초청 법회, 무료한방 검진등 다양한 봉사활동은 지역내에 불교의 바른 위상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서울지역 경찰불자회 21일 오대산 성지순례

경찰불자 '교류의 장' 기대

서울지역 경찰불자들이 성지(聖地)에 모여 부처님 말씀을 근간으로 사회 공공의 질서확립과 지역 주민의 치안에 앞장설 것을 발원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과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불자회(회장 이인원 총경)가 손을잡고 21일 강원도 오대산 월정사와 상원사에서 서울지역 경찰불자 첫 합동 사찰순례를 개최한다.

경찰청불자회, 마포경찰서 불자회를 비롯한 10여개 서울지역 경찰불자회와 국립경찰병원불자회, 조계종 경찰포교사회 등 1백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성지순례는 경찰불자와 경찰 가족들의 교류와 친선을 도모하고 자비로써 이웃에 봉사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바쁜 업무와 교계의 관심 부족으로 그동안 결속력을 갖지 못했던 경찰불자들을 자생적으로 결집시키고 회원 상호간 교류를 통해 불법의 울타리 속에서 소유지족하는 삶을 배우며 함께 나누고 깨침을 주는 경찰불자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성지순례 개최 실무자로 준비에 바쁜 서울지방청 불자회 임완규 총무(통신보안과 경장)는 "이번 성지순례는 서울지역 전 경찰불자를 대상으로 하는 첫 행사로 기대가 크다"며 "전국 경찰불자회로 확대되는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교원은 경찰포교사회의 활동과 지난 9월 경찰포교지 〈등불〉 창간이후 교계에 경찰포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진단하고, 지역별 성지순례 개최 및 경찰불자 모임을 정례화해 꾸준한 행정적 지원과 포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도정발전 · 친목 · 불심 다져

경북도의회 정각회 · 도청불자회 합동법회

경상북도의 행정과 입법을 담당하는 두기관 소속 불자들이 불심과 친목을 다지는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경북도의회 정각회(회장 주기돈의원)와 경북도청 불자회(회장 김휘동 자치행정국장)는 3일 경북도청 내에 있는 도공무원 교육원 강당에서 새천년 맞이 합동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구미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장 진오스님, 장성호 경북도의회의장 윤용섭 도공무원교육원장 등 사부대중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 두 단체는 각각 96년과 97년 각각 창립됐으며 정각회는 40여명의 회원이, 도청불자회에는 1백2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도청불자회 안효종 사무국장은 "이번 합동법회는 지난 98년4월에 이은 두 번째 법회로 새천년을 맞아 경북의 발전을 기원하고 두 불자회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대구개인택시 정법회 **동화사서 창립 13돌 행사**

대구 개인택시정법회(회장 김주본)는 10월31일 동화사 봉서루에서 창립 1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김주본 제9대회장 취임식을 겸한 이날 법회에는 정법회원 가족을 비롯 최동원 제9교구신도회장, 유상종 동화사신도회장, 이재용 남구청장, 김연대 영남불교대학 총동문회장 등 사부대중 2백50여명이 참석했다.

정법회는 지난 86년 창립된 이후 발전을 거듭해 현재 4백2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을만큼 대규모 신행단체로 발돋움했다. 운불련 호출택시(053-766-7777)도 운영하고 있다.

제6, 7대회장을 역임한바 있는 김주본 회장은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인 정법회는 다가올 2천년대에도 지역불교계를 선도하는 신행단체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지하철 무사고 기원 '서울 법우회' 답사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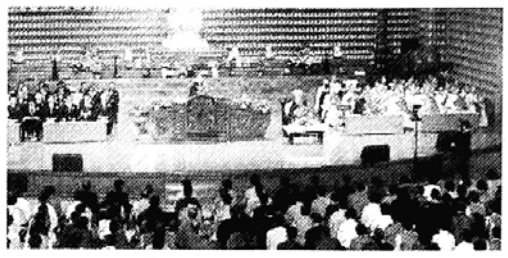


서울지하철법우회(회장 민병훈)는 10월24일 전북 진안군 소재 마이산 탑사에서 성지순례 법회를 갖고, 마이산 금당사, 전주 송광사를 참배했다. 또 이날 법우회는 탑사 밑 마이산 저수지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지하철의 무사고 안전운행과 참회, 그리고 각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기원했다. 법우회 지도법사 화암스님(조계종 포교원 연구실장)을 비롯 법우회 회원과 가족 등 90여 명이 함께 한 이번 성지순례는 특히 정년퇴임한 신철호(전 차량처장), 홍창근(전 자재창고장), 이종범(전 역장)씨 등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해 지하철 법우회원들의 끈끈하고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법우애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도필선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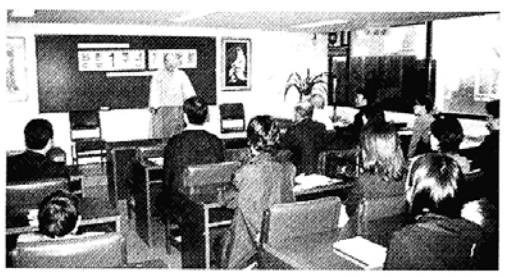
동화사 1506주년 개산대재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산 동화사(주지 성덕)는 3일 통일대불 앞에서 창건 1506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 동화사 창건이후 처음으로 열린 개산대재에는 동화사조실 진제스님을 비롯 원로회의장 탄성스님,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 최동원 제9교구신도회장, 유상종 동화사신도회장, 문희갑 대구시장등 사부대중 3천여 명이 참석했다.



삼광사 창건 30돌 기념법회

천태종 삼광사(주지 덕수)는 1일 지관전에서 30주년 기념법회 및 결식아동돕기 성금 모금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천태종 총정 도용스님,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성오스님, 안상영 부산광역시장을 비롯 2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덕수스님은 "어려운 이웃의 안식처가 되도록 소임을 다해 복지국가건설에 앞장서는 삼광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국제포교사회 창립 1돌 법회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양장운)는 10월30일 포교원 2층 강당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사진〉를 봉행했다. 또 총회를 열고 국제포교사 4기 수료생 21명의 공식 입회절차와 2000년도 사업계획 보고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내년도 사업으로 〈청소년 영어교재〉 발간, 〈로터스 랜턴〉 해외보급 강화, 사찰 가이드 및 포교사 연수 체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려대장경硏 해인사서 추계연수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는 10월 30~31일 해인사 홍제암에서 전직원 추계연수대회를 가졌다. 수련대회는 새벽예불과 108참배, 참선, 특강, 마애불 답사 등으로 진행됐다. 종림스님은 "12월 인터넷서비스 개시와 대장경 CD제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모임에선

대구하불동 명등계 모임

하이텔불교동호회 대구경북모임(지역장 유인자)은 10월31일 차(茶)동호인들로 구성된 명등계 모임을 초암수련원에서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초암다회의 다예시범과 초암 이욱형 선생 및 오상용 박사(경북상주대 교수)의 초청 특강이 있었다.

심우회 노인시설 위문



군법당 건립 및 지원 불자 모임 심우회(회장 이 청정행)는 1일 불우노인들의 보금자리인 자제정사를 위로 방문하고, 목욕 서비스를 실시했다. 또 생활필수품을 비롯해 점심으로 국수와 불고기와 떡 등을 공양했다.

부산 교불련 하루찻집

부산교사불자연합회(회장 양원식)는 10월30일 중앙동 쌍계다정에서 청소년 포교기금 마련을 위한 하루찻집〈사진〉을 열었다. 학교 일선에서의 청소년 포교 기금 마련을 위한 이 행사에서 모여진 5백여만원의 수익금은 청소년포교기금 및 불우 청소년 돕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불교사진련 부석사 순례



대한민국불교사진연합회(회장 이병윤)는 10월24일 영주 부석사와 예천 용문사서 성지순례 촬영행사〈사진〉를 가졌다.

'대화합의 원융종단' 실현으로 종단의 안정을 책임지겠습니다.

– 제30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며 –

존경하는 종정예하와 원로대덕 큰스님,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중진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삼가 존경의 예를 올립니다.

인류는 지금 새로운 문명사적 전환으로 인한 혼돈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서구문명의 사상적 한계와 그로인한 여러 가지 폐해에 대한 문제제기는 보다 새롭고 근본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불자들은 인류문명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대안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다는 진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고 있는 한국불교의 장자종단인 우리 종단의 현실은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모든 종도와 국민들의 가슴을 저리게 했던 종단 갈등이 1년만에 재발되었고, 아직까지도 거듭되는 분열과 충돌은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처방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제30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이전에 종도의 한 사람으로서, 종단 혼란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사부대중과 국민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로지 종단을 위해 위법망구하는 자세로 나섰습니다.
저는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희구하시는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중진스님들의 권유를 받고, 모든 종도들의 지혜와 뜻을 모아 반드시 종단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능동적 의지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스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다시 부르신 것은 종단을 하루빨리 안정시키고 실추된 대사회적 위상과 자주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바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단의 안정과 대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화로운 종단운영 철학을 바탕으로, 종단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종단의 진정한 자주성을 호지하고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여 1600년 한국불교가 대사회적 지도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힘있는 추진력으로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사부대중의 바램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제 종단의 원융살림체제를 통해 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종단의 안정과 대화합을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종단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원융살림체제'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제29대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제가 한결같이 주장하였던 '대화합의 원융종단' 건설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이는 종단운영의 철학이요, 위기에 처해 있는 종단을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부처님의 가르침과 승가전통에 입각한 가장 여법한 해결방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화합의 원융종단'은 승가 고유의 대중공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구성원들이 종단의 주인으로서 책임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종책입안 단계에서 대중의 의사와 지혜를 모아낼 수 있는 민주적 방식과 대중공의에 의해 결정된 종책을 추진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누구도 소외됨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종무행정의 책임자가 종단의 법통과 수행가풍을 면면히 지켜오고 계시는 종정예하와 원로대덕 스님들을 총심으로 모시고, 수행과 포교 현장에서 종단과 한국불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스님들이 불제자로서의 진면목을 보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조건을 만들 때, '대화합의 원융종단'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종단의 현실에서는 대중공의에 입각한 종단운영의 철학과 이를 바탕으로 한 '안정과 화합'에 대한 신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화합의 씨앗을 심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2년간의 종단혼란은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전 종도와 사부대중의 관심과 참여 속에 제30대 총무원장 선거를 여법하게 치러내는 것에서부터 종단안정의 계기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종단 안정을 위한 방법과 종책을 가지고 그 누구와도 만나 진지하게 대화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들이 화합의 씨앗을 심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종도여러분!
제30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단 혼란의 불씨를 제거하고 가느냐, 아니면 종단의 갈등구조를 안고 가느냐 하는 매우 중차대한 선택입니다. 아울러 실추될 때로 실추된 종단의 대사회적 위상을 회복하여 21세기 한국사회와 민족문화를 이끌 수 있는 힘있는 종단을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 금번 선거의 전 과정과 선거 이후에도 오직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이 시대가 요청하는 문명사적 대안과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데 우리 종단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염원하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백암산 사문 지선 합장

이렇게 들었다

정직

"그릇된 사유는 도둑을 만든다"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의 폭로로 촉발된 '언론대책 문건' 사건은 여러사람의 정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더한층 미궁에 빠졌다.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 정형근 의원, 문일현 중앙일보기자, 이도준 기자 등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진실을 은폐한 채 이익만을 좇았다. 가장 정직해야할 국가의 고위 관리자, 국민을 대변해야하는 정치인, 그러한 낱낱의 사건과 진실을 밝혀야 할 언론인이 파렴치한 행동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특별검사에 의해 재수사가 진행중인 '옷로비사건'도 관련된 네 여인들이 정직하지 못해 서로 말이 달랐기 때문이다.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관련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정직과 관련한 경전의 가르침을 알아 본다. 〈편집자 주〉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긴 부리를 놀려 시끄럽게 울어대는 까마귀처럼 뻔뻔스러워서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않는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염치있게 사느라고 비록 고생을 겪을지언정, 義를 취해 청백하며 부끄러움을 피해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차라리 道를 지키다가 빈천속에서 죽을망정, 도에서 벗어난 짓을 하며 부귀를 누려 사는 일이 없거라. 〈육도집경〉

▨늘 지성으로 행동하며 꾸밈이 없으면 그 원이 채워져 결여됨이 없을 것이며, 온갖 바른 덕을 늘려 그릇된 행위가 없고 불법을 사랑해 구하는 사람은 빨리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반야삼매경〉

▨말(斗)과 저울로 남을 속인다든가, 마음은 악하면서 말만 착한 체하여 언행이 성실치 못하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다. 〈분별업보경〉

▨심견(心見, 마음의 작용)을 정직히 하여 속이지 말고 아첨하지 말라. 〈화엄경〉

▨아첨하는 마음은 道와 어긋난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정직하게 가져야 한다. 마땅히 아첨은 자타를 속일뿐이어서 불도에 들어온 사람으로서는 그럴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유교경〉

▨만약 사람의 마음이 곧으면 금과 같이 귀중하다. 〈제법집요경〉

▨모름지기 스스로 결단하여 몸을 바르게 지니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며, 여러 善을 더욱 많이 짓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닦고 몸을 깨끗이 하여 마음의 때를 씻어내며, 언행이 진실하여 겉과 속이 어울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아미타경〉

▨몸을 단속하여 진실을 좇으면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법구경〉

▨속마음이 정직하고 겉모양이 유화(柔和)하며, 모든 사곡(邪曲)을 떠나고 진실한 행위를 지키며, 최고의 진리로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고요하고 견고해서 평등한 경지에 머문다면 이를 보살이라고 부른다. 〈미증유정법경〉

▨'곧은 마음(直心)'은 곧 보살의 정토니, 보살이 성불할 때에 아첨하지 않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태어나게 된다. 〈유마경〉

▨수행해 먼저 자신을 바로잡은 다음에라야 남을 바로잡을 수 있다. 〈법구경〉

▨'그릇된 생각(邪見)'의 죄는 중생으로 하여금 삼악도에 떨어지게 한다. 설사 인간계에 태어난다 해도 두 가지 나쁜 과보를 받게 되는 바, 첫째는 항상 사견을 지닌 집안에 태어남이요, 둘째는 그 마음이 사악함이다. 〈십주경〉

▨그릇된 사유는 도둑을 만든다. 〈천청문경〉

▨만약 사악하여 청정치 못한 마음을 지녔을 때는 억겁(億劫)을 찾아다닌데도 여래를 만나뵙기 어려울 것이다. 〈화엄경〉

▨보살의 묘법(妙法)의 나무는 직심(直心, 순수하고 곧은 마음)의 땅에서 난다. 신심의 씨앗과 자비의 뿌리에 지혜가 몸이 되며, 방편이 가지와 줄기가 되어 오도(五度,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등 5바라밀)에 의해 무성해지며, 선정이 잎이 되고 신통이 꽃이 되고 일체지가 과일이 되고 최상력(最上力)이 새가 되어, 그 그늘이 삼계를 뒤덮는다. 〈화엄경〉

특별기고

불교가 해야할 일



도업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장

오늘 아침 신문 1면에 나온 한장의 사진은 나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500년동안 철천지 원수처럼 적대시하면서 피흘려 싸우던 신·구교의 대표가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서서, 화해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기에 앞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선언한 후 478년만에 저들은 지금 가톨릭과 개신교가 손을 잡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땅의 불자들, 특히 우리 스님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니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진지하고 간절하게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때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출을 눈앞에 두고 최인된 심정으로 우리가 할 일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조건없는 화해를 해야 한다. 화해는 이해에서 시작되고 이해는 양보를 전제로 해야 한다. 한 생각 비우고 보면 총무원을 누가 차지하면 어떻고, 대폭으로 사면복권을 시키면 어떤가. 소위 총무원과 정화회의측은 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무조건 화해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독이 퍼지기 전에 화살부터 뽑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독화살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화해한 후 한발짝 물러나서 생각해보자.

우리는 모두 한 형제다. 한 때는 강원에서 목청높여 경을 읽던 도반이었고, 한 때는 선방에서 눈푸르게 정진하며 한방에서 한솥밥 먹던 식구였다. 그런 인연이 전무한 사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일불(一佛)제자가 아닌가. 지금은 A측, B측 하면서 눈을 부라리지만 후일 낙엽지는 고요한 산사에서 만나면 계면쩍게라도 웃을 수 밖에 없는 한 식구이다. 자존심이나 체면 이해관계를 떠나서 무조건 화해하고 새 천년을 맞이해야 한다.

부끄러운 다툼 이젠 그만 끝내고 조건없는 화해를

둘째, 출가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출가할 때 돈벌려고 중이 되었나? 벼슬하려고 스님됐나. 우리스님들은 지금 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반성해야 한다.

'재물은 물거품과 같은 것이요 명예는 풀잎의 이슬과 같은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허깨비 같은 것이니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탕탕 자재한 해탈인이 되라'고 얼마나 자주 법문을 했던가. 이제 입으로만 신도들에게 법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님들이 우리 자신에게 행동으로 법문할 차례이다. 물거품 같은 것, 풀잎의 이슬과 같은 것, 티끌같이 털어버리고 출가정신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법문할 차례다.

셋째, 심기일전으로 대발심하여 넓게 보고 준비해야 한다. 뉴 밀레니엄시대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지난 천년동안 인간의 지식과 정보·과학은 실로 눈부신 발전을 해왔다. 마침내 현대의학은 복제양까지 만들어 냈고 복제인간이 탄생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한다.

물질문명과 문명과학이 크게 발전하고 진보했지만 그에 정비례해서 더 많은 문제를 현대사회는 안고 있다. 인간성 상실, 자연환경 파괴, 개인이기주의 등등…,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종교나 철학은 없는가. 있다. 분명히 있다. 어떤 가르침일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이다. 연기법은 독선적이지 않고 배타적이지 않으며 지배적이지 않고 공존적인 사상이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반야지혜의 증득법이 있고, 동체대비의 사랑법이 있으며 중생구제의 보살행이 있다.

이들 사상을 분석하고 정리해서 뭇 중생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공존의 사상을 우리 스님들이 사회화시키고 행동화시켜야 한다. 절집안의 재정이나 행정은 재가신도들에게 맡기고 우리 스님들은 인간과 환경, 뭇 중생이 공존할 수 있는 이론과 실천을 위해서 정진해야 한다. 이길만이 불법이 살고 뭇 중생들이 모두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목탁소리

위 영 란 〈취재부장〉

한국불교계는 우물안에서 사는가, 아니면 문명과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사는가.

최근 일본 불교계와 불교학계 두 거장의 타계를 두고 보인 반응과 관련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월10일 세계적인 불교석학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박사가 86세로 별세했다. 비교사상에 굳위자였고, 일본에서 한국관계학을 처음으로 개강한 학자로 국내 번역서도 최다수를 점할 정도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일본에서는 아사히 등 5대 신문과 방송사에서 대서특필로 다루어졌고, 중국 티벳 등 세계 불교국가들의 조전과 조화가 앞다투어 보내졌다고 한다. 화장후 3일장으로 치러진 그의 밀장에는 400여 조문 사절단이 자리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일체 알지도 못했던 것이다.

이에 앞서 10월4일 일본 입정교성회 나와노닛교

우물밖 소식에 관심을

(庭野日敬) 前회장이 92세로 타계했다. 〈법화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단체인 입정교성회의 개산조인 그는 세계종교평화회의 창립멤버로 지부격인 한국종교평화회의(KCRP)의 결성에도 역할했던 분이다. 일본 불교계와 언론이 떠들썩하게 그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막상 한국불교계는 소식을 접하지도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때마침 한중일 불교교류차 방일중이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홍파스님이 영결식에 참석하고 조의를 표했다. 한편 나카무라 하지메박사의 화장후 25일만에 동방학원장으로 치러진 본장에 동국대학교 송석구총장과 한일불교문화교류회 이사장이 조화와 조전을 보내 조의를 표해 체면치레는 된 셈이다.

불교정신이 국경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한국불교가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것도 아니며, 더구나 세계적인 불교화 추세를 고려해도 이번 두 거장의 죽음에 대한 한국불교의 대처는 아쉬움이 많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세계속의 한국불교의 현주소를 보는듯 하다.

열린마당

복지관 관장 자격요건 강화

보건복지부가 10월8일 입법예고한 '사회복지관설치 운영규칙'이 법제처 심의가 끝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로이 적용될 운영규칙에는 현재까지 적용돼 온 '법인이 인정한 자격이 있는 자'의 관장자격기준이 삭제돼 있어 지금까지 이 조항에 의해 관장을 임명해 온 불교계에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스님이 관장이 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불교계에서는 '한창 뻗어나가던 불교복지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의 시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잘됐다'는 긍정정인 반응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의견을 들어본다.

"교계 사회복지 참여 위축 가능성"



혜총〈용호종합사회복지관장〉

개정안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삭제된 '법인이 인정한 자격이 있는 자'의 관장 자격기준은 종교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없애서는 안될 항목이다. 현재 30여개의 교계 복지관 관장은 거의 대부분이 스님이고, 이중 60%정도가 '법인이 인정한 자격이 있는 자' 항목에 따라 임명됐기 때문에 이 규칙이 시행될 경우 교계 복지계로서는 충격이 불가피하다.

현재는 법인에서 복지관 운영비의 20%를 재단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장자격요건문제로 복지사업이 스님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경우 불교계로서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과연 어느 누가 사재를 출연해 복지관을 짓고 운영하겠는가. 이는 결국 제 궤도에 오르고 있는 불교복지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복지관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한 각종 후원 등도 스님들의 지역사회 활동과 연결돼 있는데 스님이 아닌 일반인이 관장을 맡으면 불자들의 복지사업에 대한 동참률도 떨어질 것이고, 불교인력의 고용창출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새로운 규칙적용은 복지관 인건비 100% 전부가 국고로 지원되기전까지는 보류돼야 한다. 앞으로 5년이면 이것은 실현될 수 있다. 그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운영위 구성등 전문성 확보기회"



이호걸〈조계종 복지재단 총무과장〉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소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있으나 우려하는만큼 불교 복지계가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요소들도 많다고 생각한다.

신규 복지관의 경우는 자격요건을 갖춘 스님이 별로 없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스님이 관장을 맡지 않더라도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찰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위원장을 주지스님이 맡고 관장을 전문인력으로 포진시킨다면 오히려 불교복지발전에도 상승작용을 하리라 관단된다.

물론 주지스님이 직접 관장을 맡지 못한다해서 수탁운영이나 복지시설 건립을 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복지사업에 뜻있는 스님들이 이를 이유로 활동을 그만두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2주 교육만 받으면 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 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스님들은 얼마든지 관장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다.

불교계에 전문가가 없다고 말하는데 학자와 같은 이론전문가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무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은 상당수 있다.

이제는 새로운 관정안의 시행여부를 떠나 이번 기회에 관련 학자를 양성하고, 일선 전문가들을 키워나가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덧붙여 위와 같은 생각은 복지재단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奉行

青潭大宗師 28週忌
追慕大法會 案內

청담 대종사 28주기 추모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함을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에게 알려 드리오니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일 시 : 불기 2543년 11월15일
월요일 오전11시
■장 소 :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대강당
■문의처 : 도선사 종무소 (02)993-3161~3

불기 2543년 11월 1일

大韓佛教曹溪宗
護國懺悔祈禱道場 三角山 道詵寺

회 주 이 혜 성
주 지 김 광 복 합 장
청 담 문 도 회 일 동

공 고

- 제 30대 총무원장 선거인단 소집 -

대한불교조계종 제30대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다음과 같이 소집코자 공고하오니,
선거인단 스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 상 : 중앙종회의원 78명 및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교구별 10인의 선거인단
-. 일 시 : 불기 2543(99)년 11월 15일(월) 오후 1시 - 4시
-. 장 소 : 조계사 대웅전
-. 지참물 : 신분증 및 도장

*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거장소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통지 및 신문공고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1차 투표시 선거인단 재적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오후 4시 이후에 재투표 및 결선투표가
실시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승려증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이어야 합니다.

불기 2543(99)년 11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덕 운

"상원사 적멸보궁 속칸 15세기 다포식 목조건물"

조계종 문화재조사단 '현존 最古' 발표…국보지정 추진

강원도 상원사 적멸보궁(도유형문화재 제28호)은 보통 법당과 달리 겉칸과 속칸이 벽으로 구분된 '겹집'이고, 속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다포식 목조건물로 밝혀져 학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불교문화재조사단(단장 일철스님, 이하 조사단)이 오대산 상원사 적멸보궁의 건물 내벽과 천장을 조사한 결과 최소한 15세기 전기로 추정되는 목조 양식의 건물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삼분두, 기앙, 공안등 공포의 형태 △기둥의 배흘림 모양 △닫집 뒤쪽 우물반자의 조각 단청 △귓기둥 창방 헬목의 초각 등이 조선 전기 건축양식과 일치한다고 설명한 뒤 "가장 오래된 다포 건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다포식이란 공포를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연결한 것으로 기둥 위에만 공포를 짠 것은 주심포식이라고 부른다.

남한에 남아있는 조선 초기 다포식 건물은 봉정사 대웅전(보물 제55호), 개심사 대웅전(보물 제143호), 서울 남대문(국보 제1호) 등 3채이며, 각각 국보와 보물로 지정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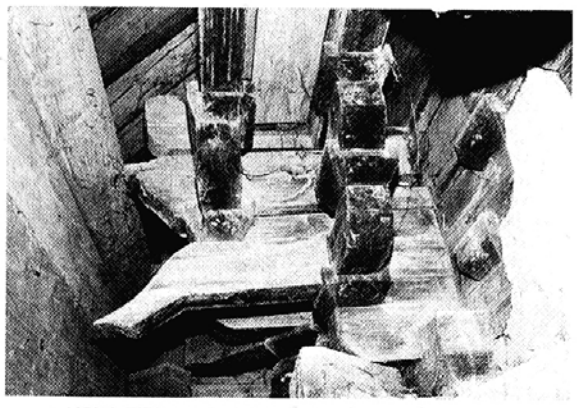
그러나 속칸과 겉칸 이중구조인 상원사 적멸보궁은 지금까지 겉칸만 확인된 채 도유형문화재로 지정됐을 뿐이다. 겉칸은 1874년 중건공사 때 중수된 것으로, 당시 추위를 막기 위해 건물 외벽에 새로운 건물을 둘러쳐 지었다.

적멸보궁 속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다포식 목조건물로 밝혀짐에 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적멸보궁 '속칸'에 대한 국보 및 보물 지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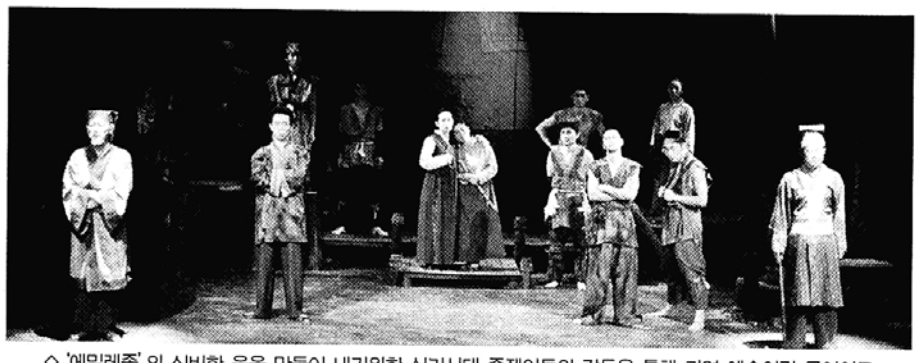
상원사 적멸보궁은 신라 자장율사가 직접 석가모니의 사리를 이운해 모신 곳으로 통도사, 법흥사, 정암사, 봉정암 등과 함께 5대 적멸보궁으로 꼽힌다.

이강근 교수(경주대·조계종 성보보존위원)는 "천장 속에 감추어져 있던 조선 전기의 목조건축 구조가 드러남으로써 적멸보궁에 대한 건축사적 접근을 통해 정확한 사실을 규명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상원사 적멸보궁 속칸에서 발견된 '내진공포'. 삼분두, 공안, 기앙등 조선초기 다포 양식이 완연하다.



◇ '에밀레종'의 신비한 음을 만들어 내기위한 신라시대 종쟁이들의 갈등을 통해 과연 예술이란 무엇이고 삶이란 무엇인가를 되묻는 연극 '천년보다 깊은'의 한 장면.

鐘이란 무엇인가…왜 만드는가

연극 '천년보다 깊은'…내달 5일까지

극단 우림의 '천년보다 깊은'(변영주 작, 민복기 연출)에는 종공(鐘工)의 '분별심'과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법으로 증득하는 '깨달음'이 서로 조응하는 공간이 있다. 국보 29호 에밀레종(성덕대왕신종), 그 신비의 음을 만들어내기 위한 신라시대 종쟁이들의 이야기를 엮은 이 연극은 산 어린이를 펄펄 끓는 쇳물에다 넣어야 진짜 소리를 얻는다는 늙은 종공 박부부(전무송 분)와 식구와의 갈등이 중심축이다.

무대는 산중작업터. "구리 50만근을 써 고을 입구 남근석보다 못한 종을 만들었다"며 종 만들기 41년 경력의 박부부는 탄식을 한다.

종이란 무엇인가? 그 의미는 평생을 종에만 바쳐 온 분별심 가득찬 예술지상주의자 박부부와 융화를 강조하는 휴머니스트 박종익(전국환 분)의 갈등을 통해 예술을 통해 진정으로 얻을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암시한다.

결국 혼신의 힘을 다하고도 종을 짓지 못한 박부부·박종익등 신라의 종쟁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거대한 에밀레종이 무대에 홀연히 나타나는 것으로 막을 내린다. 갈등, 이별, 배신, 암투등 세간의 삿된 감정에도 불구하고 소리만 들고도 깨달을수 있다는 '일승원음'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온 것은 불법이 덜리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12월 5일까지 세실극장.

에밀레종 내년 개천절부터 타종

타종 재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 온 성덕대왕신종(일명 에밀레종·국보 제29호)의 신비로운 종소리를 내년부터 한차례씩 들을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2000년부터 매년 10월 3일 개천절 한낮에 경북 경주시 국립박물관 경내에 있는 신종을 타종하기로 결정했다.

타종 시기를 가을로 정한 것은 이 때가 춥지도 덥지도 않아 타종할 경우 종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문화재청 강정태 유형문화재과장은 "종을 몇 번 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관례에 따라 서른세 번 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봉정사 대웅전 해체보수

문화재청, 2002년까지 記文 존재여부 확인기대

현존하는 국내 최고의 목조건물(극락전)이 보존된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 대웅전(보물 제55호) 전면 해체 보수 공사 방침이 결정되면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 김동현 교수(연세대) 등 15명으로 구성된 봉정사 대웅전 및 극락전 보수 기술단 2차 회의를 갖고 대웅전을 오는 2002년까지 완전 해체 보수하기로 결정했다.

대웅전 주 기둥 전체가 건물 서편으로 기울고 뒤틀림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데다 서까래등 지붕 부위를 구성하는 목재 부식상태가 심각해 부분 보수로는 항구 보존이 어려워진데 따른 것이다.

대웅전 전면 해체 공사에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기문(記文)의 존재 유무다. 건립 유래와 경위, 보수 전력 등을 기록한 것이어서 조선 초기 건축물로 추정하고 있는 대웅전의 정확한 건립시기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2년 극락전 보수 때 이같은 기록이 발견되면서 극락전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보다 더 오래된 목조건물로 입증된 전례가 있어 최고 기록 여부와 극락전과의 상관관계 등이 밝혀질 수도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다.

"정방사 목조관음상 조선숙종때 제작"

정영호교수 복장기 발견

충북 제천 정방사(주지 석구)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복장기가 나와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추진중인 성보문화재 조사사업 일환으로 최근 정영호 교수(한국교원대 박물관장)가 조사를 벌인 결과 목조관음보살좌상에서 복장기를 새롭게 발견했다.

복장기는 가로 62cm, 세로 80cm의 한지에 '康熙二十八年歲次己巳之年造佛像(강희이십팔년세차기사지년조불상)'이라고 기록돼 있어, 지금부터 310년전인 숙종 15년(168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호 교수는 "17세기 무렵에 조성된 불상과 보살상은 대부분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며 "목조관음보살좌상의 제작연대가 밝혀진 만큼 문화재 지정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왈종씨의 '생활속의 중도'

김병종-이왈종-김원숙 3인展

화폭에 담긴 중도의 세계

13일까지 조화랑서

자연과 중도 그리고 생명의 세계를 화폭에 담아온 김병종, 이왈종, 김원숙 화백이 한데 모여 서울 사간동 조화랑에서 13일까지 '서울, 제주 그리고 뉴욕' 전을 연다.

간결한 선과 역동적인 필체로 대자연의 생명력을 표현해온 김병종은 이번 전시회에서 닥종이판에 먹으로 그린 '생명의 노래' 연작을 출품, 파도처럼 굽이치는 약동하는 생명력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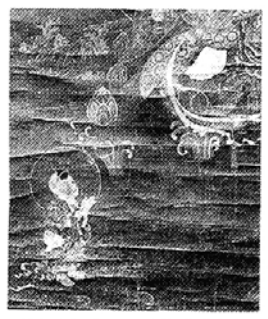
생활주변의 풍경을 밝고 즐겁게 화폭에 옮겨온 이왈종. 그는 바다에서 고기잡는 배의 모습에서부터 자동차, 집지키는 개등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상들을 소재로 한 '생활 속의 중도' 시리즈를 내놓고, 중도(中道)를 지키며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흥취를 자아낸다.

또 김원숙은 화사하고 밝은 색채로 그린 바다위에 떠있는 외딴 섬 등을 통해 몽환적인 분위기와 따뜻함을 전해준다. 세 작가의 그림은 비관적이거나 파괴적이지 않다. 살아가면서 느끼는 충만한 아름다움이 화폭에 가득하다. 그래서 전시장에 가면 너나할것 없이 마음이 따뜻해 진다. (02)738-1025

'아름다운 불교미술전'

고도사서…내달 20일까지

불화, 불상, 범종, 탑등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불교미술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미술전이 열린다. 서울 종로구 관훈동 '고도사는 12월 20일까지 '아름답고 아름다운 불교미술' 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고려 '수월관음도' '금동오층소탑' '석조불두', 통일신라 '금동약사여래입상', 조선 '동자상' '업경대', 중국 청나라 '보살탱화' 북제 '석조보살두상' 등 유물 2백여점이 선보인다. 특히 중국역사박물관 연구위원 이 지연박사가 전시된 중국 불교미술품을 고증해 이번 전시회의 품격을 더욱 높였다. (02)735-5815



◇고려시대 수월관음도(부분).

'우주와 소립자의 세계'

16일까지 노영호 개인전

삼라만상에 담긴 불성을 회화적으로 표현한 전시회가 열린다. 노영호 화백이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공평아트센터에서 '우주와 소립자의 세계'를 주제로 개인전을 마련한다. '극미-소립자' '극대-우주' '조화' '중도' 시리즈 60여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 노씨는 서로 크기는 다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세계는 동일하다는 것을 일관되게 그려내고 있다. (02)733-9512

통도사 승가대학 학인 모집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살아 숨쉬는 불지종가 통도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치문반 00명 사집반 0명
입학자격	조계종승려로서 해당학과에 적격인 스님
구비서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주민등록증사본(양면) 2매 3.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2매 4. 은사스님 추천서 5. 건강진단서
준 비 물	대가사, 오조가사, 발우, 장삼, 법명도장
전형방법	사진 3×4 (대가사 또는 오조착용) 3매 서류접수후 면접
교과과정	내전 - 전통강원의 기본 교과 과목 외전 - 컴퓨터, 서예등 학인의 필요에 따른 특강실시
문 의 처	☎ (0523)383-2363(승가대학) 382-7182(종무소)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승가대학 주지 신허 학장 지안



관음성지 보문사 해수관음상 조성 지명 공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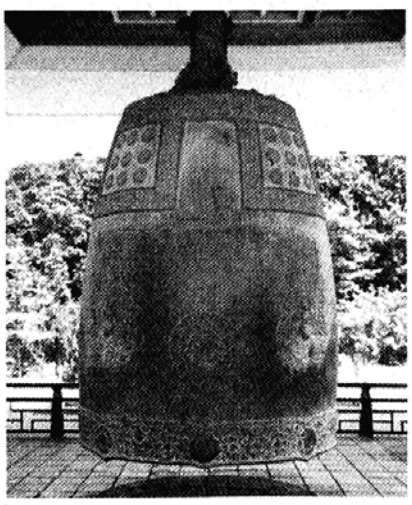
서해안 최대 관음도량인 보문사에서는 한국조각계의 중진인 조승환(동국대), 유종민(중앙대), 원인종(이화여대) 교수 등 3인을 지명공모하여 한국불교 전통 관음보살상의 아름다움과 이 시대의 예술성을 조화시켜 중생들의 신앙의 귀의처가 될 해수관음상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관음성지에 봉안할 해수관음상 조성불사에 뜻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동참문의 전화 (032)933-8271~3 팩스 (032)933-8270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번지

동참계좌번호 국민은행 252-01-0003-040 (예금주 보문사)
우 체 국 100479-0083202 (예금주 보문사)
지로번호 7626131

대한불교조계종 보타 낙가산 보 문 사
주 지 향 적



에밀레종에 담긴 신비한 이야기

천명일씨 '에밀레'

설화·시대적 배경

타종법 유래등 설명

한번 들으면 맑고 깨끗한 마음이 일어나는 신비한 종이야기. 자비와 사랑의 불음을 대표하고 세계 제일의 소리를 내는 에밀레종의 슬픈 전설과 어원을 찾아 밝히는 신비한 이야기를 담은 〈에밀레〉(지혜의 나무 刊)가 나왔다.

이 책은 '불심이 담긴 봉덕사 종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전설처럼 에밀레가 어린 유아의 애절한 울음소리인가' 라는 의문에서 비롯됐다. 저자는 많은 사료들을 모으고 경전공부 등을 기초로 하여 에밀레종의 신비를 하나씩 벗겨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에밀레 어원이다. 저자는 오음학설을 들어 에밀레=금밀래(金密來) 즉 '여래밀인이 온다'라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책에는 역사속의 종과 종소리, 타종법의 유래, 에밀레 설화와 시대적인 배경 등의 의미를 명료하게 풀어 헤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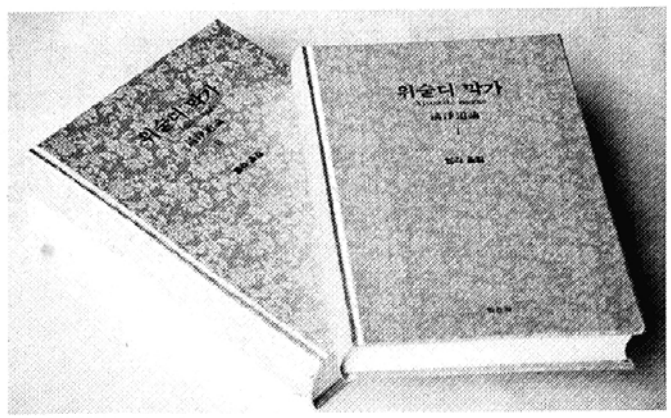
이와 곁들여 전설의 석종과 이항북의 토종, 치악산 상원사종 등의 흥미로운 전설을 소개하고, 동·서양 종의 형태와 모양 등의 특성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저자 천명일씨는 "에밀레 종소리를 한번 들으면 수행자에게는 깨달음이, 일반인들에게는 청정한 마음이 들게하는 신비한 파장의 힘이 있다"고 밝혔다. 값 5천원.

"계율바탕 환희심 얻어라"

붇다고사의 '위숟디 막가' 출간

남방불교 수행지침서 국내 첫 번역



최고 환희심을 체험하는 지혜의 힘은 어떤 것일까. 모든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번뇌의 얽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 3가지를 설했다. 그것은 바로 지계(戒)·선정(定) 지혜(慧)이다. 물론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행정진이 뒤따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행법을 총망라하고 그 수행의 능력을 자세히 보여주는 수행 지침서가 나와 수행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남방불교(테라와다) 최고의 수행 지침서로 손꼽히고 있는 붇다고사 마하테라의 〈위숟디 막가(淸淨道論), 깨끗한 길-닙바나에 가는 길)(화은각 刊)이 우리나라 최초로 범라스님에 의해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붇다고사 마하테라가 깨끗한 '닙바나(니르바나)'를 원하는 선한 사람들에게 그 닙바나를 얻게 되는 수행방법을 알게 하려고 불멸 973년 스리랑카 수도 아누루다의 마하위하라 정사에서 썼다고 알려진다.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경·율·론 삼장 정리

부처님 가르침은 8만4천 법문이라는 경·율·론으로 방대하게 설해졌다. 그리고 '닙바나에 가는 깨끗한 길'을 선정과 지혜로 설했다. 이 요지는 '계율에 잘 머물러서 번뇌를 말려 없애는 지극한 노력을 기울여 마음(선정)과 지혜의 싹을 키운다' 라는 게송으로 요약된다. 이를 순서대로 풀어 간 것이 바로 〈위숟디 막가〉이다. 이 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먼저 계율의 모습을 도두 보이고, 그 계율을 바탕으로 환희심을 내게 하며, 마음을 맑게 하는 선정의 모든 종류와 익히는 방법, 능력과 이익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의 지혜로 체험하는 열반을 상세하게 표현해 놓았다는 점이다.

두 권이 한질인 이 책은 3차 결집 때 부처님 말씀, 삼장의 뜻을 모두 포함하는 가운데 닦아야 할 세가지, 계·정·혜의 수행을 적고 있다.

역자 범라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이 어느 가르침보다 특별한 이유가 이 책 안에 모두 담겨져 있다"고 번역 소감을 털어놨다.

그러나 이 책을 다 읽었다 해서 수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스스로 걸어가서, 자기 손으로 직접 떠 마셔야 시원한 샘물의 맛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값 10만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마하르쉬와 구도자들의 문답

'진아여여' 증보판 자기탐구회서 법보시



남인도 아루나찰라의 진인(眞人) 라마나 마하르쉬(1879~1950)는 20세기 인도에서 출현한 가장 탁월한 영적 스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달마대사나 6조 혜능대사의 가르침을 연상시키는 그의 가르침은 세계적으로 존중받고 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 그의 수행처 아쉬람으로 찾아온 많은 구도자들과의 문답을 정리한 〈진아여여〉(자기탐구회 刊) 증보판이 나왔다. 진아, 탐구와 순복, 스승, 체험 등 모두 6부로 구성된 이 책은 마하르쉬 가르침의 정수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는 본래로 진아(眞我)일 뿐이며, 그것은 누구나 항상 체험하고 있다. 항상 존재하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특별한 행위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자신이 아직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나'의 무지를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무지를 없애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나'의 근원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탐구이다"라고 말한다. 이 책 전체를 아우르는 중심주제다. 자기탐구회에서는 〈진아여여〉 증보판을 법보시하고 있다. (02-762-6021)

禪氣 넘치는 게송·가행 '감상'

법장스님 '조당집 주해1' 번역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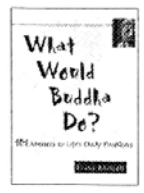
우리나라 선종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는 현존 최고의 종합 선종사서 〈조당집〉이 번역 출간됐다. 〈조당집 주해 1)(동국역경원 刊)이 바로 그것.

〈조당집〉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경덕전등록〉에 비해 신라스님들의 행적을 많이 수록하고 있어 우리 선종사에서 가장 오래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운·복청·원적화상 등 11인의 행장과 법어가 수록돼 있다.

1912년 고려대장경 보유판 속에서 찾아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조당집〉은 1권 과거 7불로부터 20권 미령화상까지 모두 248명 선사들의 전기집이지만 고측공안을 집성한 법요집으로서 편집, 선기 넘치는 게송(偈頌)·가행(歌行)등은 선문학의 진수.

백양사 강원 강주 법장스님이 펴낸 〈조당집 주해1〉은 〈조당집〉 20권 가운데 5권까지를 번역한 것으로 모두 다섯권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값 2만원.

해외신간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나 = 베나레스카시 지방에서 만난 이교도 우바카를 교화했고,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외도(外道)를 섬기고 있던 파사익왕을 제도했던 부처님의 일화를 엮은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나(What Would Buddha Do-101 Answers to Life's Daily Problems)가 출간됐다. 미국의 소설가 프란츠 멧컬프가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의 신심과 신행을 북돋기 위해 '전생담' '경전' 등에 흩어져 있는 부처님 일화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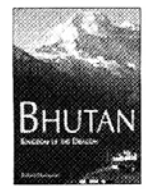
제목의 머릿 글자를 따 'WWBD'로 더 알려진 이 책은 'WWJD(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와 함께 미국 서점연맹의 권장도서로 선정됐다. Ulysses Pr 간행. ISBN 1569751811



▲셰다곤-미얀마의 황금 탑 = 탑의 나라 미얀마. 역대 왕들이 그들의 신성(神性)을 탑에서 찾았던 만큼이 천탑의 전설이 있는 나라. 영국의 고고학자 엘리자베드 무어가 이 곳의 탑을 주제로 엮은 화보집 〈셰다곤-미얀마의 황금 탑(Shwedagon-Golden Pagoda of Myanmar))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셰다곤탑, 만달레이탑 등 미얀마의 대표적인 탑을 비롯해 4백 여개의 탑이 화보로 꾸며졌다. 또 미얀마의 역사학자 한스 죠그 메이어 박사의 '탑의 혁명과 역사'라는 논문도 게재됐다. 논문은 11세기경 불교를 수용하면 탑을 세워던 74간왕조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Thames & Hudson 간행. ISBN 0500974837



▲부탄-용의 왕국 = 부탄불교의 상징인 스와얌부나트 스투파를 비롯 말라왕조(1200~1750년)때 조성된 수천의 불교 사원을 화보로 선보인 〈부탄-용의 왕국(Bhutan-Kingdom of Dragon)〉이 출간됐다. 호주의 저명한 사진작가 로버트 돔프니어가 제작한 이 화보집에는 3백 여점의 고화질 사진을 통해 밀교적 성향이 짙은 부탄불교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부탄은 지리적으로 티벳과 접경을 이루고 있어, 밀교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Shambhala Purns 간행. ISBN 1570625107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풍경	원 성	이 레
2	금강경강해	김용옥	통나무
3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4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일 타	불교시대사
5	달라이라마 예수를 말하다	류시화	나무심는사람
6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7	죽음을 준비합시다	현 장	우 리
8	무소유(개정판)	법 정	범우사
9	방편개시	대 성	여시아문
10	달라이라마가 설법한…	이창호	정우사

구입문의:(02)737-0695

화제의 책

당신에게 무엇을… 혜정스님 지음

수행하며 배우고 느낀 단상들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 어디서 하든 살아가는 충전이다. 충전은 발심·재발심을 하여 갈 때 깨달음의 밑거름이 되고 참 진리를 찾아 하나씩 허물을 벗어가는 것이다."

일승종 총무원장 혜정스님이 수필집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 갈까)(동원사 刊)를 내놓았다. 수행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단상들을 수행자 특유의 문체로 풀어냈다. 물론 신행과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 인생행로, 인간 본성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이 책은 처음부터 읽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주제부터 골라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또다른 맛이다. 값 6천5백원.

어머니 미움을 넘어섰어요 권희로 지음

'김의 전쟁'의 거짓과 진실 담아



권희로씨가 두 명의 야쿠자를 살해하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일시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 88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면서 그는 일본 경찰과 언론 사회에 대해 무엇을 요구했으며 인질들은 왜 인질범의 편이 되었을까. 왜 재판을 거부했으며 무기형을 선고받고 31년 7개월간 감옥에서 '또다른 전쟁'을 벌여야 했을까.

일본의 최장기수로 30여 년만에 석방된 권희로씨가 쓴 〈어머니 미움을 넘어섰어요)(중앙M&B 刊)는 30여 년만에 최초로 밝혀지는 '김의 전쟁'의 거짓과 진실이 고스란히 수록돼 있다. 값 7천원.

이제 병원도 선택의 시대입니다 - 내 집처럼 편안한 동국대학교 '강남한방병원'으로 오십시오

한방과 양방 협진 / 최우수 의료진 / 첨단의료 시설 등 최상의 진료 서비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서울 강남한방병원 개원



한국불교 1천6백년, 민족의 등대지기 1백년, '동국'의 향기가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는 자비실천에 앞장섭니다. 중생이 있는 곳에 불교의 손길은 와 있어야 하듯 중생이 아프면 불교가 앞장서서 치유해야 합니다. 그 맨 앞에 동국대학교 의료원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의료원은 이러한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인술을 통하여 중생을 구제하는데 앞장서기 위하여 경주한방병원, 경주병원, 포항병원, 분당한방병원, LA 로알한방병원등을 개설, 운영한데 이어 마침내 서울 한복판에 또 하나의 역사 - 강남한방병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건강과 장수는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인간화·첨단화의 바탕 위에 한방과 양방이 어우러진 21세기 열린 병원-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 서울 강남한방병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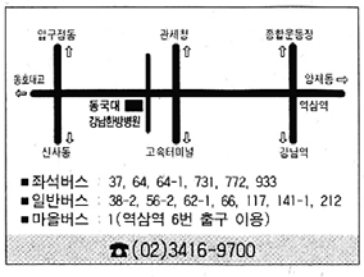
■ 진료개시 : 1999년 11월 1일
■ 개 원 식 : 1999년 11월 11일 오전 11:30

진 료 과 목 안 내

진료과	진료교수	전문진료분야
내과	이원철 정지천 임성우	성인병 (중풍, 당뇨병,전립선비대) 신장비뇨기 질환 (신장병, 부종, 전립선염, 성기능장애) 순환기 질환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동맥경화) 소화기 질환 (위장병, 간염, 변비, 설사) 호흡기 질환 (감기, 기관지염, 천식)
신경정신과	구병수	신경증, 정신치료, 두통, 현운, 치매, 우울증, 홧병
침구과	김갑성 이승덕	신경근육계질환, 급성 및 만성 통증질환, 각종 관절질환, 각종 마비성 질환, 부항요법, 전통침구요법, 팔체질침 클리닉
재활의학과	이명종	척추질환(경추디스크, 요추디스크, 골반통증 등), 척추교정, 신경통, 물리치료, 비만
부인소아과		갱년기장애, 냉증, 월경병, 불임증, 산후병, 여고생 건강상담, 소아 알레르기질환 (천식,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아뇨증, 허약아, 비만아, 경기, 성장지연, 성장통
안·이비인후과		눈, 코, 귀, 인후 (편도선), 피부질환, 치질

※ 양방진료과목과 종합건강검진센터는 2000년 3월 이전에 완비할 예정임

- 성인병 클리닉
- 내상 클리닉
- 소아 알레르기 클리닉
- 갱년기 클리닉
- 척추 클리닉
- 팔체질침 클리닉
- 두통 클리닉
- 비만 클리닉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경주병원 (0561)748-9300 / 포항병원 (0562)273-8111 / 경주한방병원 (0561)770-2377
분당한방병원 (0342)710-3700 / 강남한방병원 (02)3416-9700 / LA동국로알한방병원 (213)487-0110

동국의료원은 부처님의 자비정신으로 인술을 펼하여 중생을 구제하고, 양질의 의료시혜와 친절한 간호로 봉사하며, 서로 화합하고 연구 노력하는 의료인으로서 국민보건 향상과 조국발전에 이바지한을 그 이념으로 한니다

학술단신

'…상장례법' 심포지엄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학장 인묵 스님)는 17일 오후 3시 30분 중앙승가대 정진관 대강당에서 '한국종교의 사생관과 상장례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 심포지엄은 한국의 다종교 상황에 기인한 각 종교의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자와 주제는 △노인숙(중앙대 중문학과 교수) '한국유교의 사생관과 상장례' △임재해(안동대 국학부 교수) '민간의 상장례 풍속과 놀이문화' △오세종(감리교 암사교회 목사) '한국 개신교의 영혼관과 장례절차' △김득수(전국연령연합회장) '한국 가톨릭의 장례식과 연령회' △보광스님(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한국불교의 영혼관과 시다림법' 등. (02)921-3425

불교학회 추계발표회

한국불교학회(회장대행 목정배)는 19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1층 덕암세미나실에서 제32회 추계 전국 불교학술연구 발표대회를 연다.

이날 대회에서는 △선수행법의 비교고찰-종호스님(동국대 교수) △청변과 호법의 공유논쟁에 대하여-김치온(철학박사) △화엄밀교적 원형으로서의 오대산 만다라-김영재(동국대 박사과정) △문궤의 인명관교-이태승 교수(위덕대) △불정존승다라니경에 관한 연구-김영덕 교수(위덕대) △삼화상 법계의 성립과 유행-이철헌 강사(동국대) 등이 발표된다.

박물관 동원학술대회

한국고고미술연구소(이사장 정양모)는 10월30~31일 국립 부여박물관에서 제2회 국립박물관 동원학술 전국대회를 가졌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립 중앙박물관 김연수 학예연구원과 조용중 학예연구원의 '백제의 사리장엄' '선운사 내소사 개암사의 석조문화재'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있었다. 이 밖에도 '능산리 출토 금동향로의 조형과 편련(최응천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원)', '일본의 조종문 토기의 분포양상(박중환 국립부여박물관 학예연구원)' 등이 발표됐다.

비판불교세미나 결산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는 20일 동국대 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비판불교' 결산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5월 1차 세미나가 열린이래 여섯번째 개최되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비판불교학자 마츠모토 박사의 강연과 종합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비판불교에 대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학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불교의례 미신이나 우상 아니다"

김호성 교수 "중도적 의례관 정립"제안

"만해 유신론의 의례비판 서구가치관 치우쳐"



◇지매결연 대학인 동국대와 일본 대정대는 매년 한일 국제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고 있다.

불교의례를 일방적으로 '미신' 내지 '우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조선불교유신론〉의 의례비판은 서구 중심의 가치관에서 자기문화를 보면서 자기문화는 마냥 개혁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으로 서구중심의 근대화론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열린 제12회 한·일 국제학술교류회의에서 '인도불교와 한국불교의 의례비판 비교'를 주제로 발표한 김호성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는 "갸냐요가(명상수행법)의 입장에 근거해 아함의 초기불교와 선불교를 그 사상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만해스님의 의례비판은 선불교(지혜의 제사)와 의례(재물의 제사)의 회통을 도모하지 못하고 의례를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대자적(對自的) 수행의례로 승화·귀의시키지 못한 점이 유신론의 의례비판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때문에 송주(誦呪)와 같은 밀교적 행법(行法)이나 염불과 같은 정토적 행법이 대자적 수행의례로 승화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만해스님이 철학적으로는 대승불교·선불교의 이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의례문제에 대해서는 석가모니 일불(一佛)만을 신앙하였던 초기불교 교단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의례무용론의 단견과 의례일변도의 상견을 극복한 중도적 의례관 정립을 제기했다. "유일신에 의한 구원을 설하지도 않고, 신의 존재를 상정하지도 않는 불교는 무신론의 종교다"고 전제한 데 이어 '의례 역시 수행'이기 때문에 '의례를 통한 해탈'을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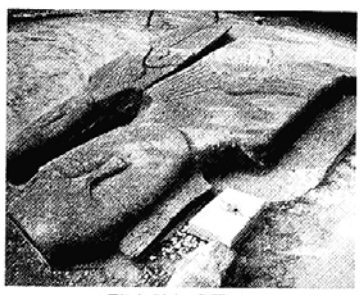
한편 '일본불교의 의례구조와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후지 마사오 교수(藤井正雄, 日 대정대)는 "불교라는 표층(表層)신앙의 저변에는 기층(基層)신앙으로서의 민속이 가로 놓여 있다"며 "민속의 종속변수로서의 불교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불교를 독립변수로 해석하는 능동적인 연구가 지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송경전과 그 변용화의 특질-이시가미 젠노 교수(石上善應, 日 대정대) △불교의례의 토착화와 민간문예의 교섭양상-오출세 교수(동국대) △한국 불교의례의 부대행사-김흥우 교수(동국대) △지반본 '법계성범수륙승회수재의궤'를 검증한다-라다 고오쇼 교수(多田孝正, 日 대정대) 등의 발표가 있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운주사 와불 일부러 세우지 않았다"

나경수 교수 주장…"와불은 민간신앙적 생산신"


◇전남 화순 운주사 와불

화순 운주사의 누워있는 와불. 조각후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세우지 못했다는 학설에 대해 세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세우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세기 화순경영포럼이 10월28일 화순군민회관 대강당에서 '운주사의 신비를 벗긴다'를 주제로 발표한 나경수(전남대 국어교육과)교수는 "운주사 와불을 민간신앙의 관점에서 보아야 '왜 누워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린다"며 "민간신앙적 입장에서는 생산 신(神)인 와불이 서는 것은 생산을 멈추는 것이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교수는 운주사를 민중의 무의식적 원형이 예술적 결과물로 형상화된 '신화예술(mythography)'의 대상으로 보면서 운주사 신화의 중심에 있는 와불 전설에 새로운 관점을 대입했다. "와불을 한국신화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천부지모(天父地母)의 신체로 바꾸어보면 불교적해석에서 오는 의문이 사라지며, 천불천탑도 수량적 의미보다는 '풍요와 다산'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종교지도자 정치적 중립지켜야"

김성건 교수 '새천년 종교인의 역할' 발표

종교가 사회적인 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복신앙보다는 윤리적 가치를 실천하는 생활이 중요하며, 특히 종교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종교인지도자협의회 주최로 2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3회 종교예술제 학술세미나에서 서원대 김성건 교수는 '새천년 새문화 창조와 종교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종교는 개인적인 구원에만 치중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치관을 실천하는데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종교인들이 정치적인 중립 태도를 지킬 때 종교의 사회적 위상과 종교 본래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토론자로 나선 동국대 진월스님은 "물질문명 중심으로 성장일로를 밟아 온 20세기의 반성으로 21세기에는 인간의 정신문화가 중시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각 종교별로 교수와 성직자들이 나와 주제발표와 토론에 참여했으며, 1백여명의 종교지도자들이 종교의 본질 회복과 화합을 모색하기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도필선 기자

위덕대 '밀교학보' 창간호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원장 김무생)은 개원2주년을 맞아 〈밀교학보〉 창간호를 발간했다.

〈밀교학보〉 창간호에는 김무생 교수(불교학)의 '육자진언의 상징적 의미' 장익 교수의 '한역 초기 밀교경전에 나타난 대승사상' 김영덕 교수의 '〈금강정경〉의 공양사상에 관한 연구' 등 7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이 밖에도 〈밀교학보〉에는 범한밀교 경전목록, 한국밀교 자료목록, 한국밀교 문화재목록, 초기 진각종사 연표 등의 부록을 수록, 밀교학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중국 산시성

타퉁 원강석굴·우타이산 등 소개

中 불교예술의 아름다움 볼기회

중국의 찬란한 불교예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산시성을 소개한 사이트 '중국여행'을 방문하면 △타퉁의 원강석굴 △우타이산 △우르무치 등 산시성의 웅장한 불교유적과 멋진 자연을 열람할 수 있다.

서역과 내륙을 잇는 길목인 산시성은 역사상 산악오지로 북방 기마민족과 한족의 접경, 중국 유일의 여황제 측천무후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다. 가장 화려했던 때는 선비족이 북중국을 통일한 4세기쯤. 그 후 당나라가 도읍을 장안으로 옮기면서 변방이 됐지만, 성 면적은 15만6천㎢에 이른다.

다퉁의 가장 큰 볼거리는 원강석굴. 바위산인 우저우산 원강봉에 5만1천 여개의 불상을 새겼다. 크기도 17m에서 2cm까지 다양하다. 이 곳에서 제공하는 고화질 석불 사진에는 섬세한 손길과 화려한 색채로 자아낸 염화미소가 담겨있다. 원강석굴은 다퉁에서 서쪽으로 16㎞쯤 떨어져 있는데, 룽먼·둔황석굴과 함께 중국의 3대석굴로 53개의 석굴이 지금껏 남아있다. 이 가운데 16~20굴이 가장 웅장하다. 다섯 굴(16~20굴)은 1,530년 전 인도에서 건너온 탄야요 스님이 창건했다. 나머지는 후세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당시 석굴 길이가 1㎞에 달했다고 한다.

우타이산은 해발 평균 2000m의 만년 설산이다. 어메이·주화·푸퉈산(山)과 함께 중국 4대 불교명산으로 꼽힌다. 주엔봉을 가운데에 두고 왕하이·과웨·진슈·예더우봉이 각각 동서남북에 불쑥 솟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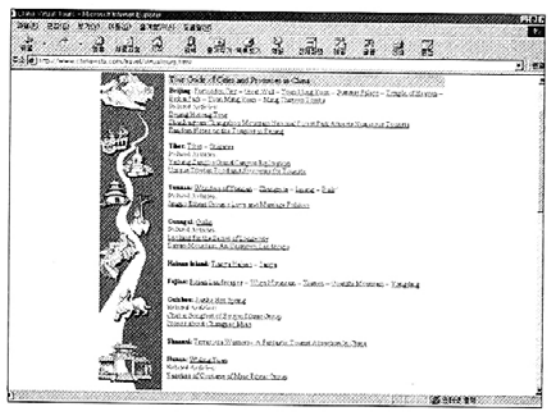
이중 최고봉은 해발 3,058m의 예더우봉. 다섯 봉우리에 걸쳐 절이 150여개, 타이화이전에만 47개의 절이 있다. 대부분 유·불·선이 융합된 모습이다. 선종·화엄종 등 13개 종파가 들어서 있다. 그래서 우타이산엔 '낮엔 절을 보고 밤엔 별을 본다'는 말이 생겨났다. 108 계단을 올라가야 볼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 살았다고 전해진다.

우루무치는 실크로드의 초입으로 동부 천산산맥 남쪽기슭에 자갈과 황토흙이 뒤섞인 사막길이 보이는 곳이다. 여기에는 〈서유기〉의 삼장법사가 손오공과 함께 불교 경전을 구하러 인도에 가는 도중 왕의 간청으로 1개월을 머물렀다는 가오창(高昌) 고성이 있고, 불상의 벽화로 유명한 화염산 석굴도 있다. 이 석굴의 벽화 중에는 파도치는 해변에서 가사를 걸치고 보현보살에게 합장을 하고 있는 현장법사와 땅에 엎드려 보현보살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 손오공을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이 사이트에서는 산시성의 동쪽으로 약 30㎞ 떨어진 여산 지역에서 발견된 90여기의 부장묘와 8천여개의 병마용, 호화찬란한 동차마, 그리고 중국 황제의 왕자와 공주들로 확인된 8기의 부장묘 등의 정보로 열람할 수 있다.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이들의 묘지의 주인공은 진시의 왕자와 공주들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 사이트에서는 베이징, 광주, 티벳, 몽골 지역의 유적 및 유물에 대한 간략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http://www.chinavista.com/travel/virtualtours.html



通度寺 鷲山 門徒會를 召集합니다.

오는 음력 10월 3일 (양력 11월 10일)은 先翁師 九河 老스님의 연고일입니다.
온 門徒의 정성을 모아 祭祀를 모시고 다음과 같이 本寺 諸般 問題等을 協議코저 門徒會를 召集 하오니 빠짐없이 參席하시어 積極 協力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日時 : 1999年 11月 10日 (陰曆 10月 3日) 13:00
■ 場所 : 본사 설법전

1999年 11月 2日

門徒代表 청하, 초우, 현산, 원명, 성파, 태응, 신허
門徒諸位

레이키 (REIKI)를 활용하십시오

레이키법은 세계 유일의 속성식 氣능력자 양성법입니다. 의료선진국인 미국등을 중심으로 하여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의 종합병원에서는 레이키요법이 의료와의 협진 도구로 쓰이는 추세가 1998년 후반기 이후부터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레이키법은 종교가 아닌 최첨단의 「氣의 과학」입니다. 난치병으로 고생하던 수많은 환자들이 소생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레이키법을 배울 것을 권하고자 합니다.

1. 다발성 경화증 환자가족
2. 다운증후군 환자 가족
3. 식물인간상태 환자 가족
4. 임산부의 남편
5. 간염환자의 소모되는 활력보충과 치료를 위해
6. 마약류, 술,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의 금단 증상 해소를 위해
7. 약재와 침에 氣를 넣어 치료효과를 높이려는 한의사, 약사
8. 피부관리실 운영자 9. 단식원 운영자
10. 기공도장운영자와 氣 수련자

⊙ 교육기간: 제3단계까지 3일소요 ⊙

문의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구한국레이키요법연구학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빌딩
전화 : 02)720-5682 / 725-2311
♣인터넷 홈 페이지 - http://www.Reiki.co.kr
지도자: 박희준 (우스이레이키마스터·카루나레이키마스터)번역저술가

天安靈樂寺 창건낙성 개원
가족·문중 영탑 공원 준공
점안 雲藏 큰스님 大법회



■ 의 전 : 雲藏큰스님 ■ 증명법사 : 大愚스님
■ 주 지 : 秦寬스님 ■ 창건주 : 清一(조병선)
■ 화 주 : 靈龍(신영용) 清科 (허두)

천안의 명산 태조산을 등에 업고 백제의 초 도읍지 위례산 성지를 안아 부처님 주처에 天安靈樂寺를 창건하고 자연 조경이 절묘한 3천평 부지에 조성한 가족·문중영탑공원을 조성하여 大 법회를 봉행하오니 동참인연 무량한 공덕을 성취하시고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자성 본래불

·날 짜 : 불기 2543, 11, 19일 오후 2시
·장 소 : 충남 천안시 입장면 시장리 51-35
·TEL : (0417)584-6674~6, 584-6335
·FAX : (0417)584-2335
·교 통 : 천안 역, 터미널에서 70,71(입석) 700,710(좌석)버스 입장하차
※점심공양은 天安靈樂寺에서

영탑 사업본부
영탑분양 판매 설치 주문제작

※가족, 문중 영탑분양: 천안 I.C 우회전 12Km 입장
※가족형, 문중형, 일반형, 종교형, 단체형
※정원, 별장, 산소 기타지정 장소 설치

영남불교대학
통신과정·인터넷과정 모집
포교사 배출기관 (조계종8호)

♣ 정규과정 한학기 3천명이 모이는 기적의 교육도량!
♣ 그 생생한 소리를 멀리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 우학스님과 교계큰스님(자광스님, 박삼중스님, 무비스님 등)이 펼치는 명강의를 만나십시오..
♣ 1년 수료 후 졸업장을 드립니다.

교 과 목
■ 기본과정 - 불교학개론, 예불, 반야심경
■ 고급과정(선택)
천수경, 금강경, 원각경, 계초심학인문, 지장경, 법화경, 발심수행장, 화엄경, 법성게, 육조단경, 인도불교문화사
■ 전화로도 신청 가능

영 남 불 교 대 학
053)474-8228
(http://www. cyberbuddha.or.kr)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

화 엄 경 ㊦

경전 속의 禪 사상 40

글쓴이



김 호 성

(동국대 교수)

"한걸음에 여래의 지위 들어간다"

'상즉논리'로 돈오 체계있게 설명

선불교는 일상언어의 논리와는 다른 논리를 갖고 있다. 비논리의 논리이다. 중국의 한 선사는 노래했다. "회주(懷州)의 소가 벼를 먹었는데 익주(益州)의 말이 배부르네."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서는 공간의 관념도, 자타의 관념도 모두 무너진다. 좀더 쉬운 말로 하면, "한 걸음에 여래의 지위에 들어간다"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어떻게 저 높은 부처님의 경지를, 감히 중생이 한 걸음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한 걸음에 여래의 지위에 들어간다"는 말은 선불교의 기본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중생과 부처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어떠한 간극도 무너뜨린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이에 대해서는 두가지 차원의 이해가 가능하다. 첫째는 논리적 차원이며, 둘째는 철학적 차원이다. 우선 논리적 차원을 살펴보자. 한 걸음에 곧바로 여래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는 중생이다. 따라서 이 인용구 속에는 여래와 중생의 존재가 같이 가정(假定)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양자는 일치한다는 의미이다. "중생이 곧 부처다." 이는 선불교가 내세우는 깃발이면서 동시에 화엄이 내세운 깃발이기도 하다. "중생이 곧 부처"라는 명제에서 중생을 하나(一)로 본다면 부처는 무량(無量)이라 해야 할 것이다. 중생이 부처라는 것은 곧 하나가 무량이라는 말이다. 이같은 논리를 〈화엄경〉에서는 "하나 가운데 무량을 알고 무량 가운데 하나를 안다"라고도 말하고, 또 "하나는 능히 무량이 되고 무량은 능히 하나가 된다"고도 말한다.

전자는 포함관계이고, 후자는 동치(同値)관계이다. A와 B가 서로를 포함하고 있다(相入)는 것은 A와 B가 같다(相卽)는 말이다. 이러한 논리를 '상즉의 논리'라고 부르는데, 그렇게만 말하는 까닭은 상즉이라는 개념 속에 이미 상입의 뜻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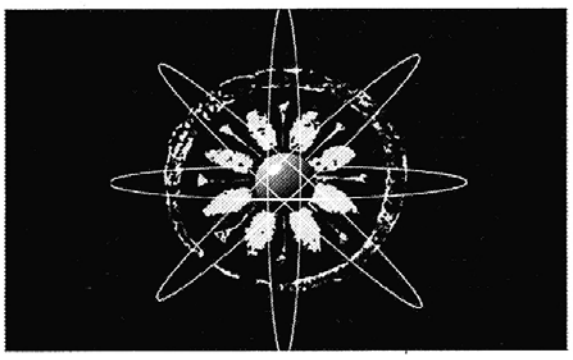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는 말은 상즉의 논리를 총론적으로 말한 것인데, 이러한 논리는 다시 공간·시간·성불과 관련하여 각론적으로 전개된다. 공간적으로는 하나의 티끌이 시방세계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다 포함된다"고 말하며, 시간적으로는 "일념이 무량겁이며 무량겁이 곧 일념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공간론이나 시간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불론이다. 공간론과 시간론 역시 "초발심이 곧 깨달음"이라 말하는 성불론(成佛論)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요청되기 때문이다.

중생이 한 걸음에 여래의 지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선불교는 애시당초 성립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돈오(頓悟)는 선불교의 생명이다. 그같은 돈오를 가능케 하는 논리적 근거가 바로 〈화엄경〉의 '상즉의 논리'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선불교의 돈오는 상즉의 논리 위에서 건립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와 무량의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일까? 부처와 중생이 동일시될 수 있는 것은 부처도 부처가 아니고 중생도 중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처가 부처가 아니며,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는 것은 자기정체성의 부정, 자기동일성의 부정에 다름 아니다. 부처가 부처가 아니라는 것은 부처가 공이라는 말이며,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는 것은 중생이 공이라는 메시지다. 따라서 중생이 부처라는 것은 공과 공의 동일성을 의미한다. 공은 공이다(0=0). 이러한 동어반복은 당연히 참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공의 논리는 선불교에 깊은 영향을 미친 〈금강경〉과 같은 반야부 경전에서 널리 설해지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논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선불교의 돈오는 가까이는 〈화엄경〉의 상즉의 논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다시 상즉의 논리는 반야부 경전에서 설해지는 공의 논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반야 → 화엄 → 선불교"로 이어지는 사상사의 계보를 그릴 수 있게 된다.

과 학 산 책 하드론

수학적 대칭성 바탕으로 수많은 하드론 규칙적 배열

대칭성의 비밀은 '팔정도'



지금쯤 여러분들은 다소 생소한 단어들로 이성과 논리를 담당하고 있는 왼쪽 뇌가 약간 아플지도 모르겠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모든 입자는 스핀수에 따라 보존(boson)과 페르미 입자로 구분되는데 전통적으로 보존(boson)은 힘의 역할을 한다. 양자장(場)의 이론에 의하면 보존으로 표현되는 힘, 장이 이산적인 에너지를 가진 상태인 입자, 진공은 모두 같은 장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입자, 진공, 힘이라는 전통적으로 서로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던 것들이 보다 더 근본적인 장(場) 이라는 개념으로 통합된다.

물질의 근본을 탐구하는 소립자 물리학의 가장 성공적인 이론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표준모델에서는 단지 6개의 쿼크와 6개의 렙톤(경입자)으로 수많은 소립자들을 잘 정돈된 규칙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규칙성들은 서로 다르게 보이는 수많은 소립자들을 몇 개의 더욱 근본적인 입자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표면적인 복잡함을 초월하여 더 깊고, 더 단순하고, 더 통합적인 자연법칙의 성격을 드러내 주고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중성자와 양성자들에게는 강하게 상호작용하는 수백개의 친척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페르미 입자이거나 보존들이었다. 이를 하드론이라고 부른다.

그 당시 물리학자들에게는 수없이 발견되는 하드론이 골치덩어리였다. 1961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메레이 겔만(Murray Gell-Mann)과 그와 독립적으로 연구한 이스라엘 정보 장교 출신의 물리학자인 유발 니만(Yuval Neeman)은 수많은 하드론들을 규칙적으로 배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들의 이론은 수학적인 대칭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이 이론을 불교의 수행 지침인 팔정도라고 불렀다. 팔정도에 의하면 모든 하드론들은 큰 무리(가족, family) 중의 하나에 속해야 한다. 각 무리들은 일정한 숫자의 하드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1, 8, 10, 27개의 하드론 입자를 가진다. 하나의 입자만을 가진 무리를 단일항(singlets)라고 부르고 8개 입자를 가진 무리는 팔중항(octets) 등으로 부른다.

그 당시 물리학자들은 팔정도가 왜 그렇게도 잘 맞는지에 의아해 했다. 하드론들을 충돌시켜 조각을 내보려 했으나 생겨나는 것은 더욱 근본적인 입자가 아니고 충돌에 의해 공급된 에너지로부터 더 많은 새로운 하드론이었다. 그러므로 하드론들은 더 쪼갤 수 있는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근본 입자로 여겨졌는데 내부구조가 없으면서도 너무나도 규칙적인 팔정도를 따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물리학자들을 괴롭힌 것이다.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구두끈 가설(bootstrap hypothesis)이 제안되었다. 이 가설에 의하면 하드론 충돌 실험에서 새로운 입자가 발견되지 않고 또다른 하드론들이 더 많이 발견되는 것은 어느 하드론들도 다른 것보다 더 근본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 가설은 실험에 의해 제시된 하드론의 대칭성인 팔정도에 대해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한다.

점진적으로 수많은 하드론들이 명확한 대칭법칙에 따라 일련의 부류들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 대칭은 쿼크라고 불리우는 3가지 기본적 입자들로 그 당시까지 알려진 수백개의 하드론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되었다.

물리학의 진전은 역사적으로 두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수평적 확장으로 기본 구성요소의 수가 확장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구성체들 중에 존재하는 일련의 대칭관계는, 예를 들면 쿼크 같은, 아(亞) 구성체의 기본적 군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통합의 방향이다. 이 표면적 복잡함을 초월하는 과정은 자연법칙을 이해하는데 더 깊고, 더 단순하고, 더 통합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조원희 〈본사 전략정보실장〉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㉑

부처님의 자유 ③

자유로 가는길 '팔정도'

탐진치 벗어날때 마음의 해탈 얻어

탐욕의 지배를 받게되면 우리는 즐거움에 끌려다니고, 증오의 지배하에서는 고통스러운 느낌에 내몰리며, 미망의 지배하에서는 애매 모호함 때문에 혼란에 빠진다. 행복해지면 신이 나고 슬픔을 당하면 기가 죽는다. 이득과 명예와 칭찬이 올 때는 의기양양하다가 손실이나 불명예, 비난이 닥치면 낙심 천만이다. 그 방향으로 행동하면 반드시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피해 나갈 힘이 없다. 그 길이 아닌 이 길이 이로운 길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이 길을 추구하지 못한다. 내버리지 못한 번뇌의 물살에 휩쓸려 삶과 죽음의 파도를 타고 비참과 절망의 소용돌이인 윤회의 바닷속을 이생저생 끌려다닌다. 겉보기엔 지상의 통치자일지 몰라도 의식의 안마당에선 아직도 죽은 자일 뿐이다.

이와 같은 노예적 상황과 반대되는 것이 정신적 자유라 한다면 그것은 탐·진·치로 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이 탐·진·치를 버리어, 그것들이 잠재된 형태로도 남아날 수 없도록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 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쫓겨나지 않을 자율의 왕좌를, 확고 부동한 주인의 자리를, 그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찾아서 앉게 된다. 설혹 그가 집집을 다니며 탁발하는 두타 행자라 하더라도 그는 역시 왕임에 틀림없다. 심지어 쇠창살 속에 갇혀 있다고 해도 우리는 내면적으로 자유롭다. 이제 우리는 자기 마음의 통치자이며, 때문에 전 우주의 통치자이다. 왜냐하면 온 우주 안에 그 무엇도 우리의 재산인 마음의 해탈을 앗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속적인 것들과 어울려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지언정 세속의 영고 성쇠를 떠나 완전한 평정을 취하고 있다. 설혹 유쾌한 대상이 인식 범위 내에 들어와도 우리는 그것들에 마음이 끌리지 않으며 고통스런 대상이 들어와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 양쪽을 모두 우리는 평온리에 관하면서 그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주시한다. 서로 번갈아가며 계속 이 세상을 지배하는 두 상극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다. 이끌리고 배척하는 삿된 감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우리의 눈에는 금 한덩어리나 흙 한덩어리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칭찬과 멸시의 말이 우리의 귀에는 다 빈 소리로 들린다. 우리는 오랜 각고의 노력으로 얻어 낸 자유를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니 번뇌가 근절되면서 어떤 슬픔도 비애도 그의 마음에 범접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탐욕이라곤 흔적도 없는 순전한 법열만이 거기에 남아 있다. 우리는 공포에서 벗어났으니, 구중 궁궐 속에서 안팎으로 호위를 받는 제왕들도 면치 못하는 그 으스스한 불안이 그에게는 없다. 우리는 질병에서 벗어났으며, 마음을 얽어 묶는 저 열정이라는 발열성의 성가신 병에서도 벗어나고, 윤회의 병에서도 벗어나 번뇌, 업지음, 과보받음의 악순환도 벗어났다.

부처님께서 우리의 가르침의 목표라고 지적하셨던 자유는 그 목표를 생생한 경험으로 실현해 낸 사람만이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소금으로 간을 치면 어떤 음식이든 짠 맛을 내듯, 자유의 맛도 부처님께서 펴신 법과 율의 처음 중간 마지막을 가릴 것 없이 전 범위에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로 법을 닦든 간에 그 정도만큼은 자유의 맛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언제나 명심해야 할 점은 진정한 자유 곧 마음의 내면적 자율은 은총으로 내려지는 하사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오직 자유로 나아가는 길,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삶과 죽음을 준비하는

호스피스 교육과정 안내

자비신행회와 교사불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기 호스피스 교육이 교수진들의 열강과 교육생들의 뜨거운 열기로 회향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종교육을 통한 불교신행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자 제2기 호스피스 교육강좌를 개설하고 아래와 같이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진실한 삶을 배우는 이교육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999.11.15

자비신행회 · 광주 전남 교사 불자회

교 육 이 념

임종교육을 통해 희망하는 것은 우리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방식,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는 방식, 삶을 바라보는 방법과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방법 전체에 조용한 변혁을 이루어내는 것이다.

교 육 목 표

① 치료 불가능한 환자와 임종을 앞둔 노인,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를 양성한다.
② 사람들의 생 · 노 · 병 · 사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배우고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준비를 한다.
③ 사람들의 노년은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세와 성불을 준비하는 기도와 발원의 시간이 되도록 도움을 준다.

▶ 일 시 : 매주 2회(화 · 금) 오후 2시 ~ 4시
▶ 교육기간 : 1999. 12. 7. ~ 2000. 2. 29. (3개월)
▶ 교 육 비 : 3개월 10만원
▶ 접 수 처 : 자비신행회 사무실 ☎(062)222-1165
광주시 항동 55-1

제2기 임종간호 교육(호스피스) 강의 내용 및 강사

제 1주	죽음을 이해합시다	현장스님	대원사
제 2주	호스피스의 역사와 의미	능행스님	아미타호스피스
제 3주	임종환자와 호스피스의 역할	능행스님	아미타호스피스
제 4주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규칙	능행스님	아미타호스피스
제 5주	죽음에 대한 경전의 가르침(1)	이중표	전남대교수
제 6주	죽음에 대한 경전의 가르침(2)	이중표	전남대교수
제 7주	호스피스와 대체의학(1)	전홍준	의학박사
제 8주	호스피스와 대체의학(2)	전홍준	의학박사
제 9주	업과 윤회의 법칙	한탑스님	정토사
제10주	임종 염불법	현장스님	대원사
제11주	환자가족의 마음관리	김수진	간호간과
제12주	환자와의 의사소통방법	김수진	간호간과
제13주	영하는 일을 통해서 본 죽음의 모습들	문형원	능인회
제14주	영상으로 보는 티벳 사자의 서	(N · H · K제작)	현장스님해설
제15주	바르도의 세계(1)	초펠스님	티벳스님
제16주	바르도의 세계(2)	초펠스님	티벳스님
제17주	티벳사람들의 죽음관	초펠스님	티벳스님
제18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준비(1)	진옥스님	석천사
제19주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준비(2)	진옥스님	석천사
제20주	호스피스 자원봉사 체험담	길상화	자원봉사자
제21주	호스피스 대상자의 신체간호	박인순	한마음 호스피스
제22주	호스피스 순방및 사례보고	박인순	한마음 호스피스
제23주	사별가족의 보살핌	혜도스님	승가대 교수
제24주	다과 및 평가회	교수 · 학생 함께	

■1박 2일 대원사 수련회 〈수련주제: 죽음을 준비합시다〉
■일정표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마음 가는대로 바늘 움직여요"

산문밖의 수禪 자수장 한상수씨



한땀한땀 정성 쏟다보면 어느덧 무념무상의 세계 수틀엔 삼라만상 드러나

81년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 자리수기법 복원 전통수 맥이어

평생을 오로지 우리나라 전통자수(刺繡)의 맥 잇기에 바쳐온 한상수씨(68·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匠)의 삶은 마치 깨달음의 경지를 향해 끊임없이 참구하는 수행자의 그 길과 맞닿아 있다.

그는 자수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한시도 전통자수 복원에 대한 발원을 놓아 본 적이 없다. 생계조차 어려웠던 시절에도, 아이를 낳아 등에 업고 다니면서도 그녀는 실자는 법 하나, 염색하는 법 하나 놓치지 않으려 시골 할머니의 수틀까지도 살펴 보았다. 우리나라 전통 자수의 복원 그것은 평생의 화두였고, 오늘의 그를 있게 한 원천이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그는 아직도 수틀앞에 앉는 것을 거르는 날이 없다. 바늘에 실을 꿰워 한땀 한땀 수백 수천번을 움직여 삼라만상의 대역사를 수틀에 빚어낸다. 작은 보자기에서부터, 노리개, 주머니, 병풍, 수불(繡佛)에 이르기까지 바늘과 실, 그리고 지극한 정성과 심미안으로 자수를 예술의 경지로 승화시킨다. 단조로우면서도 복잡한 작업이고 긴 인고의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그에게 있어 수놓는 일은 마치 밥먹고 잠자는 일상사처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그는 바늘 한땀을 시작할 때 우선 호흡을 고른다. 자세를 곧추하고 입정에 들어 마음에 어떠한 잡념도 없도록 한다. 오로지 바늘 한땀 한땀에 정성을 다하다 보면 어느덧 무념무상에서 오로지 바늘만이 마치 주신인양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그렇게 움직이다보면 수틀이 희려한 무늬와 색으로 채워지듯 비워있던 마음에 충만한 환희심이 가득 차올라 오랜 경험으로 깨닫게 된다.

"처음 불교작품을 할 때였어요. 충청도 한 암자에서 천주(千珠)를 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저 관세음보살 염송만 미친 듯이 했지요. 제 모습을 본 그 암자의 스님이 '당신은 기도를 잘하니 열심히 하면 된다'는 말씀에 새벽이면 천주를 들고 촛불을 밝혀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낮에는 수놓는 작업을 계속했는데, 작품을 완성할 때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했던 그 기도 덕택인지 불교작품으로 큰 상을 탔지요."

81년 제6회 전승공예대전에서 그는 단청장 이만봉스님의 지도로 괘불(掛佛)을 수놓아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냥 수를 잘 놓아서 받은 상이 아니었다. 전통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니며 한국 전통수의 기법을 연구하던 그는 선암사 대각국사의 가사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자수기법인 자리수를 발견하고, 이를 괘불에 응용했던 것이다. 수를 돗자리모양으로 놓는다 하여 자리수라 하는 이 기법은 조선시대 이후 단절됐던 것으로 한씨가 다시 복원해 냄으로써 우리나라 전통수의 특징을 하루아침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 자수의 원형을 찾다보면 불교수가 우리나라 수의 역사에 끼친 영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생활용품 등을 중심으로 자수 자료를 수집하다가, 삼국시대 고려시대의 자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그시대 작품의 대부분이 수불(繡佛)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들이 하지 않는 수불에 온갖 정성을 기울이게 된 거예요."

한상수씨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신명을 바쳐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긴다. 밤낮을 구분하지 않은채 온 정열을 작품에 쏟고, 숨어있는 옛 자수를 찾기위해 꾸준히 자료를 모은다. 대만 일본 등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에서 고유한 기법과 문양을 발견하여 정리해 그동안 〈기초자수〉 〈이조자수〉 〈홍배〉 〈수불〉등의 저서를 권찬하기도 했다.

그가 전통자수의 맥을 잇게 된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미술시간에 모란꽃 무늬가 박힌 귀주머니를 만든 것이 계기가 되었다. 어린 나이에 어려운 조선수를 놓는 그를 담임선생님이 크게 격려했고, 일찍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한 그는 17세때 고향인 제주를 떠나 서울에서 본격적인 자수공부를 시작했다. 광화문을 지나다가 전봇대에 '자수강습, 기술자 구함'이라고 적힌 광고를 보고 찾아간 어느 수예점에서 "자수를 평생공부하고 싶다"는 한마디가 자수연구가 故 조정호씨(전 이화여대교수)를 은사로 모시게 되는 큰 인연이 되었다. 그로부터 20년간 조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자수의 기초부터 차근히 배워나갔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수의 외길을 한눈 팔지않고 걸어 왔다.

"84년 자수부문에서 첫 인간문화재로 지정받고는 위암으로 돌아가신 선생님이 유물로 남기신 바늘 한쌈을 안고 엉엉 울었지요.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지금도 마음먹고 큰 작품을 할 때면 선생님이 주신 바늘을 사용합니다."

얼핏 보기에 자수는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디어 구상에서부터 천 선택, 도안본 그리기, 실 준비하기, 실 염색하기, 수 기법 정하기, 수 놓기 까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수만 놓았다고 또 다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를 다 놓은 후 먼지를 털고, 실밥을 정리하고 뒷면에 풀칠을 해야 한다. 그리고 풀이 마르면 뜨거운 김을 쏘여 잘 펴고, 다시 그늘에서 하룻밤 동안 말려 수 속에 습기가 없게 완전히 건조한 다음 액자나 주머니 등 원하는 형태로 제작하는 것이다.

"처음 초보때는 오로지 곱고 매끄러운 수놓기에만 신경을 쓰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게 되면 자수 기법과 터치도 새로워지고, 완숙의 경지에 다다르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바늘끝에서부터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거침없는 바늘이 나와 천을 뚫고 실을 옮겨다니며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수는 손으로만 놓는 것이 아니란 것을 터득하게 되는 거지요. 마음 가는대로 바늘이 움직이고, 마음에 한점 흐린 구석이라도 있으면 자수에 그게 나타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수의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자부심과 사명감 하나로 오늘의 일가를 이룬 자수장 한상수씨. 바늘에 실을 꿰워 한번 시작한 자수는 뒤로 가는 후퇴란 없다. 후회할 수 없기에 한땀 한땀에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듯 한씨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한다. 되돌아 갈 수 없는 우리의 삶, 그렇기에 인생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사는 방법을 자수에서 배우기를 바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수의 기능적인 측면만을 보고, 학문으로 보려는 데는 인색합니다. 자수는 섬유와 실과 염색, 도안, 형태 구상 등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종합예술입니다. 기술만 있다고 되는게 아니예요. 저는 남은 세월을 우리 전통자수를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완성하는데 바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이면 자수와 관련한 자료들을 모아 글로써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 매년 자수국제교류전도 열어 세계 곳곳에 우리 나라의 전통수를 계속 전할 생각입니다. 내가 만든 수가 하나라도 영원히 남는다면 이 험한 시대를 살아온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내년 3월 천3백여년전에 백제인과 고구려인의 지도로 완성돼 현재 일본 국보로 지정돼 있는 '천수국만다라수상'을 보러 일본에 간다. 민간인에게 그것도 자국인이 아닌 타국인인 한씨에게 자기나라의 최고국보를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한상수씨를 세계적인 자수의 대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상수씨는 대가의 눈으로 우리나라 전통수의 특징을 살피고, 그또한 자수법으로, 작품으로, 책으로 남겨 후대에 남길 것을 지금 구상중이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단청장 만봉스님의 밑그림에 수를 놓아 81년 제6회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괘불' 작품. 이 작품은 자리수와 이음수, 평수, 실징금수를 주로 사용했으며, 실을 세가닥으로 비비어 안팎수를 놓았다.



◇이천시 관고동에 위치한 마애상은 유래가 드문 고려시대 조사상이다.

마애불을 찾아서

영월암 마애조사상

크고 뚜렷한 상호서 고승의 체취 두손 가슴에 모아 설법하는 모습

이천시 관고동에 위치한 이 마애불은 자연 암석을 다듬어 그위에 조각한 승려상이므로 육계가 아닌 민머리를 보여주며 원만하고 둥근 얼굴에 상호가 크고 뚜렷하게 조각되었다. 지그시 감은듯한 눈과 굵직한 코, 두터운 입술 등의 상호에서는 힘차고 후덕한 고승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 목에도 삼도의 표시가 있고 두손은 가슴에 모아 엽지와 약지를 맞대 설법하는 모습이다. 왼쪽 어깨를 감싼 우견편단의 가사는 몸 전체의 유연한 사선을 그리며 흐르고 끝단은 지그재그 모양으로 마무리져 있다. 이러하 옷주름선은 그다지 번잡하지도 간략하지도 않은 소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조사상의 신비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장대하고 힘찬 솜씨를 보이고 있는 이 조사상은 고려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마애조사상은 영월암의 창건조사 혹은 이 사찰과 인연이 깊은 나한이나 고승을 기리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며 유래가 드문 고려시대 마애조사상인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글·사진=불지포교사진연합회
(011-337-7312)

신비의 달마도를
행운의 순금 (99.9%)카드 에..



▲앞면 달마도



▲뒷면 반야심경

달마는 禪을 대표하는 인물로 깨달음을 상징하며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분으로 손꼽힌다. 또한 달마도는 TV 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러운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는 등 건강과 함께 부와 명예를 불러 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 이에 착안하여 (주)한국 지앤씨에서 신비의 기를 지닌 "달마도" 등을 new의 "순금카드"위에 세계서 상품화(실용신안등록 No.0426562호) 했다. 천만통자 특별 보시 보급품으로 선보여 큰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다. 순금카드는 일련에 달마도의 대가 매헌 윤종우 선생의 원본 작품을 카드용 크기 (대형 5cm×7.5cm), 소형 3cm×5cm)에 새기고 뒷면에는 반야심경을 새겨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찢어지거나 구겨짐없이 지갑에 소지하기 쉽다.

사찰이나 불자님들의 불사 보시용으로 다량 주문시에는 가격할인은 물론 앞뒷면에 원하는 사진, 그림, 글씨본, 부적, 이름 등 어떠한 문안이나 색상도 크기에 관계없이 원본 그대로 제작 가능하다. 개인 소지용 및 선물용으로 최적이며 가격은 대형 20,000원, 소형 15,000원, 대소셋트 구매시 특별 보시 가격으로 20% 할인된 28,000원에 판매한다.

부처님의 말씀과 신비의 달마도를
품안에 가까이…

전화주문 접수후 전국 어느곳이나 5일내 우편배달 가능하며 최고의 정신 달마도를 고급 포구액자(27cm×32cm)화한 액자용도 한정 판매한다.

※ 또한 매헌 윤종우선생님의 달마도 원본도 판매합니다.

순금판 영쇠고리 — 순금판 상반신 달마도 열쇠고리 1개 : 1만원, 3개(set) : 2만원에 판매

※유사품과는 다릅니다. (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 제조판매원: 한국 지.앤.씨 (24시간, 공휴일 접수가능)
⊙ 구입문의 본사: 02)922-4804~5 ※영업점 모집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⑯

雖先頓悟 煩惱濃厚 習氣堅重
수선돈오 번뇌농후 습기견중
對境而念念生情 遇緣而心心作對
대경이염념생정 우연이심심작대
被他昏亂 使殺昧却寂知常然者
피타혼란 사살매각적지상연자 ·
卽借隨相門定慧 不忘對治 均調昏亂
즉차수상문정혜 불망대치 균조혼란
以入無爲 卽其宜也
이입무위 즉기의야

그러나 비록 먼저 깨달았다 하더라도 번뇌가 두텁고 습기가 무거워서 경계를 대하면 생각생각에 감정이 일어나고, 반연을 만날적마다 마음은 대상을 만들어 혼침과 산란에 빠져서 고요함과 아는 마음이 흐려지는 사람은 곧 상을 따라 수행하는 선정과 지혜를 빌려서 다스려야 함을 잊지 말고,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 무위에 들어감이 마땅하다.

雖借對治功夫 暫調習氣
수차대치공부 잠조습기
以先頓悟心性本淨 煩惱本空故
이선돈오심성본정 번뇌본공고
則豈以二門定慧
즉기이이문정혜
有先後次第二見之疑乎
유선후차제이견지의호

비록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를 빌려서 잠시 습기를 조절하지만 이미 마음의 본성이 본래 깨끗하고, 번뇌가 본래 비었음을 깨쳤기 때문에 점문의 열등한 근기에 물들은 수행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깨치기 전의 수행이란 비록 공부를 잊지 않고 생각생각에 익히고 닦지만 곳곳에서 의심을 일으켜 자유롭지 못함이 마치 한 물건이 가슴에 걸려있는 것 같아서 불안한 모습이 항상 앞에 나타난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가 익으면 몸과 마음과 객관의 대상이 편안해진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편안한 것 같으나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은 것이 돌로 풀을 눌러놓은 것 같아서 오히려 생사의 세계에 자재로울 수가 없다. 그러므로 깨치기 전에 닦는 것은 참다운 닦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의심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생사의 세계에 자재로울 수 없다

悟人分上 雖有對治方便 念念無疑
오인분상 수유대치방편 염념무의
不落汚染 日久月深
불락오염 일구월심
自然契合天眞妙性 任運寂知
자연계합천진묘성 임운적지
念念攀緣一切境 心心永斷諸煩惱
염념반연일체경 심심영단제번뇌
不離自性 定慧等持 成就無上菩提
불리자성 정혜등지 성취무상보리
與前機勝者 更無差別 則隨相門定慧
여전기승자 갱무차별 즉수상문정혜
雖是漸機所行 於悟人分上
수시점기소행 어오인분상
可謂點鐵成金 若知如是
가위점철성금 약지여시
卽不落漸門劣機 汚染修也
즉불락점문열기 오염수야
何者修在悟 前 則雖用功不忘
하자수재오 전 즉수용공불망
念念熏修 着着生疑 未能無礙
염념훈수 착착생의 미능무애
如有一物 礙在胸中 不安之相
여유일물 애재흉중 불안지상
常現在前 日久月深 對治功熟
상현재전 일구월심 대치공숙
則身心客塵 恰似輕安 雖復輕安
즉신심객진 흡사경안 수부경안
疑根未斷 如石壓草 猶於生死界
의근미단 여석압초 유어생사계
不得自在 故云 修在悟前 非眞修也
부득자재 고운 수재오전 비진수야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비록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방편이 있지만 생각생각에 의심이 없어 번뇌에 물들지 않는다. 그리하여 오랜 세월이 가면 자연히 천진하고 묘한 성품에 계합되어 고요하고 아는 것이 자유롭고, 생각생각이 일체의 경계에 반연하면서도 마음마음은 모든 번뇌를 영원히 끊어버리되 자기의 성품을 떠나지 않고 선정과 지혜를 평등히 가져 무상보리(無上菩提)를 이루어 앞에 말한 근기가 뛰어난 사람과 다름이 없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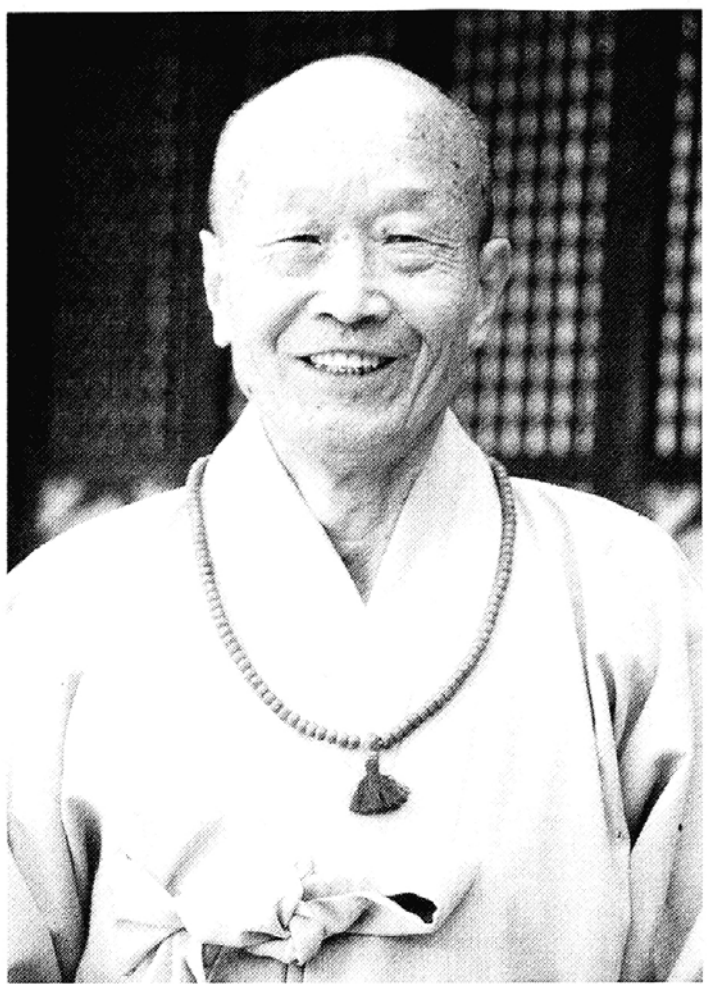
상을 따르는 수상문의 선정과 지혜는 비록 점차로 수행해야 하는 근기를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지만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쇠로 금을 이루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이렇게 안다면 어찌 자성문(自性門) 수상문(隨相門) 두 문의 선정과 지혜에 있어서 앞뒤의 차례가 있다는 두 가지 견해의 의심이 있을 수 있겠는가.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가정과 직장과 이웃에

덕운스님 〈대구 보원사 조실〉



약력
- 1917년 안동 生
- 29년 안동시 사입화산학교 졸업
- 33년 안동시 길안면 용담사에서 김영욱스님을 은사로 사미계수지
- 51년 파계사에서 반공산스님을 법사로 건당
- 53년 7월 파계사 강원 중등과 졸업
- 99년 3월 선암사에서 법계고시 1급종사 수득
- 현재 대구 보원사 조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고정관념의 잣대로 바라보니 번뇌망상에 빠져 허우적대지요"

모든 현상은 연기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어 인연을 따라 생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합니다.

즉 인연생기(因緣生起)이니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멸하므로 저것도 따라서 멸한다는 이치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내가 있음으로써 삼라만상이 펼쳐지는것이니 나라는 아상이 소멸되면 모든 현상도 따라서 소멸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아상이 더 이상 자리잡을 수 없게 된 사람은 곧 연기의 법칙을 깨달아 응무소주(應無所住)하고 무위자연(無爲自然)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과거를 되돌아보거나 얽매이지 않으며, 현재에도 머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물이 흐르듯 살아가니 참으로 대자유인이라 하겠습니다. 〈금강경〉에서도 미래심불가득(未來心不可得) 현재심불가득(現在心不可得) 과거심불가득(過去心不可得)이라 해서 마음은 특정한 순간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변화하는 것으로서 실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진짜 하늘마음을 닮아서 천진난만(天眞爛漫)하기만 합니다. 친구들끼리 싸우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다시 어울리는 모습이 인위적인 데라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증아함경〉 18권에 보면 부처님은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연기법은 여래가 세상에 출현하든말든 항상 존재하며, 여래는 연기법을 깨달아 해탈을 증득했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동의 한 작은 마을에서 안동 권씨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기대가 무척 컸으나 어릴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 주변에 의논해본 결과 스님이 되어 수행할 팔자라고 했습니다. 당시만해도 예향 안동에는 유교풍습이 지배적인지라 맏아들을 출가승려로 만든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나 자식의 목숨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듯합니다.

결국 15세에 용담사로 입산하게 되었습니다만, 제가 입산하고 나서 2년 후에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가에 몸을 담은 것이나 태고종에 몸을 담게 된 것이나 모두 인연법에 따라 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70여 년에 가까운 승려생활도 인연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까지 저는 아직 깨달음을 얻은 바는 없습니다. 팔만사천경전도 마음심(心)자 하나로 귀결되는데 아직도 마음을 제대로 쓸 줄 모르니 조사스님들을 뵙기가 송구스러울 따름이지요. 다만 끊임없이 참구해나갈 따름입니다. 수행이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과정에 충실하다보면 저절로 종착역에 도달할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추구하다보면 오히려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까닭에 꾸준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은사이신 반공산스님은 마침 '팔공산'과 명호가 비슷해서 다른 분들이 은사스님을 칭할 때는 마치 "팔공산스님 팔공산스님"하고 부르는 것처럼 들려서 은사스님이 팔공산을 대표하는 스님처럼 여겨졌습니다. 스님을 은사로 모신 지 몇 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천도재를 지내기 위해 은사스님께 위패를 써달라고 간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스님은 "나는 쓸 줄 모르니 네가 쓰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태껏 잘 써주시다가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하는 생각을 하며 난감해 하다가 문득, "앞으로 모든 것은 내가 알아서 하라는 말씀이시구나. 깨닫는 것도 결국 내가 하는 것이지 스승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의 주장자를 세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했고 일상생활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은사스님은 이렇듯 생활 속의 가르침을 통해 나의 의식을 일깨워주시곤 하셨습니다.

막행막식을 하고서도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이니, 나는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 식의 스님이 있더라구요.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는 하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정하지 않으면 밝아지지 않고 밝아지지 않으면 지혜가 생겨나지 않으니 어느 세월에 연기의 도리를 깨치겠습니까?

재가신자들이 찾아오면 복을 구하기 전에 참회하라고 가르치는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는 것은 곧 수행입니다. 원래 계행이 청정하면 따로 수행이라고 할만한 게 없습니다.

본심은 원래 청정한데 무명업식에 가리워서 실체를 보지 못함이니 수행을 추구하기에 앞서 참회하고 계행을 청정히 하며 마음을 비우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임제선사는 말하기를 "도를 닦으려고 하면 닦아지지 않고 삿된 소견만 자꾸 일어나게 된다.

한 생각을 돌이켜 한 물건도 없게 하면 밝음이 오기 전에 무명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번뇌를 끊기 위해 번뇌에 매달려서는 번뇌는 사라지지 않고 망상의 악순

근본불교 여래선(위빠싸나) 수련법회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위빠싸나』 참선으로
있는 그대로의 법(法) 성품(性品)을 경험하여
헐떡거리는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인연을 지녀지이다.
선재! 선재! 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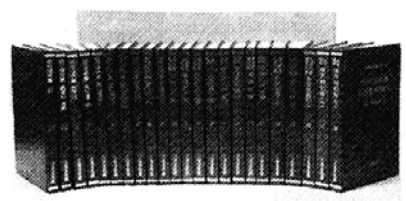
■ 기 간 : 1999. 11. 20(토요일) 오후 4시 ~12. 4(토요일) 오후 3시(15일간)
■ 장 소 : 봉인사 자광전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리 304
(전화: 0346-574-5585, 574-2340 FAX: 574-0808)
■ 지도법사 : 혜조 스님(NANALOKA BIKKHU)
■ 주 관 : 봉인사 · 한길 정진원

▲2일 마다 수행과정의 내용 점검(Interview)
▲2일 마다 수행의 실제를 돕는 구체적인 법문
▲수행자 각 개인의 인연에 맞는 정확한 수행 방법의 안내
▲수행 기간 중 묵언
▲오후 12시 이후 불식(不食) (음료수는 가능함)
▲오전 4시 입선, 오후 9시 방선
▲수행자는 수련 기간 중 위빠싸나와 본 정진원에서 이끄는 방법 이외의 다른 수행을 할 수 없음

◇참가회비 1일(1박 기준) 당 10,000원
◇방사 관계로 50명 한, 마감 예정이오니 선착순 접수합니다.
◇참여 희망자 중 지병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행 기간(15일) 중 부분 참여도 가능합니다.
◆준비물 : 1. 법복(간편한 복장)
2. 세면도구
3. 필기 도구(특히 두툼한 노트)
4. 필히 담마(법)을 체험하겠다는 서원

보궁도 참배하시고 부처님 수행도 하십시오
봉인사 한길정진원 합장

사주추명학
아부태산 전집 23권
운명학의 금자탑
아부태산 전집 드디어 번역 출간되다!!
우리말로 쉽게 풀이하여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운명을 알 때 재난과 불행은 있을 수 없다.
나는 새 흐르는 물 말없는 바위와도
대화할 수 있는 지혜 행복의 샘이 여기에 있다
○사주추명학 12권
○사주추명학 육임신과 7권
○사주추명학 적천수한해 3권
○사주추명학 천문자미운명학 1권



※낱권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권당 15,000원, 전집은 330,000원
삼원문화사 문의전화 TEL. (02)333-4005, 323-3493
FAX. (02)323-3494

완전 초보에서 60일에 영어회화가 술술 해진다??
영어문장 자동 암기 TAPE AMT AUTO MEMORY TAPE 2-3년의 시간과 노력을 60일에
방법만 달리하면 최단 시간내 가능!!
삼보에 귀의하옵고
코리아헤럴드 A.M.T (AUTO MEMORY TAPE)는 영어의 기본요소인 형태(FORM), 의미(MEANING), 사용(USE) 중 한국인이 가장 취약한 사용(USE)면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특수 기능성 TAPE입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영어문장 자동 암기 TAPE
"A.M.T"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
A.M.T. PORGRAM은 한국어 구조에 익숙한 우리의 중추대뇌신경을 영어 발성구조로 변화시켜 줍니다. 영어식의 생각의 틀 형성 및 발성구조가 영어식으로 바뀌게 하는 PORGRAM입니다.
AMT는 50년 전통의 영자신문 코리아 헤럴드가 최초로 검정 감수한 영어회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M.A.P(Master and pay Later) 마케팅은 지금까지의 방법에서 영어학습 실패의 두려움으로 인해 망설이는 분께 학습을 마친 후 그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영어문장 자동암기 TAPE학습 및 프로그램 문의
051-861-7705 척척영어 코리아헤럴드

큰스님 수행한담

수많은 부처님 계시죠”



◇지난 6월 금강산 성지순례를 했다. 사진 왼쪽부터 덕운스님, 연운스님(태고종 사정부장), 일우스님(종회의장).

“남과 나의 생각이 다른것은 갈등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긍정하고 수용하면 하나돼요”

환에 빠지고 맙니다.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면 번뇌라는 것은 본래 뿌리가 없는 것이어서 굳이 끊고 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대승불교에서는 고해(苦海)가 바로 화엄세계이니 괴로운 현실을 벗어나 따로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번뇌가 보리'인 셈이지요.

대구 관음사를 창건해서는 은사스님을 5년8개월간을 시봉하면서 공양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스님의 생활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스스로 공부해나가는 기간이었는데 주로 관음기도를 했습니다. 몸에 병이 많았던지라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는 업장을 녹이는 수행이었습니다. 바른 마음 바른 태도로 하는 기도에는 자신의 내면의 힘에서 나오는 가피력이 반드시 함께 합니다. 기도를 기복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기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구하는 기복적인 기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신의 업장을 참회하거나 남을 위한 기도는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자신의 그릇된 훈습이나 태도를 바꾸고 마음을 비우게 해주니까요. 이러한 순수한 기도에는 보시(布施) 애어(愛語) 이타(利他) 동사(同事)의 사섭법(四攝法)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사섭법은 더불어 사는 인간세상에서 서로 다툼이 없이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네가지 방편입니다. 그 가운데 애어는 남을 대할 때 늘 부드럽고 따뜻한 말과 얼굴로 대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동사는 남의 입장이 되어 한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던 불보살님은 늘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모, 형제, 친척, 이웃이 다 불보살님임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울줄 알아야 채울수 있는 공간 생겨요

복 구하는 기도전에 먼저 업장 참회해야

중국에 백정이 한명 있었는데 술을 좋아하고 성질이 포악했습니다. 그의 늙은 어머니는 늘 아들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이웃의 권유로 관음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기도한 덕분인지 아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한 스님의 권유로 관음보살이 살고 있다는 보타낙가산으로 성지순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관음보살을 친견하게 되면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는 말을 들은 아들은 관음보살을 친견하기 위해 여러 사찰과 동굴을 찾아다니다 덕 높은 고승 한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스님은 대중들이 듣는 앞에서 “관음보살님은 네 집에 계신다. 집으로 돌아가면 맨발로 너를 반길 것인즉 친견하게 되면 참으로 공손하게 모셔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습니다.

백정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두드리자 잠자고 있던 어머니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아들을 마중나왔습니다. “아, 나의 어머니가 관음보살이었다니...” 아들은 어머니 앞에 수없이 절을 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날 이후 백정은 지난 날을 참회하고 완전히 새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가장 자기와 닮은 사람이자 소중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자신이 부처라면 자기 가족 또한 최소한 부처급일지니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주변의 사람들을 늘 부처로 볼 수만 있다면 자기자신이 부처가 될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 집과 내 직장과 내 이웃에 수많은 부처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늘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참된 자기를 망각하고 이 몸뚱아리와 실체가 없는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다보니 남과 내가 분리되고 거기서 미움 욕망 분노 등의 감정이 싹트고 갈등과 분열이 생겨납니다. 참된 자성안에는 원래 벽(壁)이 없으며 벽이 없는 그곳에 적(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정관념으로 자신만의 성벽이나 틀을 만들지 말고 비울 수 있을 때 어떤 충격이 다가와도 부동할 수 있는 경계가 됩니다. 비울 줄 아는 사람에게만 세상만물을 담을 여유도 공간도 생기는 법입니다. 존재하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긍정하지 못하면 늘 불만과 긴장과 대립 속에 지내야 합니다. 남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은 갈등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마치 낮과 밤이 대립이 아니고 조화이며 남성과 여성이 대립이 아니고 조화이듯이 말입니다. 자꾸 자꾸 긍정하고 수용해가다 보면 언젠가 일체만물과 더불어 편안해지는 때가 오겠지요. 덕(德)이 있는 자에게는 늘 친구가 따르며 외롭지 않은 법입니다.

어렸을 때 국왕인 아버지의 집에서 떨어져나와 방랑의 몸이 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나이는 나중에야 아버지의 도움으로 왕궁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왕족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나이처럼 우리 중생들도 본래는 법신부처님의 자식이었으나 그러한 거룩한 출생신분을 망각하고 부처의 길에서 등을 돌려 사바세계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자식간의 연(緣)은 속일 수 없는 지라 비록 자기가 부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할지라도 마음은 늘 본능적으로 부처님이 계신 곳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은 부처님의 집 문안에 서있어도 부처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지 못하지만 부처는 늘 자기자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석가모니부처님이 출현하신 까닭도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주기 위함이지만 중생들은 아직도 두려운 마음과 지금까지 함부로 살아온 습성 때문에 거룩한 부처님의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중생들로 하여금 '나와 부처는 둘이 아닌 동격이다'는 위대한 진리에 눈을 떠서 한시라도 빨리 부처의 집안에 다시 들어오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설하는 가르침은 하늘 전체를 뒤덮는 큰 비구름과도 같아 중생이라는 이름의 크고 작은 초목들을 빠짐없이 적셔줍니다. 부처님이 설하는 진리는 본디 평등하지만 사람들의 타고난 재질과 성품이 제각기 다른 관계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법에서 갖가지 다른 길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를지라도 각각의 사람들이 각자의 성품대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다는 점에서는 모두 평등합니다.

정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나의 수행일기



이은정 〈前 보문고 교장〉

〈하〉

큰스님을 뵙고 그 속내 깊은 가르침을 받아 깨어 있는 부처님 참 생명으로서의 부처님을 만나 뵐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불은이었다.

어느 날인가 스님은 주지실문 위에 붙어 있는 육화경(六和敬)을 가리키면서 그 뜻을 음미하라고 하셨다. 계화동준(戒和同遵), 견화동해(見和同解), 이화동균(利和同均), 신화동주(身和同住), 구화무쟁(口和無諍), 의화동존(意和同尊)이다. 이 세상에는 세가지 종류의 모임이 있다. 권력에 의한 모임, 금력에 의한 모임, 동신동지의 모임이다. 권력과 금력은 무상한 것이다. 오직 동신동지의 모임만이 영원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이와함께 계율을 존중하고 지키고 의견을 서로 잘 맞추고, 이익을 똑같이 수용하고, 몸으로 일을 함께 하며, 입으로 다투지 않고, 서로 인격을 존중해 준다면 승가는 화합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도 스님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노스님은 항상 초연하셨고, 정화는 필요하지만 폭력적 싸움은 있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하시며 정법 수호는 그 방법도 정당해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노스님을 시봉하면서 목욕하고 청소하며 마음을 관하고 때묻은 마음을 닦아내는 법을 배웠다. 뿐만 아니라 교단이 화합하는 법도 배웠다.

이후 나는 대학에 가서 학문적인 불교체계를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불교 종립학교에서 교법사의 역할과 일반 교사의 책임을 다해야 했다. 그러나 그 때만 해도 포교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 교내에서 불교를 가르치는 것은 인연의 이치를 이해시키려 애썼고, 선생님들에겐 종립학교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자고 권했다. 중고등부 학생회를 조직하고, 밖으로 대학생회·청년회·일반불교 신도의 연합적 조직 거사립 등에 참여하고 지도의 일익을 담당하기도 했다.

학생들과 매일 교문 앞을 쓸기도 하고 일요일 새벽이면 역전으로, 영렬탑으로, 보문산 공원으로 빗자루를 들고 나섰다. 농사철이면 모내기 등 할 일이 많았다. 토요일이면 중고등법회, 일요일이면 일반 신도법회, 청년회 대학생회 등 빠지는 적이 없었다. 부처님 오신날의 행사를 비롯 지역내 모든 불교관련 행사가 종립학교 중심으로 치러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교도소의 법회및 위문, 양로원 고아원 등의 위문, 각종 기념일에 종교방송이나 지방신문 기고까지도 교법사의 몫이었다. 그 때는 그런걸 해줄 사람이 없었다. 잘하고 못하고 간에 능력 껏 할 수 밖에 없었던 시절이었다.

학교 조직의 변화로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서도 그 책임과 역할 못지 않게 교법사로서 즉 포교사로서의 생각을 저버리지 않았다. 교장실에서 매일 생일 맞은 학생들을 초청, 보은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또 명상을 통해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착한 마음을 갖도록 했다. 〈부모은중경〉을 사경하여 부처님의 공덕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을 열어 보기도 했다. 또한 '자기 찾아 나서기'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기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고 연꽃 음악제 등을 통하여 직원과 학부모들과 종교적 이해를 높여보고자 노력했다.

지난해 나는 정년퇴임했다. 지난 30여 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면 부끄러운 일도 많았다.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한다. 밖으로만 뛰어가던 내 신행이 보다 안으로 여물어 갈꽃처럼 피어나야 한다.

노스님으로 부터 시작하여 많은 선지식들로부터 배운 불법의 큰 바다속에서 이제는 더 자주 목욕하며 살아가려고 한다.

교직 30년…인연의 이치 전하려 노력

예불과 행선축원으로 하루 시작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소 재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고운사의 상징 '가운루'

경북도 유형문화재 151호인 고운사 가운루. 아래로는 계류가 흐르고 뒤로는 산과 구름을 접하는 신선의 세계가 펼쳐진다.

개울사이 두 가람 잇는 '다리'

고운사 가운루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가람의 장면들 15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구계동에 있는 고운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16교구의 본사로서 당당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현존하는 건물만도 29동에 이르는 큰 규모의 사찰이지만, 전국적으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찰이다. 아마 조계종 지역 본사 가운데는 가장 무명의 가람이 아닐까. 그러나 이 절은 의상대사가 681년에 창건했다고 전해지며, 현재까지 경북 북부 지방의 중심 가람으로서 전통을 자랑하고, 가람 건축의 짜임새도 뛰어난 곳이다.

의상 창건설 말고도 신라말의 대학자이며, 이단아였던 최치원이 창건했다는 설도 전해져서 더욱 이채롭다. 전설인즉, 고운 최치원이 여지, 여사라는 두 스님과 이 곳에 와서 가허루(駕虛樓)와 우화루(羽化樓)라는 두 누각을 건립하였고, 이 때부터 최치원의 호를 좇아 고운사라고 불리웠다는 것이다. 최치원은 유학자이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의 풍류도를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풍류도란 신라 화랑들과 같이 산천을 찾아 다니며, 심신을 단련하고 자연을 숭상하는 수행법이자 일종의 종교적 행위였다. 당대의 대 지성이요, 풍운아였던 최치원이 언제 죽었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는 가야산에서 산신이 되었다는 설이 풍미했을 정도로 신선도나 도교의 성인에 가까웠다.

최치원과 밀접한 인연을 간직한 고운사는 도교적 이미지로 가득한 절이다. 뒷산의 명칭도 뭉게구름을 뜻하는 등운산이고, 최치원이 세웠다는 가허루나 우화루 역시 도교의 신선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체들을 뜻한다. 물론 도교 또는 풍류도의 도사가 불교 사찰을 창건했다는 전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단지, 이 땅의 산세가 신선이 노닐만한 선경이라는 점,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지 신라말에 최치원과 관계가 되었기에 형성된 창건 연기가 아닐까.

가허루는 현재 가운루(駕雲樓)로 바뀌었고, 우화루는 우화루(雨華樓)로 이름이 바뀌었다.

도교적 이름에서 불교적 이미지의 이름들로 언젠가 변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가람은 여느 불교 사찰들과는 달리, 색다르게 만들어졌었다. 원래는 두 계곡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에 절터를 잡았다. 마치 Y자형으로 생긴 개울을 이용하여, 북쪽에는 극락전을 중심으로 20여동의 전각들이 개울을 따라 일렬로 서 있었고, 남쪽에는 모니전(대웅전의 전신)을 중심으로 독립된 암자가 경영되었다. 말하자면 두 개의 독립된 가람이 개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던 모습이었다. 그러나 1992년 거대한 대웅전을 새로 지으면서, 남쪽의 암자를 없애 버렸고, 개울도 덮어버려서 원래의 절묘했던 가람은 사라져 버렸다.

92년 개울 메우기전엔 계곡에 뜬 배와 같아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비록 남과 북, 두 개의 사찰로 나뉘었지만, 결국은 하나의 가람이었다. 개울로 나뉘어진 두 가람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바로 사찰 입구에 세워진 거대한 가운루이다. 가운루는 우선 개울 위에 세워져, 남과 북의 양 쪽을 이어주는 다리이면서도 건물이었다. 같이가 16.2m에 최고 높이가 13m에 달하는 대규모 누각이다. 3쌍의 가늘고 긴 기둥이 계곡 밑까지 내려가 이 거대한 몸체를 떠 받히고 있다. 마치 양쪽의 언덕에 걸쳐진 다리와 같고, 계곡 위에 둥실 떠 있는 배오도 같다. 옛 기록에도 가운루는 "누각에 서면 아래로는 계류가 흐르고, 뒤로는 찬란한 산들과 구름의 바다를 접하는 신선의 세계"라고 극찬한 절경이다. 한국의 사찰들 가운데, 이처럼 극적인 모습의 누각은 보기 어렵다.

얼핏 생각하면, 가운루는 가람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운루의 위치와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처럼 과장될 정도로 규모를 키운 까닭을 상상할 수 있다.

사찰의 입구에 서 있는 가운루는 고운사의 얼굴이다. 원래부터 두 편으로 나뉘어 성장해 온 고운사의 독특한 구조상, 무엇인가 가람을 대표할 하나의 얼굴이 필요했고, 이를 가운루로 삼은 것이다. 또한, 가운루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두 개의 사원을 서로 연결하고 하나로 묶어주는 통합체이기도 했다. 실제로 가운루는 가람의 진입로 상에서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보다는 개울에 의해 나뉜 두 부분을 연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강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불리함을 감수하고라도 개울 위에 세운 것이다. 한동의 건물로 가람 전체를 통합한다니 놀라운 발상이 아닌가?

우연한 감동은 없다. 가운루의 형태나 규모, 그 위치가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은, 그 속에 담겨진 오미와 옛 스님들의 뜻깊은 사려 때문이다. 비록 최근의 중창 불사로 고운사의 가람구조는 훼손되었지만, 그나마 가운루는 보존되어서 예전 가람의 서원들을 들려준다.

"책속에 신행과 포교 있다"

불서 읽기 생활화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도서회원 모집등 사찰 적극 나서야
불광사 10년째 불서읽기 캠페인 '호응'

사찰 도서실을 중심으로 불서읽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은 본사가 펼치고 있는 '사찰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연중캠페인과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찰들이 불서읽기를 주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계기가 됐다.

이에 따라 사찰은 기도 수행을 하는 곳외에 불서를 읽으며 신심을 다지는 곳이란 새로운 공간적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도서실 개설을 통해 불자들의 불서읽기를 이끌고 있는 사찰이 아직은 소수지만 전망은 밝다. 도서실을 운영하는 사찰들이 신도들은 물론 지역민들로 부터 호평을 받으며 신행과 포교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같은 변화의 움직임은 도심포교당이나 승가대학(강원), 교양대학 등에서 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곳들은 대부분 도서실을 열린 교육공간으로 활용,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독서읽기운동, 도서회원모집, 도서기증 운동 등 일부 사찰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이 신심증장과 포교에 지대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은 이들 도서실이 있는 사찰 주지스님들의 공통된 의견이란 점에서 사찰도서실 만들기 및 유관사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불서읽기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사찰 가운데 하나가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불광사(법주 지정)이다.

불광사는 90년부터 꾸준히 불서읽기 운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불광사 불서읽기 운동 가운데 가장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매월 월간 '불광' 지에 게재하는 캠페인 사고. 내용은 주로 직장에서나 학교, 가정, 병영에서 불서를 지녀 읽을 것을 강조하는 문구들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생일축하 선물로 불서를 보내자'라는 것이다. 생일 1주일전 주소와 이름, 그리고 축하문안을 전화로 연락하면 생일 축하카드와 함께 원하는 불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 방법이다. 불광사는 불서읽기운동 범국민적 확산을 위해 사찰 인근 지하철역 등지에서 가두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불서와의 만남이 곧 부처님과의 만남'이란 주제 아래 펼치고 있는 불서읽기 운동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월간 '불광'과 불광출판부 도서출판 '한강수'와 공동으로 펼치고 있다. 이로인해 현재까지 등록된 회원만도 약 2천3백여명에 이를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불광사 불서읽기 캠페인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일시적의 차원이 아닌 신행의 중요한 방편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불서읽기 운동을 장기간 펼쳐온 점이 주효했다.

불서읽기 운동에 가입한 회원들은 독서와 토론 등을 통해 교양과 신심을 쌓으며 다른 법우들에게 불서를 권장하는 역할도 한다. 불광사는 신도들의 적극적인 불서읽기 열풍으로 최근에는 도서관의 규모도 늘리고 불서도 보충했다. 특히 불광사는 창건 25주년을 맞아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불광(http://WWW.bulkwang.org)을 통해서 불서읽기운동과 불서읽기 회원을 모집하는 한편 불서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사찰에 도서실을 만들어 각종 불서를 두루 갖추고 스님들이 책 읽기를 꾸준히 권한다면 불서읽기는 확산될 수 있다.

하지만 교계의 불서읽기 운동은 아직 걸음마 단계. 이를 보다 확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찰들이 도서실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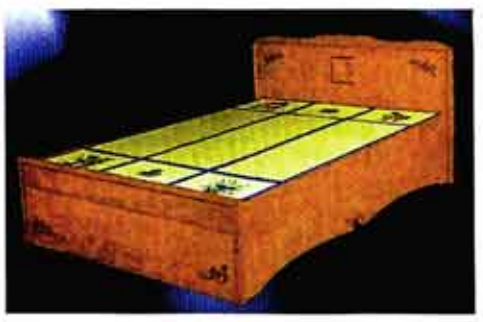
○방과후 사찰 도서실에 들러 불서를 고르고 있는 청소년들.

傳統黃土房
지정황토침대
●특허출원 제99-11447호●

"지정황토침대"
한 불자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황토침대"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황토침대의 효능과 가치를 평가 하십시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화함을 느낄 수 있는 황토 천연적으로 만든 지정황토침대에서 흙의 기(氣)를 직접 체험해 보세요. 지정황토침대는 온도조절이 가능하여 찜질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순수황토와 쑥, 느릅나무액 등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으로 건강은 물론 자연의 향이 더없이 상쾌함을 주며 황토매트에서 아무것도 깔지 않고 잘 수 있는 특성과 전자파와 수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지정황토산업에서 시공한 국내최초 황토군법당 27사단 설법전 현판식 1999.9.19


지정SILVER황토침대 싱글 ※규격 190×96×39


침대에 황골돗자리를 매치하여 더욱 시원한 모습의 지정황토침대
※규격 190×131×39

주요생산품목
- 황토주택건설
- 황토타일
- 황토침대
- 황토벽돌
- 방바닥 및 벽마감시공 (등록업체)

"흙은 만물의 모체다" 황토에는 병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데_(동의보감참조)
(주)지정산업에서 개발한 황토방이나 황토침대는 열처리를 전혀 하지 않은 순수황토에 식물성을 첨가하여 자연적으로 만든 획기적인 제품으로 인체에 유익함은 물론 독특한 향기까지 맛볼 수 있으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황토방으로 개조하여 도배나 장판을 깔지 않고 흙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공합니다.

자연과 인간+흙과 인간=건강한 내일
(주)지정황토산업

전국대리점 및 영업사원모집
사무실 : (032)427-7898~9, 427-8080
공 장 : (032)697-2365~6
팩스 (032)427-7997 / PCS (016)360-2236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nmaum

"한 사람의 한 생각이 우주전체로 퍼져요"

여래불이니 아미타불이니 부처님 이름 수없이 많지만 내 주인공으로 다 연결


그림 · 최주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자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 생이나 앞으로 돌아올 미래 생이나 일체 제불이나 다 함께 한자리를 하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하로서 또 동서남북, 모든 생명들이 다 함께 하구요. 그러니 여러분은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만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외에도 모습 아닌 모습으로 바로 여러분과 같이 하고 계시고 또는 일체 제불과 더불어 일체 보살도 다 같이 하신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이 그러니까요. 그러면 질문부터 하실까요?

'관' 실천하는 방편 주세요

문 제주지원 심용회의 정희북입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주여고에 재직하면서 2년 전에 3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대학 진학을 발원하는 마음에서 시간은 워낙 없고 해서 출근하는 차 속에서 1년 가까이를 매일 주인공에 관하고, 오분향례, 반야심경을 봉송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학교는 제주도 여학생 수학능력시험 전체 수석, 개교이래 명문대학 최다수 합격 등 좋은 입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나니 이제는 습관이 되어 하루도 빠짐 없이 그대로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관을 할 때는 '주인공의 나툼으로 지혜가 생겨 모두 이익되게 하소서' 이렇게 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생활 속에서 관이 잘 안 되는 경우 스님께서는 수많은 설법을 통하여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은 매일 마다 실천할 수 있는 방편 아닌 방편은 필요하지 않은지 듣고 싶습니다.

답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다 방편이죠. 방편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방편이지만 그 방편이 없어서도 아니 되죠.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함이 없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방편은 필요한 것입니다. 방편이나 방편 아닌 것이나 올바로 하면 방편 아닌 그대로 실천이죠.

사회와 나라를 위하는 마음

문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 중에 '하늘이여 땅이여'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조선 오백여년 동안에 왕위 계승과 당파 싸움으로 인하여 왕손뿐 아니라 왕후들의 원혼을 잘 달래지 못해서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한제국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삼각산 아래에서는 누구도 끝이 좋지 못하므로 왕가의 원혼을 달래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저도 끄달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며 한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불제자들은 사회의 안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그러면 뜻으로 몇 마디 해드리죠. 우리가 전부 필요한 점이니까요. 서방정토에 아미타부처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또 〈화엄경〉이라는 그 자체는 바로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화경〉은 즉 말하자면 무아의 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처님들 이름은 수없이 많지만 한 부처님입니다. 또 우리 살아나가는 생명들이 천차만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또 천차만별의 차원이 있구요. 또 그 가운데는 천차만별의 업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업보라는 건 무엇인가. 업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없는 것입니다. 이 얘긴 나중에 잇도록 하고요. 여래불이니 아미타불이니 이렇게 수많은 이름의 부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생각을 미처 하질 못해서 문제입니다. 일체 깨우쳤다, 또 서방국토다 아미타다 부처님이다 여래불이다 뭐, 비로자나불이다 이렇게 수많은 부처님들 이름이 많지만 그때 그때에 적합한 방향으로 그렇게 이름으로 지어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 〈화엄경〉을 설하신 뜻은 살아나가는 도리를 전파하신 거죠. 그리고 〈금강경〉이다 하는 것은 이게 선(禪)으로서 가는 법이죠. 즉 무의 법으로서 선법으로 가는 것이고 또 〈법화경〉이라는 것은 선법이나 물질에 사는 사람들의 법이나 똑같이 굴러간다는 그 뜻을 설하신 겁니다.

알고 본다면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했던 말은 학(學)으로서 만약에 말을 한다면 한마디 지금 내가 말한 것이 책 한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 배워서는, 말은 했다 하면, 들었다 하면, 그냥 잊어버리고 몇마디 주워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방국토에 부처님이나 다른 부처님 이름들이 수없이 많아서 이 허공에 꽉 찼다 하더라도 부처님은 한 부처님으로 섬깁니다. 이 아미타 부처님은 전체에 비유를 해서 전체에 없는 게 없는 것이고 또 아니 비추는 게 없는 것이고 아니 하시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도 이 생산처를 볼 때, 이 우주에서 모두 생산을 하고 벌성도 생산하고 북두칠성에서는 관리를 하고 살아나가는 그 도리를 볼 때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 자유대로 산다 이렇게 말은 못할 겁니다. 아마, 자유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긴데 모두가 일불입니다. 그것도 여러분한테는 일불이면서 자신의 자불로 가르칩니다. 지금, 왜냐하면 자신의 자불 하나에서 수많은 부처님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차원에 따라서 수많은 중생들이 나오고 또 수많은 생명들이 나오고 그 많은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자동적인 컴퓨터가 제각기 하나씩 있어서 생각나는 대로 집어넣으면 그건 순리적으로 다 해결이 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한생각이 전국에 퍼지느냐. 그렇다고 해도 됩니다. 또 세계를 말해도 되는 거구요. 이 생각이라는 건 그렇게 이 우주 전체를 갖다가 전파를 할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정말이지 진짜로 믿으셔야 합니다. 저 나무들을 보세요. 모습은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제 뿌리 없이 그냥 사는 나무 있나 보세요. 그럼 뿌리를 모두 다 가지고 사느냐? 그럴 때 전부 뿌리 없는 게 없더라. 그리고 씨가 없는 게 없더라. 씨를 심어야 먹더라. 이런 걸 볼 때에 사람이 죽어서 영령들이 어떠한 지역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이 날 때 그대로 거기에다가 놓는다면 입력이 돼서 그냥 전파가 되고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중심을 잘 잡고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냥 진화가 되는 겁니다. 보통은 착하게 살았으면 착하게 진화가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마음공부는 악하게 살았든 선하게 살았든 무조건이다 이 얘깁니다. 무조건, 무조건 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은 자기 자신이 해결을 해야하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너는 이제 차원을 올려 놓았으니까 앞으로는 그걸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잘해라' 이럭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할게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의 대승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대승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승의 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대승의 도리니 소승의 도리니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공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한 생각에 그렇게 적응이 되는 거죠. 그러니 본인들이 '내가 했다, 내가 산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앞으로도 이걸 잘 해야지' 이런 '게 스스로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 도리를 모르니까 '내가 했다, 내가 이걸 안나가게 해야지' 등등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만약에 그 도리를 안다면 그런 생각조차도 없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보십시오. 아버지 노릇을 하고 남편 노릇을 했는데 어떤 노릇을 할 때에 내가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24시간 살아나가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24시간 동안에 얼마를 봤고 얼마를 들었고 얼마를 만났고 이런데 내가 어떤 걸 만났을 때 내가 했다고 하며 어떤 걸 봤을 때 내가 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두가 한 무더기로 그냥 공했다. 그냥 내가 하지 않았어도 운전수가 끌고 다니니까, 운전수가 즉 자기니까. 운전수가 자기를 끌고 다니고 보게 하고 듣게 했으니까 운전수한테다 감사하게 맡겨야죠.

그것이 우리 생활에서 다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그것을 다 넘어가도록 해서 둘이 아니게 공심으로 공생으로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함이 없이 생활을 함으로써 공해서 함이 없다는 도리를 알고 넘어간다면 그냥 편안하게 믿게 되고 놓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대로 진정 한생각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부처님의 이름이 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주인공으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용도에 따라서 지장이니 관세음이니 칠성이니 하고 이름만 다를 뿐이죠. 즉 말하자면 누구나가, 일체를 다 알아야 보살이 될 자격이 있는 거죠. 이게 유의 법에서도 그렇고 무의 법도 그렇지만은 유의 법에서 요만한 거 하나 하나가 거쳐나가는 것이, 그렇게 조그만 거 하난 데도 큰 걸로 이어집니다. 그게, 조그만 거 하나를 잘못했다면 조그만 거 하나로만 문제가 오는 것이 아니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찰 · 신행단체 · 계모임 등에서 떠나시는 해외성지순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외여행업허가번호 42-109

선재여행사(善哉旅行社)가 문을 열었습니다

귀명삼보하옵고,
월간 『법공양』을 발행하고 있는 불교신행연구원에서는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삼아 해외불교성지순례를 전문으로 하는 선재여행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교계의 사부대중께 지면을 통하여 인사를 올립니다.
선재여행사는 단순한 해외여행을 하고자 문을 연 것이 아닙니다. 감동이 깊고 신행이 깃든 순례, 우리나라와 해외의 불교문화를 비교하면서 심도있게 살피고 참배하고 그 속에 깃든 불교정신을 음미해 보는 순례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문을 연 것입니다.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떠나는 사찰 단위의 해외성지순례, 불교단체 및 계모임에서의 성지순례에 저희 여행사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앙망하오며, 떠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인도 · 중국 · 일본 · 미얀마 · 티벳 · 네팔 · 태국 · 스리랑카 등 불교권 국가를 대상으로 삼아 뜻깊은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여행이 되도록 모든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김현준 배상

감동과 신행 · 품격이 있는 성지순례 - 저희 善哉여행사와 함께 하십시오.

달라이라마친견 및 인도성지순례 9일 ₩2,000,000
출발일 - 12월 12일 (단, 1회에 한함)
델리-기원정사-열반지 쿠시나가르-제 2결집지 바이살리-나란다대학-라지기르, 영축산, 죽림정사-성도지 보드가야 (달라이라마 친견)-초전법륜지 녹야원, 사르나트-바라나시(갠지스강)-델리 (특급호텔이용)

인도 성지순례 9일 ₩1,900,000
출발일 - 1월 23일
델리-아그라-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살리-나란다-라지기르-보드가야-사르나트-바라나시-델리 (특급호텔이용)

인도 성지순례 9일 ₩1,570,000
출발일 - 11월 28일
델리-아그라-기원정사-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살리-나란다-라지기르-보드가야-사르나트-바라나시-델리 (일반호텔이용)

인도 · 네팔 성지순례 16일 ₩2,780,000
출발일 - 1월 11일
불교 8대성지, 산치대탑 · 아잔타 · 엘로라석굴 및 히말라야 일출 · 카트만두 · 포카라 등 네팔 주요 성지 탐방 및 주요 불교성지 총망라

일본 성지순례 5일 ₩1,370,000
출발일 - 12월 15일
오사카-나라-고야산-교토 (법륭사 · 광륭사 등 17개 사찰 및 유명관광지)

특선 1

특선 2

미얀마 · 태국 · 스리랑카 성지순례 11일 ₩2,334,000
출발일 - 12월 3일, 1월 14일
방콕-앙곤-바간-만달라이-양곤-방콕-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폴론나루와-시기르야-댐불라-캔디-콜롬보-방콕 (총 24개 성지탐방)

미얀마 성지순례 6일 ₩1,580,000
출발일 - 12월 3일, 1월 14일
방콕-양곤-바간-만달라이-양곤-방콕 (총 15개 성지탐방)

스리랑카 성지순례 6일 ₩1,310,000
출발일 - 12월 8일, 1월 19일
방콕-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폴론나루와-시기르야-댐불라-캔디-콜롬보-방콕 (총 9개 성지탐방)

중국 상해 · 보타산 · 항주 · 소주 6일 ₩920,000
출발일 - 11월 28일, 1월 4일
상해 옥불사 · 용화사-관음성지 보타산-영파 이육왕사 · 천동사-항주 서호십경 · 영은사 · 비래봉 석불동굴-소주 한산사 · 호구 · 졸정원-상해

중국 북경 성지순례 5일 ₩680,000
출발일 - 12월 9일, 12월 22일
벽운사 · 와불사 · 법해사 · 운거사 · 법원사 · 대종사 · 법운사 등 북경의 고찰 순례와 만리장성 · 이화원 · 천안문 등 관광



◆ 출발조건 : 국제선 항공료, 현지 국내선 항공료, 호텔, 현지차량, 식사, 현지가이드, 관광지 입장료, 공항세, 관광세, 1억원 보상한도 보험료, 각국 비자비 포함(단, 여권인지대는 별도), 선택관광 및 팁은 일체 없습니다.

善哉! 참 좋다, 좋은 것 뿐이로다. 선재여행사 전화 : 02-582-6647~9 · 팩스 : 02-586-9078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한마음에 일체 있으니 용도대로 쓰세요"

☞ 15면에서 계속

라 그 조그만 거 하나 잘못하는 반면에 큰 것도 잘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보살 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알고 본다면 참 이런 공부는 세세생생이 가도록 돈을 내고 공부해도 아깝지 않은 공부입니다. 정말 이 공부라는 것은 이런 인연이 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공붑니다. 우리가 그래도 전자에 인연이 돼서 이 마음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한자리에 모인 거죠. 또 우리만 앉았는 게 아니라 일체 제불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서 이렇게 상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덕인 줄 아십니까.

이 공부 하는데 이유를 붙이거나 여자다 남자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가난하다 부자다 이것도 보지 마시고 그저 닥치는 상황대로 좋게 섭섭지 않게 해결만 하고 가면 되죠. 사는 걸 그대로 사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다 걸어야 보살행이라는 거죠.

도살가축 천도시키려면

문 저는 제주지원 심용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기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스님 앞에서 말씀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스님께서 저희들이 한마음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스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다시 한번 질문 올리고자 합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생활하다보면 어떤 여러가지 일로 인해서 도살을 하거나 살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자리에 같이 있게 될 때 저는 항상 도살하는 이에게 원망하거나 나쁜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불법에 인연하여 진화 발전하라고 이렇게 관하곤 합니다. 그러나 제가 관을 한다고 해서 천도가 꼭 된다거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냥 당당하게 함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반들하고 공부를 하다보면 제 자신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면서 과연 그런 관을 하고 가도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 올립니다.

답 그것을 길게 그렇게 곰곰히 생각해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단하게 그런 생각으로서 하신다면 정말이지, 진화가 돼서 한자리를 같이 하는 거죠.

옛날에 승려들이 참, 같이 한도량에서 사는데 은사스님이 죽게 됐어요. 선방이니까 수좌라고 그러죠. 제일 아래서 공양주를 살던 어느 수좌가 가만히 보니까 연세는 많이 드셨는데 영 먹는 게 실답지 않거든요. 부실하게 나물만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게 기운을 못 차려서 저렇게 병이 드셨나보다 하고서는 나가서 지렁이를 그냥 한 소쿠리씩 잡아서는 소금을 넣고 씻어서 그대로 산에서 달여가지고 그 물을 꼭 짜가지곤 갖다 드리고 갖다 드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너는 인제 지옥으로 떨어졌다. 하나를 살생을 해도 안된다는데 너는 아예 수만 마리씩 그렇게 살생을 하니 너는 인제 죽었다.' 또 '우리들까지도 같이 문제가 되니까 너 그럭하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 막내 스님은 '나는 내가 죄를 져서 가루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 스님만 살리면 돼' 하고는 꿋꿋이 견뎌냈답니다. 지렁이도 스님으로 하나가 돼서 진화되니 좋고, 스님 병도 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 때문에 지금 닭을 한마리 잡았다 한다면 겉으로 따지고 보면 살생이죠. 그러나 그 닭의 입장에서는 큰 영광이죠. 더구나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한테 걸렸다는 게 정말이지 천년에 한번 걸릴까 말까 한 문제죠. 천년만에 한번 만나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런 뜻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랬듯이 그런 사람에게 먹히면 그냥 제깍 진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그 모습을 벗어나서 다른 모습으로 자기가 살고 싶은 모습으로 태어나니까 얼마나 그게 좋은 일입니까. 양면이 다 좋죠.

사업이 구조조정 위기에…

문 저는 제주지원에 다니고 있는 심단희 강재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큰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는 3년 전 집사람이 몸이 아플 때 이 불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지만 병명은 없고 무당을 데려다가 큰 굿을 두 번씩이나 했지만 몸은 아파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마음선원에 다니는 동생이 큰스님 친견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처음으로 스님을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큰스님께서는 "알았어요. 나무가 뿌리를 믿고 살 듯이 자신의 뿌리를 믿도록 해요."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불법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던 저와 집사람은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선원에 열심히 다녔고 그러다보니 스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람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전화통신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까지 정부 방침에 따라 영세 사업체는 합병을 하든지 폐업을 하든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업체와 합병을 해야될지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할지 한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에 맡가고 놓으려고 하지만 번뇌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쉽게 돌려놓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큰스님 가르침 바라겠습니다.

답 우리가 양면에 다 전화선을 연결해놓았기 때문에 전화로 목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주인공과 자기와 연관이 돼 있다구요. 여러분이 다요. 누구나가 다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전국 아니 세계적으로 다 전화 통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통신처거든요. 통신처만 되는 게 아니지만 말이 나왔으니까 그것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다면 모두 그 주인공에다 통신을 해서 다 당신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그 결단이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데서 맘이 다 이렇게 음파가 통한다는 말입니다. 음파가 통하면 음파가 통하는 대로 부처님들이나 보살들이나 모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응해주십니다.

동업을 한다거나 이런다면 별로 좋지 않을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거기다가 관해보면 이게 좋지 않다 좋다 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세요. 또 그거를 그렇게만 나누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 나쁜 점을 행해서 내가 장사를 못하겠다 하더라도 그쪽을 좋게 되게끔 만들어가지고 같이 하더라도 해라 이 소립니다.

음성공양 올리는 뜻

문 저는 제주지원 심용회 이철규입니다. 저는 제주지원 거사림 합창단을 잠깐 소개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 불교계에 최초로 거사림 합창단이 지난 1월 26일날 법형제를 중심으로 창단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날 제주문예회관에서 거행된 불기 2543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불교합창제에 보살합창단과 혼성으로 참가하여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법가를 배우고 음성공양을 하는 뜻은 어디 있으며 마음 가짐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답 우리가 음성공양을 보통은 찬불가라고 하는데요, 이건 선법가입니다. 찬불가하고 선법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떤 노래는 일체 음파가 법망에 통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 선법가는 통합니다. 이 선법가를 노래라고 하지만 그것을 자꾸 부르면 그것도 아주 영원하는 그런 관이 되죠, 지극한. 그러기 때문에 물론 생각하기에 달린 거지만 생각을 그렇게 크게 넓혀라 이거죠. 넓히면 넓히는 대로 나한테 이득이 오고 상대방에 이득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이 선법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합이 될 수 있고요. 이 선법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딴 데서 그렇게 선법가를 잘 지어서 그렇게 법문으로 들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하나 이 선법가를 부르실 때 보면 너무나 기쁘고 그냥 그 운기가 김으로 올라와서 그냥 불이 하늘에 두루 붙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넓히는 게 지혜를 넓히는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하나 버리지 않고 한다는 거, 또 모두 공심으로써 함이 없이 사는 거, 이런 뜻이 바로 놓고 가는 겁니다. 함이 없이 하라. 내가 한단 말없이 내가 산단 말없이 내가 죽는다 산다는 생각 없이 그냥 놓고 간다면 그것이 바로 벗어나는 길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때에 허무한 생각도 좀 들고 무상한 생각도 들고 좀 고난이 심하면 살기 싫은 때도 있고, 그냥 조용한 데로 가서 좀 있고 싶은 생각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지죠, 뭐.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그걸 응용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너 아냐.' 하구선 딱 책정을 해 놓으면 그게 그대로 화해집니다. 화해지고 넓어지고 그대로 뭇어지고 그대로 편안해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선법가도 요만한 애들한테도 잘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지금 살면서 애탄기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가 뭔지 채 모르다가 병이 들어서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이제 조금 알았다고 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이 많죠, 뭐. 그런데 각 지원을 가만히 보면요, 각 지원에 여러분이 공부들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주지원에서도 지금 나오셨는데 그만큼 하고 가신다면 그 공부 잘하시는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삼세가 공했으니
나도 공했으며
의식도 다 공했고
죄·업보·인과·유전성
아무것도 없어요

짜면 물타고 싱거우면 간장 타듯 살아가는 것도 다 그렇게 하세요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말입니다. 이 지구라는 인간 만드는 공장에서 이거는 죄가 있어서 미생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처음부터 미생물로 나와서 성장을 해서 인간까지 와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됩니다. 도리를 모르니까. 업보가 있어서 고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인간이 될 때까지 그렇게 치열하고 그렇게 어렵다는 뜻이죠. 인간이 불쑥 하나가 태어났다고 해서 다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얼마만큼 해서 인간이 됐느냐. 처음 즉 말하자면은 축생으로부터 나왔느냐. 또 저런 나무들에서 나왔느냐. 아니면 물에서 나왔느냐. 흙에서 나왔느냐. 이 문제가 자기 살아나가는 대로 용도대로 그게 주어지는 거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산 거에 대해서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니깐요.

그래서 못나게 나온 것도 내가 못나게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일부러 자기가 만들어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이 모르고서 그냥 못났으면 못난 대로 나오고 까치 둥우리에 들어가면 까치로 나오고 그냥 이걸로 들어가면 이걸로 나오고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사람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진짜 사람은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느냐?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종교라고 다녀야 되느냐. 아니다. 우리는 진리를 참구해야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도리를 알아야만 우주 법계의 모든 그, 즉 말하자면 법망을 다 자유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 법망에서 걸림이 없다 이 소립니다.

어떤 사람이 자다가 꿈을 꾸었더래요. 너무 어렵게 찌들리며 살다 어느날은 꿈을 꾸었는데 조상들이 다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스님이 그러시기를 조상과 내가 둘이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뭘 그렇게 성가시게 하고 괴롭게들 하느냐고, 이러니까 그 조상들의 영령들이 나왔다가 싹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없어져서 어디로 가나 보니까 연기처럼 해서 자기한테로 다 그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뛰어온 거예요. '이게 연기처럼 해가지고 저한테로 다 들어왔으니 이걸 어떡합니까?' 하구요. 그래서 '허, 네 영에다가 영이 연기처럼 해서 들어갔으면 그게 영이 몇 개나 되겠느냐?' 하니까 '영은 영이죠, 그냥' '그러면 됐지 않느냐? 그랬으면 벌써 너의 몸으로 인해서 재생이 돼서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입산하러 오면 부처님께서는 그것부터 물어보셨더랍니다. "너는 왜 한 짐 짊어지고 왔느냐?" 하면 "전 하나도 가져오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이러거든요. "너의 식구를 다 짊어지고 오지 않았느냐. 다 벗어놓고 오너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 해결을 했다 하고 몇 달만에 오니까 이번에는 "아니, 식구는 떼어놓았으나 재산 문서는 왜 짊어지고 왔느냐?" 하니까 그냥 얼마나 그 마음이 진정코 공부하려고 들었던지 가서는 그거를 그냥 죄 배에다 싣곤 바다로 나갔더래요. 바다에다 다 집어넣으려고요. 그러니 집에서는 식구 다 죽이고 너까지 가려고 그러느냐고 야단들을 하니까, 이렇게 해야만 식구가 다 산다고 그러곤 나가서 배를 띄우려고 하니까 공중에서 소리가 나더랍니다. "함이 없이 하라니까, 너는 그 물건에 뭐가 붙었다고 그걸 갖다 버리느냐?" 하고요. 그래서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알고 다시 가니까 그때서야 부처님께서 받아주시더랍니다.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지금 여기도 정말이지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의 조상님들은 다 같이 와요. 내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다고 그럴까봐 말을 안해서 그렇지 공부 좀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의 조상님들은 그냥 고마워서 따라오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천 수만이 다 건져지는 도립니까, 그게. 한 사람의 속에 몇 생이나 들어 있겠습니까. 수천 생이 됩니다, 이 몸 속에도. 그게 인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이 지구라는 인간 만드는 공장에서 벗어나야 우리가 자유껏 살 수 있다. 우리의 근본에 있는 에너지로 그냥 자유스럽게, 때로는 이 모습으로도 되고 때로는 저 모습으로도 되고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이 우주 전체를 다녀도 손색이 없죠.

그러나 그뿐이 아니에요. 이 삼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현실이거든요. 과거 미래가 현실이란 말입니다. 내일이다 어저께다 하는 교차로가 있을 뿐이니 그 교차로라는 것만 알면 그냥 하나죠. 하난데 그 하나도 모두가 공했으니까 너까지도 놓아라. 너마저도, 너가 있단 말도 하지 마라, 너도 공했다. 삼세가 공했으면 너도 공했고 너가 공했으면 네 몸뚱이 속에 있는 의식들도 다 공했다. 다 공했으면 그냥 함이 없이 하고 있는 거니까 너는 죄도 없고 업보도 없고 인과도 없고 유전성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너가 없는데 뭐가 있겠느냐.

이 도리를 여러분께서 참, 진정코 알아서 공부해 나가신다면 그 유전성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악화된 아픔, 병세 이런 것도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한다고 해서 병이 없거나 죽지 않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고통을 덜 받고 살고 또 진짜로만 믿고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은 자연적으로 즐겁게 웃으며 살게 되고 생활도 지치지 않게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업보성 인과성 유전성 그 모두가 다 자꾸자꾸 무너지니까 구름이 다 걷히니까 햇볕이 짱짱 비쳐서 내 젖은 모습을 다 말려준다, 이런 뜻과 같죠.

그래서 이런 공부는 배운 글자로써 학식으로만 해서는 이 공부를 못하죠. 이거는 학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지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수화풍을 베개 삼아서 나온 거니까요. 우리는 지수화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요. 피만 조금 안 돌아도 야단법석이죠. 물 한 컵만 먹을 것이 없어도 야단법석이죠. 또 불만 없어도 야단이죠. 공기가 없어보세요. 또. 그냥 죽는다 산다 난리가 나고 그냥 죽죠, 뭐. 그러니깐 우리 모두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수화풍 그 자체가 우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더 사실 수가 있었는데 주위에서 아난이 채 못 들어서, 얼른 쉽게 말해서 더 사시다가 가시라고 그런 말을 못 했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죽는 것도 자기가 죽고 싶고 무슨 살고 싶고 이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이 원하면 원하는 것까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크게 꼭 가야만 된다 할 때는 가야 되겠죠. 이거는 양면의 살림살이뿐 아니라 전체를 두루하는 살림살이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전체에 두루 책임을 지고 있다면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야죠. 그런데 그 마음으로 뛰는 건요. 하나도 괴로움이 없고 하나도 걱정이 없고 하나도 하는 게 없고, 하는 게 없으면서도 진실로써 그냥 되는 거죠.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참, 여러분이 이 공부를 하고 이 도리를 아신다면 진짜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이 짐승이 돼서 짐승의 대접을 받고 사는 걸 보세요. 그걸 아신다면 참 그런 짐승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게 되죠. 사람이 됐다가 짐승이 되니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리고 또 짐승이 사람으로 된 사람도 많고요. 사람이 되는 것도 그게 축생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도리를 좀 알고 가야 그나마 좀 낫죠.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이렇게 세 번을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만이 부처님과 한자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여러분은 다 그런 분들끼리 만나서 마음공부들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다 보면 이 다음에는 '죽어도 살아도 이거는 뭐 떠나고 헤어지고 이런 것도 없구나. 은하계가 그렇게 많고 우주가 그렇게 많아도 헤어지고 만나고 이런 게 없이 만나고 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찰나찰나 화해가면서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그렇게 자유스럽게 사는 거구나!' 하고 그럴 때는 내 생각도 많이 나시겠죠, 허허허. 여러분께서 모두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참 너무나 감사해요.

※위 법문은 1999년 10월 3일 법형제회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암, 중환자의 희소식

중의학 박사가 연구 개발한 정공단으로 암 간경화 고혈압 당뇨등 각종 성인병 및 어떤 병이든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음식처방: 체질과 증상따른 정공단과 보양제 처방
※신진대사 촉진처방: 호흡, 음파, 기, 운동등 처방
※정신처방: 정신과 육체가 하나되게 한다.
임원지는 수술이기전 10일만 치료에 보세요.
※비용: 치료비는 없으며 월 생활비 50만원

강좌

남 녀 비구 비구니 **철학원생 모집**
첫번째 인연은 전생에 있고
두번째 인연은 사주에 있다.
세번째 인연은 이름에 있고
네번째 인연은 궁합에 있다.
오복은 이것을 잘 분석하는
진정한 도인을 만남에 있다.
귀 달 마 사 포 교 원
사주 작명 관상 풍수부적
02)999-4804/02)999-5551 달마
02)921-4804/02)928-5551 스님
051)418-4804

견성-체험지도 책·테프 판매!!
1,생물=생명(?+기록물)+물질(육체)
(1),?; 자유자율성, 不生不滅, 능동, 無形,무게부피無, 무념·무주처
(2),기록물(업); 경향(습관)성, 有生不滅, 有形, 무게부피無, 유념·유주처
(3),물질(육체); 법칙성, 부자유, 수동타율, 生滅, 有形, 무게부피有
2,견성; 볼래야 볼 수 없는 ?을 ?이 본다.
3,깨달음; ??가 나다라는 확신이 서는 경지
4,성불; 하루종일 자신의 외치로 맑고 청정한 본인의 ?의 상태를 유지하는 대원경지
박민수 참선 교육원 (062)251-2733
http://min soo zen.pe.kr 017)609-9068

사주 명리학 강의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
인천 032-528-4117
H.P 011-9020-9303

사주 명리학
배우실 분
◐개강 : 수시접수 개강
◐강의: 기초부터 간명 실습까지 책임완성
◐수강료 : 월 15만원 (수료후 재청강은 무료)
◐장소: 마포구 망원동 474-15
02)323-4050/4480
선주포교원

풍수지리 특강
풍수지리 특강안내
⊙음택, 양택 생활풍수 강의
⊙매주: 화요일 10:30부터 시작
⊙매월 : 1회 현장답사 실습
강사약력
⊙한국일보 문화센타 풍수지리 강사
⊙한국 풍수지리 연구회 회장 ⊙남경 풍수지리 연구회 회장 ⊙「명당과 생활풍수」 지음
남경풍수지리 연구회
서울 종로구숭인동 70-15(2층)
남경 성필국 선생 직접 강의 (02)763-6949

역학 수강생 모집
▶과목: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과정: 기초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3시~5시
저녁 7시~9시 (월~금, 주5일)
▶강사: 엄운문 원장(명학비해 外 20여권 저술)
김희선 선생, 전종남 선생
▶기타: 사주감정 의뢰하실 분(3만원 입금후 전화요)
제일은행(105-20-258212) 전 종 남
▶문의: 02)752-9013~4, 지하철 서울역③번출구
20년전통 **청운역리학원**

구인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정 토 사
0338)771-8209,8210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약 천 사
0348)942-1252
011)9083-355

공채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주)
고졸이상
35세~55세
10시~17시 근무
02)766-0057
02)3675-0397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부중에 계신 법사님 모십니다
02)938-7957
02)932-2537

스님 모실 운전기사 구합니다.
◆경력 10년이상 되신(회장·사장님 모신 경력있는)분
◆나이: 40~50세
◆혼자 계신분 환영
◆송파구쪽에 계시는 분
02) 406-3911

기도하면서 사찰에 기거하실 분과 봉사하실 분은 연락 주십시오
설악산 **불탑사**
0396)671-7751,7752

수양원

설악산에서 함께 살아 가며 수행과 기도를
설악산 불탑사에서는 사부대중이 어우러져 부처님의 정법을 공부하고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재가자 선방〉
13개의 방사와 노천비로자나불 석가모니불과 글법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락처 0396-671-7751,7752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310
〈오색약수터에서 양양방면 12Km〉
설악산 불탑사

◆청학사 수양원◆
■수양·기도·공부·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공고

탈종공고
보국불교 염불종 총무원장 귀하
◇승적번호 : 38-160
◇성 명: 이 성 실 ◇법 명: 법 성
본인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9년 6월 4일 탈종하였음을 공고함.
1999. 11. 1.

탈종공고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귀하
◇사찰명: 용두사 ◇주 지 : 법심
◇소재지: 경북 영주시 장수면 호문3리 248번지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9. 11. 4.

탈종공고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귀하
◇사찰명: 대왕사
◇소재지: 경기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산 12-2
◇주 지: 조연화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1999. 11. 5.

기타

건강에의 신비! **준전玉山家(옥)**
고혈압 당뇨, 간경화, 폐암, 관절염, 두통, 정력부족 기타 성인병환자들이 이 옥을 활용하고 효과를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의학적 **자연치유!** 건강상태에 따라 옥제품과 사용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주)대일광업 서울중앙판매소 玉山家 (02)777-0105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변비개선
◆손발냉증·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사찰안내

사찰 안내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근교
◆부지 : 약 1,000평(대지 740평, 임야 250평)
◆법4당: 30평/ 요사: 40평
포교당 안내
◆서울 홍제동(25평)
- 2,500/30만원(시설일체양도)
◆경기안양(60평)
- 3,500/50만원 (시설일체양도)
해동불사 02)389-7880/019)390-6110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대지 : 80평 외 추가사용 30평
◆ 건물 : 법당(단청)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3억 3천만원
불사 종합 안내
◆ 전국에 소재한 사찰 매매 전세 안내
◆ 전국에 소재한 포교원 안내
다보불사 02)3545-056
019)234-5506

사찰 안내
◇위치 : 충남
◇법당 : 30평
◇요사 : 60평
◇부지 : 1,400평
◇가액 : 1억(급매)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양도·운영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위치: 충북 ◇법당: 35평(철포집)
◇부지: 400평 ◇요사: 40평
◇가액 : 2억 3천만원
◇강능고찰터 1천평(4천만원)
◆위치: 서울 ◇법당: 15평
◇부지: 만평 ◇요사: 25평
◇가액 : 15억
02)723-4082 광진불사

토굴 암자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 임법당, 방5칸, 산신각(小), 지하수, 약수,
◆ 가액 : 2천만원
011)588-7880

포교원 안내
◆위치 : 부천시 송내동
◆평수 : 3층 - 24평
◆가격 : 보증금 500만원(월40만원)
◆기타 : 법당 보일러설치, 주방시설, 시설비 약간, 주택단지, 역학적합, 전철역 10분거리
032)654-5859

사찰 (급) 안내
◆ 위치 : 부산
◆ 부지 : 300평
◆ 법당, 산신각, 용왕당
◆ 요사 : 방 9개
◆ 바다가 보이며 민가에서 300m 산속에 위치
◆ 가액 : 2억 6천만원
051)257-1080

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천안시 성정동
◆건물 : 1층
◆요사채 : 21평, 주방 : 10평, 법당 : 21평(2층)
◆특징 : 지장보살 칠불
◆모든시설 완벽함
◆가액 : 전세 6천만원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417)577-1469

사찰 안내
◆위치 : 경기도 영월군 상동읍
◆사찰 부지 2천평
◆산새수려 계곡접
◆가액 : 5천만원
011)588-7880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대지 : 150평
◆가격 : 매가 4천만원
011)582-1736
※수행하실 스님모십니다※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부곡1리 75번지
◇평수 : 1,907평(대지 207평)
◇요사 35평 · 전 1,700평
◆가액 : 9천만원
◇현재 임법당 아산밑에 큰 고래산이 있고,
◇3층계단으로 조성 ◇주차장 완비
◇사찰까지 2차선으로 포장되어 있음.
011)655-3883/011)653-8375

사찰 안내
◆위치 :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법당: 삼존불, 후불탱, 지장보살 입상 지장탱, 칠성탱, 신중탱, 영단, 목조 - 인등 650등
◆방3, 주방 : 총 40평(옥상사용가)
◆가액 : 보증금 1,600만(월65만) 시설비 2,400만
011)416-2782/02)307-2616

사찰 (급)안내
◆ 위 치: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함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7)430-9051

포교원 안내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시내
◆약 27평 (1층)
◆불상, 삼존불 있음
◆포교당 할 수 있는 시설 완비
◆주차장 有
◆가액: 보증금 200만(월 36만) 시설비 일체 800만원
0346)595-1302/011)202-0216

사찰 안내
◆위치 : 창녕 부곡온천 5분거리
◆대지 : 130평
◆법당 : 10평(산신각, 미륵불)
◆요사 : 30평
◆가액 : 6천8백만원
017)310-6482
0559)536-6482

포교원 안내
(명인당 철학관)
◆위치 : 대전역전
◆법당 20평, 철학관 15평
◆가액 : 보증금 천만(월 70만)
◆상호, 시설물, 자제비 천만원
042)252-6799

사찰 안내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사찰 부지 2천평
◆산새수려 계곡접
◆가액 : 5천만원
011)588-7880

포교당 안내
◆위치 : 충남 대전시
◆평수 : 40평
◆방 2개, 주방1,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칠성,산신탱화
◆가격 : 전세2300만원 시설비
◆즉시법회가능
019)211-8533

포교원 안내
◆위치 : 상계동 (전철역서 5분거리)
◆1층 - 22평, 2층 - 약 20평
◆가액 : 1억 5천만원 (상담후 절충가능)
011)753-3822
02)591-7710

사찰 인수하시거나 천탑 천불 조성하는데 같이 투자하여 창건주로 동참하실 분을 찾습니다.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앞 태백산 청정수행도량 **천탑사**
◆6만평 도량내에 사찰부지 1,800평 · 기와단층 · 요사채 50평 · 임시법당 외 방10칸 · 천탑조성하고 있는 중
◆도량경치는 아주 좋음
◆가격은 인수하실 분이 답사한 후 결정
0373)378-4777

사찰(급)안내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평수: 법당 60평, 요사채 50평 대지 140평, 전 60평, 건물 1동
◆가액 : 답사후 결정
◆특징 : 소금강 입구 구라미 온천뒤 온천구역
0391)661-3369
019)248-9636

사찰(포교원) 운영하실 분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인구 밀집지역 ◆ 대 지 : 85평
◆ 건 물 : 법당17평, 주지실, 상담실, 거실, 방3개, 주방, 욕실(건평45평)
◆ 가 격 : 일억 팔천만원 (매매가)
◆ 특 징 : ●건축한지 3년 됐으며 사찰로 등기 되어 있어 어떠한 종교 행사도 할 수 있음. ● 건물 전면에는 주택 단지, 뒷면에는 야산에 산책로 조성되어 있음 (2K) ●전철역에서 택시 기본 요금거리 위치 (지하철4호선) ●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탱화 모셔져 있으며 법당 조성되어 있음. ● 단독주택이나 구조는 사찰용도로 건축하였음(현재 운영중) ●융자(오천만원) 할 수 있음
0551)294-4889

사찰 안내
◆위 치 : 부산
◆부 지 : 200평
◆법 당 : 30평
◆요 사 : 60평
◆백년고찰임
◆가 액 : 7억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 치 : 충북 진천
◆부 지 : 400평
◆법 당 : 20평
◆요 사 : 25평
◆가 액 : 7천 5백만원
◆산새좋음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 치 : 충북
◆부 지 : 5,500평
◆법 당 : 30평(목조)
◆요 사 : 30평
◆가 액 : 4억 5천만원
◆산새좋음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사찰 안내
◆위 치 : 울산광역시
◆부 지 : 천평
◆법 당 : 30평
◆요 사 : 90평
◆산새 좋음
◆가 액 : 7억
018)273-9390

사찰 안내
◆위치 : 서울시내
◆부지: 500평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산속기도도량임
◆가액: 4억 3천만원
018)273-9390

포교원 안내
◆위치 : 서울 중랑경찰서 옆
◆평수: 30평(2층)
◆살림가능
◆가액: 보증금 천만(월 55만원) 권리금 천만원
02)948-8020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방 2, 주방 1, 법당, 옥상 사용가능
◆ 삼존불, 후불탱화, 신장·산신탱화
◆ 시설 완벽
053)942-0700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올 김장 예년보다 늦추세요

생활 기상청은 "오는 15~20일 쯤 강원 산간 지방을 시작으로 예년보다 조금 늦게 김장을 담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일 발표했다. 기상청이 발표한 적기는 ▲강원내륙 및 중-남부 산간 11월20~25일 ▲서울-경기-충북 11월25~30일 ▲충남-전북-경북내륙 11월30~12월10일 ▲전남-경남내륙-동해안 12월10~20일 ▲남해안 12월20~25일이다.

전기료 평균 5.3% 인상

생활 전기요금이 5일부터 평균 5.3% 올랐다. 산업자원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8.0%, 일반용과 교육용 가로등용을 각각 6.0%씩 올리는 등 주택용과 농사용을 제외한 전기요금을 평균 5.3% 인상했다.

실업급여기간 30일씩 늘린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의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지급기간도 현행 60~2백10일에서 90~2백40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자격은 종전 고용보험 적용사업장 12개월 근무자에서 180일 근무자로 완화됐다.

매주 금요일 야간순환열차

여행 매주 금요일 저녁 서울을 출발, 의정부와 장흥을 거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서울 야경 순환열차'가 생긴다. 서울지방철도청은 12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신촌역→서울역→의정부→장흥역→신촌역' 코스를 도는 순환열차를 운행한다. 6시25분 출발해 11시에 도착하며, 장흥역에서 2시간 동안 정차한다. 요금은 4,500원. 예매 가능 (02)392-7788

경찰청, '자동차112서비스' 실시

교통 서울 경찰청은 2일부터 ▲타이어 펑크 ▲배터리 방전 ▲연료소진 등 차량운행 도중 발생한 경미한 고장시 112로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순찰차를 보내 응급서비스를 해주는 '112 자동차운행 민원해소' 서비스를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서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콜레스테롤 낮추는 신물질 개발

건강 커피 콜라 등 음료 형태로 마셔 콜레스테롤의 체내 흡수를 줄여주는 신물질이 개발됐다. 수원대 정명원 교수팀과 생명공학벤쳐기업인 유진사이언스는 식물에서 추출한 자연계 콜레스테롤 저하물질인 '플랜트 스테롤'을 물에 녹여 음료로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신물질 '유콜'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새천년은 종교화해의 세기"

바티칸서 세계종교지도자 회의 열려

가톨릭-개신교 478년만에 '역사적 화해'

오랜동안 갈등과 반목을 거듭해 온 지구촌 종교계의 종교간·종파간 화해작업이 활발하다. 이들의 화해움직임은 20세기를 마감하고 새 천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종교 지도자회의 지난 10월25~28일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에서는 로마교황청 주최로 '종교들간의 협력'을 주제로한 세계 종교지도자 회의가 열렸다. 대회에 참석한 불교·가톨릭·개신교·이슬람교·힌두교 등 주요 종파 성직자 2백여명은 세계화·빈부격차 문제 등에 종교가 마음을 열고 앞장서자는데 의견을 모으는 등 종교간 화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촉진평의회 의장 에드워드 카시디 추기경(오른쪽)과 루터교 세계연맹의 크리스티안 크라우저 감독이 구원론에 대한 신·구교간 5백년 논쟁을 종식하는 공동선언문 서명에 앞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티베트 불교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참여했으며, 국내에서는 불교계의 진월스님(세계종교연합 한국지부장)과 유교의 최창규 성균관장, 유만근 교수(성균관대 유학과) 등 3명이 참석했다.

합의된 의견은 ▲무엇보다 먼저 진리와 정의 및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도록 교육이 수행돼야 하며(교육) ▲다양한 종교전통들의 신자들이 상호 이해를 조장하는데 협력하기를 희망하고(대화) ▲과학과 기술적 힘의 측면과 윤리와 종교 사이에서의 균형이 필요하다.(더 좋은 세상을 위한 일)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가족의 생존과 이것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체임을 확실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가족과 공동체) ▲기도와 명상을 통해 우리들은 신성한 존재들 및 서로에게 자기를 개방할 수 있다(정신성)는 내용이다.

달라이라마는 기자회견에서 "과거 피의 역사를 청산하고 21세기를 대화의 세기로 만들자"고 말했다.

가톨릭-개신교 화해 그런가하면 가톨릭과 루터파 개신교는 10월 31일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선언 이후 4백78년만에 걸친 교리해석상의 분쟁을 종식하고 공식적으로 화해를 선언했다.

가톨릭을 대표한 교황청의 '그리스도인 일치촉친평의회' 의장 에드워드 카시디 추기경과 개신교의 일파인 루터교 세계연맹 크리스티안 크라우저 감독은 독일 바이에른주 아우크스부르크 교회에서 만난 면죄와 구원에 대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공동선언문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신의 사랑'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내용을 채택했다. 인간구원과 관련해 가톨릭은 "신앙과 함께 선행을 실천해야 구원된다"는 입장이었고, 개신교는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신앙뿐"이라는 입장을 취해 서로 대립해왔었다.

기독교-이슬람교 화해 지난 3월에는 동방정교와 가톨릭이 분리 1천년 만에 역사적인 화해를 이뤘으며, 이슬람교 시아파 지도자이자 고위 성직자인 이란의 하타미 대통령이 바티칸을 방문해 이슬람과 기독교문명의 화해를 다짐하기도 했다. 또 가톨릭은 9월에 지난 1천년동안 벌어졌던 이슬람교도에 대한 기독교도들의 유혈행위, 가톨릭과 개신교의 분리와 반목 등 '역사적 과오'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청소년 놀이문화가 없다"

갈곳은 유흥업소뿐…인천 화재참사 '人災'

마음껏 놀고 숨쉴 수 있는 공간만 있었더라도…'

지난달 30일 일어난 인천 호프집 화재 참사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과 청소년들을 싸구려 술집으로 내모는 일그러진 청소년 문화가 뒤섞여 빚어진 참극이다. 젊음을 발산할 마땅한 놀이공간이 없는 청소년들이 안전사각지대인 '청소년 해방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비롯된 비극인 셈이다. 특히 이번 참사는 예견된 인재(人災)였다는 점에서 건전한 청소년문화에 대한 아쉬움은 더욱 크기만 하다.

학교문을 나서면 유흥업소밖에 갈곳이 없는 척박한 청소년문화, 화재당시 불이 난 호프집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10대 청소년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노래방·게임방·콜라텍·호프집·소주방 등이 몰려 있어 평소에도 학생들로 북적거렸다는 점은 우리의 청소년문화 현주소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제도 이전에 청소년들의 욕구와 고민을 이해하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어른들의 자세와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변하고 이에 따라 달라진 청소년들의 가치관부터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여가·공간·놀이에 대한 욕구도 기성세대의 잣대로만 보아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이 땅에 어른으로 사는 것이 부끄럽다"는 어느 시민의 자조를 깊이 되새겨야 할 때다. 한명우 기자

생필품 챙기고 해외여행 자제

Y2K 국민대처요령 정통부 발표

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인 'Y2K'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Y2K 국민대처요령' 10가지를 발표했다.

▲연말연시에 필요한 현금 미리 인출=12월31일부터 2000년 1월3일까지는 금융 휴무일. 꼭 필요한 현금을 미리 찾아두는 것이 편리하다. ▲병원 방문시 Y2K 해결여부 확인=병원에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Y2K문제해결 표시를 확인한다. 특히 고혈압, 천식이나 심장질환자가 있는 집에서는 반드시 3~4일분의 약을 미리 챙긴다. ▲해외여행시 방문국의 Y2K문제 해결 확인=해외여행을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해당국가의 Y2K 대처상황을 미리 점검. ▲유아, 노약자를 위한 세심한 준비=상비약, 담요, 휴대용 취사도구를 갖춘다. ▲PC 점검=중요한 자료는 디스켓에 따로 저장하고 부팅용 디스켓을 별도로 준비한다.

시론

유착보다 견제를



황진수 〈한성대 교수〉

최근의 정치권과 언론간의 갈등, 유착관계 또 그 이후의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그저 착잡하기만 하다. 정치가 왜 이 모양이 되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치를 '가능성의 예술' '보다나은 사회를 만드는 기술' '국민을 위한 우선순위결정과정' '희소자원에 대한 권위적 배분' 등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고전적 정치개념을 오늘날 이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에게 대입시켜볼 때 과연 올바른 정치인이 얼마나 있을까 물어보고 싶다. 국민에게 행복과 사랑과 가능성을 심어주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에게 고통과 불행과 좌절감을 가져다주는 어쩌면 공해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 아닌가 싶다.

국민은 정치와 정치인을 불신한다. 정치인이라 하면 '강이 없는데도 다리를 놓아주겠다'라는 거짓말쟁이의 이미지, 부패와 연결고리가 되어있는 썩은 정상배의 상징, 위에서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행동하는 '깃털'의 행태가 우선 떠오르는 것은 무엇때문일까?

이번 정치권의 소용돌이는 정형근 의원이 정부의 '언론대책' 문건을 공개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다.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가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에게 언론대책문건을 곽스로 보냈고, 그 문서를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가 흡쳐서 정형근 의원에게 주었고, 그 대가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돈을 1천만원을 건넸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에 나타난 흐름이고 그 '지하벙커'에는 엄청난 음모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여부와 정형근 이종찬씨의 검찰 소환, 야당의 부산집회, 이종찬씨의 국정원장 재직 시 중요기밀문서 유출의 문제와 뒤 섞이면서 정치는 본연의 의무인 '국리민복'이 아닌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 나라의 현실이 이렇게 한가하게 말장난이나 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정치를 해도 괜찮은가. 여야의 정치관계를 떠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그저 걱정과 불안감이 먼저 떠오르는 것을 정치인들은 간파하고 있는가? 다른 나라에서는 다가오는 2000년대를 준비하느라 바쁜데 이렇게 소모적인 것으로 날밤을 새워야만 하는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항목 중의 첫째는 정치라는 것은 사상이나 이념의 바탕 위에서 기술 또는 계획된 정책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사상이나 철학은 없고 기술, 기법만 난무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자정(自淨)노력을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21세기를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둘째는 언론의 반성적 재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언론기관과 기자들은 뼈를 깎는 자성과 개인적 차원의 도덕적 재무장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 동안 중앙일보 회장의 탈세사건을 언론탄압이다 아니다라는 공방이 있었지만 언론기관의 그야말로 피를 튀기는 듯한 출혈판매경쟁, 선거 때마다 튀어나오는 특정후보 편들기, 사주(社主)나 편집자의 편향된 시각으로 빚어지는 정보왜곡현상등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번의 사건도 기자가 정치인의 정보원(情報源)과 정보원(情報員)의 역할을 하여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의 총수에게 '상품화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 발단이 된 것이다. '언론고시'라 하여 100 : 1 이상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엘리트 기자가 하는 일의 수준이 겨우 이정도인가?

> "정치와 언론 각각 正道 걸어야 보다 나은 사회"

이 모든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나라는 정치가 없다. 있다면 '지시'와 '지침'만이 있다는 소문이다. 이제는 평소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말해온 김대중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모든 것을 진솔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국민이 혹시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설득해야 한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국민이 입는 피해가 대만의 지진피해나 베트남, 인도의 태풍, 홍수피해보다 더 클 수 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를 완성하라

불자들을 위한 특별 강연회

나는 누구인가? 전생에 누구이며 무엇을 했을까?

나는 오래 전 아버님 골수 안에 벌레(정충) 한마리 였습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수천 수 억마리중 그 가운데 한 마리가 나였습니다.

1차로 어느날 갑자기 음양이 합일되어 극열한 진동속에 나는 어머님의 자궁속으로 이동되어 난자를 만나 탯줄로 영양을 공급받으며 사람의 아들로 10개월동안 형성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2차로 어머니의 젖을 (액체) 먹고 발육되었습니다.

3차로 다시 고체 음식을 먹는 체질로 성장되었습니다.

4차로 다시 기식을 먹고 (하늘의 음식) 살 수 있는 체질로 개선해야 나는 완성이 됩니다. (즉, 부처가 된다. 또는 성불했다)

오늘날 불자들은 수 천년동안 자신을 완성에 보려고 여러 방법으로 수행을 해 왔지만 결국은 늙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제는 윤회설의 고정 관념에서 초월합시다.
21세기는 나를 완성하는 새로운 생명 문화의 역사가 시작되며 생명문화가 세계를 지도하게 됩니다.
특별 강연회는 불자들을 모든 질병에서 해방시키는 법과 자신을 완성하는 수행법을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나의 몸은 보이는 마음

너의 마음을 보려거든
너의 모습을 보라
너의 몸이 곧
너의 마음이니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닦으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보이는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닦으라.
그리하면 보이지 않는 너의 마음은
부처가 되리라

특/강/요/지

- 나를 완성하는 길
- 만병이 오는 원인과 예방법
- 기의 실체와 음양순행의 원리
- 병증상은 수십 수 백가지로 나타나도 원인은 두가지 뿐이다.

대체의학 음양침술의 실체 (비법)

대체의학 음양침술은 무엇인가?

음양침술은 우리 인체의 365혈을 대표로 7혈만 응용합니다.
예를 들면 두통, 편두통, 견비통, 요통, 팔, 다리, 손목, 발목, 좌골 신경통, 관절염, 소화불량, 가슴이 답답한 증세, 급체 등으로 고통이 있을 때, 1~2혈만 침을 놓으면 1~3분 이내에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나는 것이 음양침술의 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양침술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다음과 같은 3대 증상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남자들의 소화불량으로 가스가 차고 피로가 많이 오는 증상 등등
둘째: 여자들의 소화불량, 히스테리, 불면증, 피로권태, 얼굴기미 등등
셋째: 침이나 뜸이나 약으로도 치료가 안되는 증상 등을 알게 합니다.
음양침술은 간단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5시간만 강습을 받으면 가족은 물론이요. 이웃을 위하여도 봉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음양침술은 우리나라 침술역사상 처음 공개하는 대체의학이기 때문에 불자님들중에 몸의 어느 부위가 아프신 분이나 오랫동안 침을 시술하는 분이나 의료진이나 모두 오셔서 나를 완성하는 이론강연과 더불어 직접 체험을 받아보시고 확실하고 신기한 감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자님들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은 2회 특별 강연회를 갖습니다.
1회 : 오후 1시~4시 2회 : 오후 6시~9시
참가비 : 5,000원

음양사 관악구 신림4동 500-1
■문의처: 02)861-5851~2 FAX 861-5852

위치안내 2호선 전철 신대방역에 하차하시고 1번 출구로 나오셔서 4거리를 건너면 신림 4동 파출소가 있습니다. 파출소 담을 끼고 골목안 50m 정도 들어오셔서 (음양사) 간판이 있는 건물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선으로 마음 안정 찾고 108배로 체력 다지고…

사찰·단체 '수능생 법회' 잇달아

선배 경험담 소개·단주선물등 다채

학부모 만배기도·상담·특강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7일이면 고3 수험생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큰 시험대에 서게 된다. 따라서 요즘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는 부모와 수험생 모두가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기 마련이다.

이러한 수험생과 부모를 위한 각종 법회와 프로그램이 사찰과 불교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긴장된 마음을 다독여주고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우리는선우는 6일 오후 6시 고3 수험생 격려법회를 갖고, "불안감을 떨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으며, 능인선원도 7일 오전 10시 30분 대법당에서 수험생을 위한 특별법회를 열었다. 이날 법회에는 수험생과 부모가 함께 참석해 대학에 합격한 선배의 경험담을 듣고, 연비의식으로 마음을 다지는 한편 단주와 합격엿 선물 증정식도 가졌다.

청주청소년열린상담실에서는 수능시험을 앞두고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과 진로문제에 대한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상담실의 각종 부대시설을 쉼터로 활용하고 있다(016)401-6254.

또 도선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오전 12시 30분에 학생회법회에서 참선을 통해 수험생들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02)993-3161,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고3법회를 통해 수험생들을 지도하고 있다(051)404-7077. 지도법사 혜범스님은 "그등안 참선지도와 108배 법회 등을 통해 고3생의 마음안정과 집중력향상을 도모했으며, 오는 13일에는 선후배 만남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실시되고 있다. 조계사는 9일과 10일 오후 3시 문화교육관에서 '학부모의 바른 마음가짐'을 주제로 수험생을 둔 학부모를 위한 강연회를 연다(02)720-1390.

부산 보현선원에서도 6일부터 ~16일까지 수험생 부모를 위한 만배기도특별정진법회를 봉행하고 (051)853-5486, 대구 보현사에서는 11~12일 1박2일간 강화도 보문사로 수능시험 기도법회를 떠날 예정이다.(053)254-6966

이밖에 서울 강남 봉은사는 수능시험 직후인 19일 대웅전에서 '학교와 학과선택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며 (02)511-6070, 부산 양정청소년회관에서 '새천년의 시작을 앞둔 고3생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8일부터 성바로알기, 대인관계향상, 만화그리기 스포츠댄스 등 교양문화특강을 12월 중순까지 실시한다 (051)868-0950.

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에서도 27일 오후 3시 월미도에서 청소년 현악단 공연, 피아노 독주, 청소년 건전노래방 등의 프로그램을 전개하며(032)577-0266, 통도사부산포교원에서도 수험생을 위한 불교성지순례기행과, 교수초청 특별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다(051).816-2241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고3 수험생과 부모를 위한 법회는 정신적 안정과 불교적 체험을 동시에 갖게 해준다.

명사들의 건강비결 ⑲



김 용 정

〈과학사상 편집인〉

"새로운 학문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이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 힘인 것 같습니다."

지난 96년 동국대(철학과)를 정년 퇴임한 뒤에도 〈과학사상〉 편집인을 맡아 왕성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용정(70) 동국대 명예교수(범양그룹 고문)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비결을 이렇게 말한다.

59년 동국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61년도에 다시 동대학 물리학과를 졸업한 김 교수는 동국대대학원에서 철학석사와 과학사 및 과학철학 박사를 취득하면서 본격적인 학문활동을 시작했다. 동국대 재임중에 한국철학회 회장, 한국주역학회 회장을 맡아 한국 동·서양 철학계를 이끌면서 과학철학의 권위자가 되었다. 79년 번역상을 수상한 〈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은 한국 신과학운동의 기본 텍스트가 될 정도로 주목을 받았다.

학문하는 즐거움이 건강 노하우

아침마다 가볍게 조깅…무욕생활

일흔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논문 기고와 강의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지만 여전히 부지런함을 잃지 않는 김교수의 건강비결은 끊임없이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고 자신만의 사상체계로 녹여내는 '학문하는 즐거움'에 있다. 한 때는 남보다 앞서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초조함과 피곤함이 몰려올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지칠줄 모르는 에너지가 되고 있다고 한다.

40여년간의 연구활동 기간동안 〈과학과 불교〉를 비롯한 수십권의 저·역서, 〈양자역학 이론과 불교의 중도논리〉 등 수십편의 논문들이 불교를 비롯한 동양사상과 서양철학, 과학사상을 비교연구하는 길잡이가 되도록 한 것도 끊임없는 '진리에 대한 의문'이 화두가 되어 정진을 늦추지 않게 한 것이다.

특히 4살 때부터 서당에서 한학을 익히면서 몸에 밴 꼿꼿한 선비의 기개는 '진인사 대천명(盡人事 待天命)'하는 진지한 삶의 태도를, 불교적인 중도관(中道觀)은 탐·진·치에 초연한 무욕의 삶을 살게 했다.

지금도 학부생 시절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하면서 하루 2~3시간 자던 습관이 이어져 평균 수면시간이 4~5시간에 불과하지만 전혀 피로하지 않은 것은 숙면 때문이다. 아침마다 심장에 부담이 가지 않게 하는 가벼운 조깅도 꾸준한 건강유지의 노하우임은 물론이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어린이 불자들은 사찰내에서 실시된 우리고유의 전통놀이를 통해 바르고 고운 심성과 신심을 키웠다.

탈춤추고 인형 놀이로 불심키워

봉은사 전래놀이 마당

전국 40사찰

어린이 1천명 참가

어린이들에게 우리 전통놀이의 우수성을 깨닫게 하고, 사찰 공간에서의 놀이를 통해 불교에 한층 친근하게 다가서게 하기위한 행사가 펼쳐졌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서울 경기지구(회장 원혜)의 주최로 10월 31일 삼성등 봉은사에서 열린 '선재 전래놀이 한마당'이 바로 그것.

이날 한마당은 봉산탈춤, 관씨름, 윷놀이, 보시놀이, 장님길 안내 등 모둠놀이로 시작해, 얼굴꾸미기, 벽화그리기 선물따기 비석치기, 무지개광이, 줄씨름, 투호, 망차기 등 전체 참가자가 직접 체험하는 다양한 개별놀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어린이 불자들은 개인과 단체로 전통놀이를 접하며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심을 다졌다. 서울지역 25개 사찰, 경기지역 13개 사찰, 충청지역 2개 사찰 등 총 40개 사찰의 1천여 어린이불자들이 참가해 친선도모와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불교어린이포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못다핀 젊은 혼 왕생하소서

청교련 인천지부

청소년 인권봉사단 발족

참사희생자 영가천도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인천지부(지부장 선일스님)는 인현동 화재사건으로 인한 유가족 및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청소년 인권봉사단을 3일 발족, 인천 도원역 실내체육회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28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인권봉사단은 일일 3교대로 화재사건으로 인한 보상문제, 인권문제 등을 법률적문제를 접수하며, 정신과 상담도 실시한다.

특히 인천청교련은 인천지역사암연합회와 함께 희생자를 위한 무료 영가천도재도 접수받아 조만간 합동영가천도재도 봉행할 예정이다. 이와더불어 인천 청교련은 인현동 화재사건의 철저한 원인규명과 관련자 처벌,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와 청소년보호정책의 현실적인방안 강구 등을 강력히 호소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이은자 기자



◇인천 도원역 실내체육관 합동분향소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는 유가족.

청소년 단신

청교련 관악산 환경보호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는 10월 31일 관악산에서 99 청소년자원봉사한마당 '녹색도시인 찾아서' 환경보호활동을 전개했다.

서울시의 후원으로 실시된 이날 행사는 청소년 200여명이 참가해 관악산을 오르며 등산로 주변의 환경오염 종류와 실태를 파악하고,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환경보호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겨울 불교학교 지도자연수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정호스님)는 27일~28일 서울 불광사에서 '새천년 불교는 어린이와 함께'를 주제로 제24회 겨울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연수회를 연다.

무료 자녀교육 특강

목동청소년수련관은 25일, 26일, 30일 오전 11시 주부대상 무료 자녀교육 공개특강을 연다.

25일은 '엄마가 집에서 하는 독서지도법'을 26일에는 '대중매체를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 30일에는 '논술이란'을 주제로 지도한다. (02)2646-6815

어린이포교련 글짓기 대회

한국불교어린이포교연합회(회장 법전스님)는 10월 10일 용산가족공원에서 제1회 어린이 글짓기 큰잔치를 열고, 대상에 강서초등학교 2학년 김다슬양의 '내친구'를 선정했다.

이상교씨 아동문학상 수상



한국불교아동문학회(회장 신현득)는 제16회 한국불교아동문학상 수상자로 동화작가 이상교씨〈사진〉를 선정했다.

이씨는 창작불교동화집 '과자 딱 한봉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74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이씨는 불교동화집 〈달맞이꽃〉 〈진흙부처님〉 등 20여권의 동시집과 동화집을 펴낸 중견작가다. 시상식은 오는 13일 토요일 오후 4시 한국복장문화회관 강당에서 열린다.

자연에서 배우는 새 가치관

실상사, 어린이겨울학교 연다

실상사가 지리산 선돌마을 어린이겨울학교를 오는 2000년 1월 2일~7일(1차), 1월 16일~21일(2차)에 걸쳐 실시한다.

선돌마을 어린이겨울학교는 실상사가 불교적 대안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불교적 철학과 문화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공동체놀이, 감성훈련, 자연체험,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치관의 혼란기를 겪게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바르 세우고 바로선 개인이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정신적인 세계를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0671)636-3031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 (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 (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

마 하 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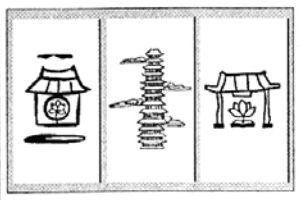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몰.부다피아>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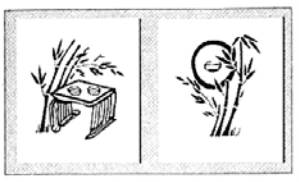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기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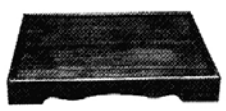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찻 상



규격 52×32×6cm/ 재질- 소나무
가격:₩54,000

다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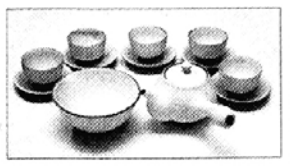
규격 50×39×15cm/ 재질- 소나무
가격:₩126,000

관음분청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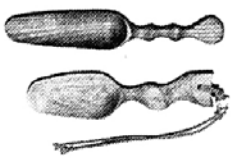
가격:₩495,000

고산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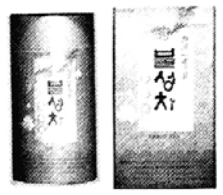
가격:₩120,000

차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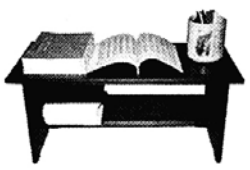
재질 - 참나무 고목 등
가격:₩15,000

불성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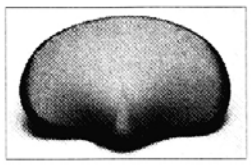
가격:우전₩90,000 / 세작 ₩50,000
중작₩30,000 / 대작₩20,000

경 상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릅원목
가격:₩85,000

참선명상방석



규격 39×43cm
가격:₩27,000

- 실용신안 1998-025009
- 의장등록 140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제주로또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불자반지



재질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면/ 인쇄 나염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장살

가격:₩5,000

옥액자



(대) 17.8×22.5cm ₩15,000
(중) 3.7×16cm ₩10,000
(소) 7×9cm ₩3,000

- 색상 베이지 분홍 녹색
- 재질 옥

반야심경 종차걸이



- 색상 검정 금색

가격:₩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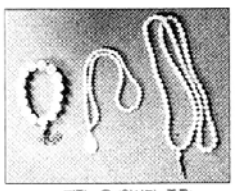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걸 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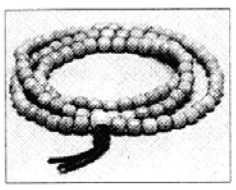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35,000

건강 옥 염주



청옥 · 백옥(小)
₩30,000
청옥 · 백옥(大)
₩40,000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600,000

반야심경 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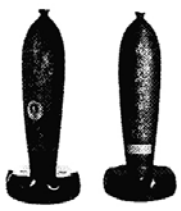
재질 대리석 석분(돌가루)
규격(大)
높이 32cm×지름 25cm
₩220,000
규격(小)
높이 26cm×지름 20cm
₩140,000

금동미륵반가사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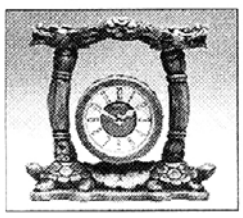
- 도금 · 금동품 ₩350,000
- 개금 ₩580,000

관음보살감로병



가격:₩500,000

용거북시계



가격:₩64,000

한국불교총람



4×6배판/ 1,114쪽/
양장제본
가격:₩120,000

한국불교총람 CD



가격:₩60,000

달마순금판 액자



규격 27×32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9호

가격: ₩120,000
상반신

달마순금판 액자



규격 27×32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9호

가격: ₩120,000
전신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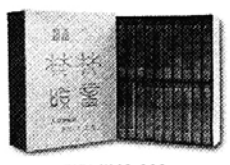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령
- 2부 관욕
- 상영시간 각 68분

가격: 각 ₩25,000

문구암 스님
범음범패 테잎



가격:₩60,000

청화선사 대법회



비디오 테잎
가격: ₩15,000

부처님 일대기



비디오 테잎 (아동용)
가격: ₩10,000

바위속에 숨은부처



비디오 테잎
가격: ₩13,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연좌대불상 진주



규격 25×30cm 가격:₩100,000

석가모니 탄생관련 성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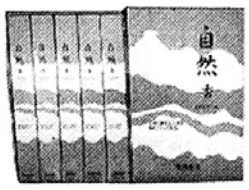
성품내용 성탱(오색입) 셋트 성수, 성주
(인중서 절부) 가격:₩148,000

명품향



가격:₩12,000

자연향101



규격 265×165×5cm
가격: ₩10,000(개당 ₩2,000)

자연향102

규격 155×85×3cm
가격: ₩4,200

박범훈 작곡집 1

가격: ₩9,500

날개CD

가격: ₩9,500

향나무 열쇠고리

- 안전운전
- 재수대통
- 소원성취
- 달마향

※300개 이상 주문시 원하는 문구를 넣어드립니다

가격: 각 ₩3,000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쑥엑기스

가격:₩55,000

쑥 환

₩56,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오보크린

1세트 3개 ₩18,000

전자파제거장치

가격: ₩9,000(2개 한세트)

연꽃양면장수

규격 25×25cm(받침대 포함)
가격:₩600,000

싸이버에밀레종
봉황청동

재질 합금
좌대 30cm
종높이 15cm
종지름 11cm

가격: ₩143,000

싸이버에밀레종
팔각개금

재질 주석
종높이 17cm
종지름 12cm

가격: ₩200,000

싸이버에밀레종
사각동록

재질 합금
좌대 26cm
종높이 15cm
종지름 11cm

가격: ₩143,000

바라밀 건강칫솔

가격: ₩3,900

반야심경 향로

(가정용) 규격 4(높이)×7cm(지름)
가격:₩25,000

향 적 원 …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에밀레종
평면받침

지름 11cm
높이 18cm

가격: ₩63,000

에밀레종
사각받침

지름 15.5cm
높이 25cm

가격: ₩219,000

에밀레종

지름 11.5cm
높이 18.5cm

가격: ₩37,000

학산가족 숫자놀이

아동용CD 3세 ~ 5세
가격:₩20,000

감잎차

가격:₩35,000

법회안내

천안 천불사 초청법회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 12일 오전 10시 30분 천안 천불사 큰스님 초청법회.(0417)557-3223

지산정사 봉불식



도원스님(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10일 오전 10시 대구 지산정사 봉불점안법회. (053)767-8105

발심수행장 강의



혜거스님(금강선원 원장)25일~26일 1박 2일간 다보수련원 초심자를 위한 수행 〈발심수행장〉법회. (02)719-1855

매주 수요법회 열어



성열스님(강남포교원 원장)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가족법회,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수요법회. (02)539-2631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11월10일 (수)

■**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 수요강좌**=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오후 7시 20분 조계사내 원심회 법당에서 수요강좌를 실시한다. 법회운영, 수화, 만들기, 특강 등을 진행한다. (02)738-7860

11월11일 (목)

■**능인선원 합동천도재**=능인선원은 오전 10시 30분 가을 합동천도재를 봉행한다. (02)577-5800

11월13일 (토)



◇신심을 증장시키는 3천배 법회에 참여해보자.

■**금강정사 삼천배 정진법회**=금강정사는 오후 7시~14일 새벽 4시까지 삼천배 정진법회를 봉행한다. (02)893-2700

■**태안사·운주사 순례**=터사랑은 14일까지 곡성 태안사와 쌍봉사, 운주사 천불천탑을 찾아 순례를 떠난다.(02)725-1284

■**제주 관음사·천왕사 성지순례**=용진신행회는 15일까지 한라산 관음사, 아흔아홉골 천왕사, 산방굴사, 조천 고관사 등 제주지역 성지순례를 떠난다. (02)2279-1191

11월14일 (일)

■**맑고향기롭게 대비양로원 봉사**=맑고향기롭게 중앙모임은 파주 대비양로원으로 정기방문 봉사를 떠난다. 오전 9시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집결. (02)741-4696

■**가족사찰순례기도**=무진법장사는 오전 7시 계룡산 갑사로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 사찰순례기도를 떠난다. (02)932-2333

■**정토회 문화공연**=정토회는 일요초청법회의 일환으로 '예술을 통해 만나는 인생'을 주제로 문화공연을 갖는다. 대금 인간문화재 김응서씨와 영남불교문화원 박향란원장이 참석한다. (02)587-8993

■**탑골공원서 무료투약 자원봉사**=서울불교청년회는 불자약사보리회와 함께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탑골공원에서 실직자와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투약 봉사를 전개한다. (02)730-9108

■**천태종 서울·경기지역 청년회 체육대회**=천태종은 오전 9시 30분 관문사 앞 우암초등학교운동장에서 서울경기지역 청년회 체육대회를 연다. (02)3460-5300

11월15일 (월)

■**수험생을 위한 특별순례법회**=능인선원은 15일 강화도 보문사로 수험생을 위한 특별순례법회를 떠난다.(02)577-5800

■**수륙방생 용왕제**=염불종 총무원은 충남부여 백마강변 구두레 나루터에서 국민정신개혁, 윤리도덕성 회복 기원 및 21세기 새천년 준비를 위한 수륙방생 용왕제를 봉행한다. (042)282-6936

11월16일 (화)



◇천년고찰 개심사에서 가을의 향취를 느껴보자.

■**개심사 수덕사 순례**=불교문화연구회에서는 개심사, 수덕사로 순례를 떠난다.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서산 마애삼존불도 찾아간다.(02)2275-4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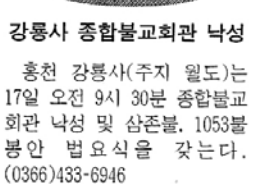
종단소식

조계종

동화사 제주 사찰순례

대구 동화사(주지 성덕)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신심을 다지고 제주지역 불교문화탐방을 위해 제주도로 사찰순례를 떠난다. 이번 사찰순례는 10월22일 조계종에 등록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약천사를 비롯하여 고관사 관음사 천왕사 남국선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053) 423~5501.

법흥사 천일기도 입재



영월 법흥사(주지 도완)는 10월 28일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흥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천일기도 및 10만등불사 1주년기념법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도완스님은 "어려움이 컸던 묘지정비문제를 해결하여 1차로 기도객과 참배객을 위한 공양요사채와 종대요사채를 착공했으며, 연말에 사자산문 특유의 상징인 일주문을 완공시키겠다"고 밝혔다.

태고종

경남종무원 대승보살 수계

경남교구종무원(종무원장 광진)은 26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새천년 생활불교를 위한 대승보살 수계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법회는 사회정화는 물론 새 시대를 맞이하개 위한 준비로 보살계를 수지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이타행을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대승보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염원으로 마련된다.

천태종

강룡사 종합불교회관 낙성

홍천 강룡사(주지 월도)는 17일 오전 9시 30분 종합불교회관 낙성 및 삼존불, 1053불 봉안 법요식을 갖는다. (0366)433-6946

서울 경기 청년회체육대회

서울 경기지역 청년회는 14일 오전 9시 30분 우면동 관문사 앞 우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제5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부산 경남지역과 강원지구 청년회는 7일 각각 연합체육대회를 가졌다.

진각종

18·19일 한마음수련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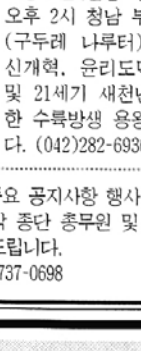
통리원(원장 성초)은 18·19일 양일간 제천 청소년수련관에서 종단 전 스승들의 화합의 한마당인 제 9회 한마음수련회를 갖는다.

서울총금강회 교리법회

총금강회 서울지부는 포교활성화를 위한 포교기획불사 불교교리대법회를 27일 오후 1시30분 진선여중·고내 회당 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혜정대정사(종학연구실장)가 설법 및 교리강좌를 열고 질의 응답도 갖는다.

법륜종

새 총무원장에 법선스님



법선스님(대전 보은사주지·사진)이 5일 열린 제25차 임시중앙종회에서 제5대 총무원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법선스님은 1968년 해인사에서 도원스님을 은사로 출가하고 법륜종 중앙종회 부의장과 종정예경실장을 역임했다.

조동종

울산교구종무원 개원



울산교구종무원(원장 춘담)은 10월 27일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관음사에서 행원 총무원 부원장 등 종단 스님들과 신도 1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원및 현판식(사진)을 가졌다.

염불종

도덕회복 발원 용왕제

총무원(원장 청봉)은 15일 오후 2시 청남 부여 백마강변(구두레 나루터)에서 국민정신개혁, 윤리도덕성회복기원 및 21세기 새천년 준비를 위한 수륙방생 용왕제를 개최한다. (042)282-6936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시판

알림

▲**노인용품무료대여센터**=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을 위한 노인전문용품을 무료대여센터를 운영한다. 배변보조용품, 보행보조용품, 생활보조용품, 치료용품 등을 무료대여. (02)385-1351

▲**흘로노인 겨울나기 사업**=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한달동안 저소득 독거노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실시한다. 난방시설 점검 및 설치, 난방비 지원, 한집 한봉지 쌀나누기, 김장나누기 등을 지원한다. (02)817-8052

강좌

▲**불교학개론**=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불교학개론 강좌를 연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0342)716-4216

▲**다도교실**=불국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도교실을 연다. 생활다례를 비롯하여 차와 건강, 차를 즐기는 방법 등을 지도한다. (051)868-0951

▲**반야심경 사경 및 서예**=한국불교예술문화원에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 반야심경 사경, 달마대사 그림, 서예, 사군자를 지도한다. (02)2242-0331

▲**수화교실**=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노래를 통해 배우는 수화교실을 연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에 지도한다. (0443)652-0900

▲**컴퓨터교실**=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2시~7시 그림, 음악, 통신, 그래픽 등 컴퓨터자격증 대비반을 운영한다. (02)852-0525

▲**기공수련**=한솔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11시 빈손과 맨몸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건강법인 기공수련을 지도한다. 지역주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0442)716-4215

▲**영재학습교실**=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재학습교실을 운영한다. 아동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051)271-0560

모집

▲**무의탁노인·장애인 후원자**=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무의탁노인과 장애인을 도와 줄 후원자를 기다린다.(02)817-8052

▲**차량봉사자원봉사자**=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무의탁노인과 결식청소년들에게 밑반찬과 도시락 등을 배달하는데 동참할 차량봉사자를 모집한다. (02)2282-1100

▲**아동방과후 교실 회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실시, 참가회원을 모집한다.(02)852-0525

▲**후원결연자**=연꽃마을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노인과 후원자를 일대일로 연결하는 후원결연사업 동참자를 모집한다. 매월 경제적 정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02)2203-3677

▲**기와불사**=부귀사는 2000년을 아미타도량 중창불사 발원기도의 해로 정하고, 기와불사 동참자를 모집한다.(0563)332-0910

▲**순간온수기후원자**=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무료경로식당에 설치할 순간온수기 후원자를 모집한다.(02)817-8052

▲**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 회원**=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함께 활동할 회원을 모집한다.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만드는 일에 뜻을 둔이면 누구나 환영한다.(053)753-8883

▲**후원물품기증 및 자원봉사자**=용호복지관은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할 장기, 바둑판, 중고TV 등 후원물품 기증 및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051)628-6737

▲**방문간호사**='개금복지관은 노인들의 가정을 직접 찾아 환자를 돌봐 줄 방문간호사를 모집한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소지자여야 한다.(051)893-5034

답사

▲**테마여행**=신도림복지관은 16일 화요일 오전 9시 안성 된장마을, 칠장사, 미사리찻집 등지로 테마답사여행을 떠난다.(02)2631-9792

▲**회요답사**=화요테마기행은 16일 오전 7시30분 구례 연곡사, 피아골, 삼홍소 등지로 여행을 떠난다. (02)514-5511

▲**단풍여행**=여래지답사회는 14일 오전 7시30분 남원, 실상사, 반선, 뱀사골등지로 단풍기행을 떠난다. (02)3445-0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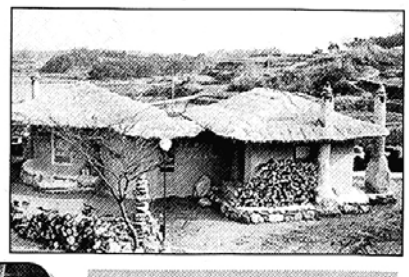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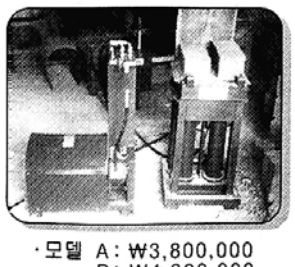
▲**불교방송 광고사업부장** 구기법 기획심의부장 구태서 기술부장 백낙찬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생산량 1일 600~1,000장
■누구나 사용가능
■벽돌기본규격 : 30×14×14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11월 한달 세일~!! 50대 한정 ····▶ ●가격● 삼백만원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섭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최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함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한마음의 보현 캐나다 산삼

산삼은 지구 북위 50도 선상에 의식과 물질이 오염되지 아니하고 밤하늘 은하수가 선명히 보이는 곳에서 그곳의 정기를 받아 자생하므로 우주 만물의 근본인 청정한 한마음의 상징이다. 예부터 산삼을 이름하여 "삼"이라고 불러왔다. 산삼이 자생할 수 있는 곳은 세계에서 캐나다 일부 지역뿐이다.

산삼이란 말 그대로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생한 삼을 산삼이라고 한다.
산삼씨앗을 동물이 섭취하여 배설로 인하여 자란 산삼을 천종이라 하며 산삼 씨앗이 자연 상태로 떨어져 자란 산삼을 지종이라 한다.
이외에 사람이 관리, 재배한 삼은 인종, 장뇌, 장뇌산삼이라고 하는데 이는 산삼이라 할수 없다. (또한 관리 재배된 삼은 절대 30년이상 자라는 삼은 없다)

산삼은 약도 약초도 아니며 산삼의 정확한 이해로 산삼을 캐는 사람, 취급하는 사람, 구입하는 사람, 먹는 사람 모두가 진실로 감사한 마음으로 한마음 한생명이 될 때 모두가 모든 병고의 역경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산삼과 인연을 맺게 되는 분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자신의 근본 자리에서 맺어주는 인연이므로 본사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산삼을 구경하시고 마음에 닿은 산삼을 선정하여 연락주시면 상호 산삼대금을 약정하고 운송료와 최소의 경비를 먼저 보내주시면 산삼을 보내드립니다. 산삼을 받으신 다음 약정한 산삼 대금은 자신의 근본과 둘이 아니신 가까운 곳 부처님전 불전함에 내는 사이없이 내가 함이 없이 내시면 됩니다. (절대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마십시오 지켜보는 자신의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산삼과 인연을 맺고자 하시는 분은 미리미리 연락 주십시오.
상세한 것은 본사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묻도록 하라. 자신의 마음이 나침판이다.
- 부처님 법어 중에서

홈페이지 주소 :
http://webhome.idirect.com/~hayandol/sansam
e-mail : hayandol@idirect.com
Fax : 001-1-416-224-0152
Tel : 001-1-416-224-2613
Address : 4710 Yonge St. Toronto. Ontario
Canada M2N 5M4
정 호 합장

양산에 복지시설 '미륵원' 개원

홀로된 할머니 · 편모가정등 10가족 수용
요사채 · 선방마련 농사지으며 신행생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추워지는 이 때, 그들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겨 따뜻한 화제가 되고 있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중산리소재 미륵원(원장 정억순)이 자식으로부터 외면받은 할머니나 의처증, 주벽 등 남편으로부터 고통받아 갈 곳 없는 편모가족이 함께 사는 복지공간으로 꾸며진다.

집이 있고 가족이 있으면서도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는 이들의 위안처가 될 미륵원은 1천8백평의 대지에 건평 1백여평 규모로 부처님을 모신 본체와 별도 요사채에 13개의 방이 있으며 마음의 안정을 위한 선방을 갖추고 있다.

미륵원은 83년 정원장이 자신의 집을 불자들에게 신행공간으로 개방한 곳인데 이번에 버림받는 이들이 모여살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할머니와 편모가족을 합친 10가족이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이들은 미륵원 인근 밭농사나 이불보시 등에 일손을 보태며 새로운 대가족을 이룬다. 자신의 친가족으로부터 받은 시린 상처에 탄탄한 치유의 힘붕대를 서로 감아주며 살게 되는 것이다.

가정상의 문제로 자녀들을 보살피지 못한 아픈 과거를 가슴에 묻고 있다는 정원장은 "모든 것이 부처님의 뜻대로 될 것임을 굳게 믿으며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또 정원장은 "운영비나 가족들 생활비는 개인사업인 이불점 수익금으로 충당하게 된다"며 "미륵원이 어려운 이들이 가져다 주는 공양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푸는 부처님 도량이 되게 하겠다"고 피력했다.

앞으로 미륵원은 소년소녀가장 초청 여름불교캠프, 공동체 생활 등의 프로그램등 사회에 불법을 펴는 복지의 장으로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미륵원은 가족들을 이끌어가고 수행할 비구니스님, 함께 살 가족들을 찾고 있다. 문의 051) 634-5114.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미륵원은 어려운 사람들이 무료로 가족과 함께 들어와 생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천안 영락사 낙성법회

영탑공원도 조성

천안 영락사(주지 진관)는 19일 오후 2시 창건낙성및 가족,문중 영탑공원 준공법회를 갖는다.

백제 초 도읍성지 위례산 3천평 부지에 조성되는 영락사는 불자들의 기도성지및 가족, 문중의 영탑공원을 조성하여 포교와 장례문화 해결에 나서게 된다.

영락사는 현재 18기 수용의 가족형과 30~60명이 들어가는 문중형 영탑 12기를 조성하여 7백여명의 납골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탑은 19일부터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0417) 584~6674.

주지 진관스님은 "가족과 문중 영탑묘를 통해 친족간 유대를 강화하도록 했다"며 "불교장례문화 보급과 지역불교 포교를 위한 포교전법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전북불교회관 생명살리기 운동

5~19일 수자령 천도재
성교육 · 낙태금지 서명

올바른 성문화 캠페인과 상담을 통한 참 생명 살리기 운동이 펼쳐진다.

전북불교회관(법주 수진스님)은 9일부터 15일까지 타태아아기령(수자령) 천도재를 열고 참 생명 살리기운동을 펼쳐 올바른 성문화가 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로 화합다져

전북불교총연합회(회장 도영스님)는 7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전북지역 불교대학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군산, 남원, 이리, 전북, 화엄불교대학, 금산중 · 상고등이 참가한 이번 체육대회는 줄다리기, 배구, 삼각경기, 대동놀이 등의 행사가 펼쳐졌다.

도영스님은 "전북지역에 있는 불교대학간 서로 협력하여 정보교환과 화합으로 21세기 미래를 밝히는 불자대학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행사취지를 밝혔다.

이를위해 전북불교회관은 2층 청년회 사무실에 청소년상담소를 올해내 설치하고 중 ·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회, 20~30대 부부를 위한 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낙태않기서명운동, 자연피임법교육, 소년원생과 청소년의 비디오테잎 시청, 10주된 태아의 실제크기 발과 손 뺏지달아주기등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수진스님은 "현재 난잡한 성문화가 형성되어 한해 150만명이 낙태를 하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를위해 소년원생, 중 · 고생, 대학생, 청년회, 20~30대 부부등 젊을 층을 대상으로 생명살리기운동을 펼쳐 올바른 성문화가 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태고종 광주 · 전남종무원은 10월28일 광주 망월동 5 · 18 신묘역에서 민주영령천도 및 10만 관등법회를 개최했다.

5·18 민주영령 천도재
사부대중 3천명 참석

태고종 광주 · 전남종무원

태고종 광주 · 전남종무원(원장 금명)은 10월 28일 광주 망월동 신묘역에서 5.18 광주민주영령 천도 및 10만 관등법회를 개최했다.

인곡(태고종 총무원장) 천운(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고재유(광주시장) 정수만(5.18 유족회장) 김두원(광주 전남불교신도회장)등 3천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불교의식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금명스님은 "진실한 보시와 참회로 나와 주변을 정화하고 나라의 발전과 불교발전을 위한 정진의 장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인곡스님은 법어를 통해 "5 · 18 희생자들의 뜻을 본받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화해와 이타정신으로 희망의 등을 밝히자"고 말했다. 이어 박완일법사의 특강이 있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전국신도회 10만 불자 정토결사

대한불교전국신도회(회장 선진규)는 10월 31일 김해 정토원에서 제1차 10만불자 정토결사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호미든 관음 성상 봉안식에 이어 열린 정토결사 전진대회에는 지역스님과 김영일 국회의원을 비롯 사부대중 2천여명이 동참했다.

선진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의 자력과 타력 신앙을 하나로 하여 불국정토화하는 정토 결사를 통해 탐,진,치를 없애는 새로운 불교운동을 이끌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10만불자 정토결사 취지문을 선택하고 정토결사를 다짐하는 발원문을 낭독하며 신행목표의 실천을 통한 정토결사의 뜻을 다졌다.

천미희 기자

6.25전쟁 당시 미군의 노근리 주민 학살사건의 당사자였던 데일리씨(68)는 지난 4일 노근리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격명령이 내려졌고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장지량 중령은 해인사 폭격을 명령받고도 팔만대장경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명령을 거부했다. 그리고 역사는 명령을 거부한 장중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민족의 성보를 지키기 위해 따를 수 없었던 명령. 그것은 군인으로서는 목숨을 내건 용기에 대한 훈장이다.

목숨 걸고 지킨 민족문화재

20세기 불교 그 현장 그 인물 〈5〉

팔만대장경 구한 장지량씨

6·25때 폭격명령 거부 사형위기서 구사일생 "대장경 법력 확신해요"

6.25당시 폭격으로 한줌의 재로 사라질뻔 했던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두 군인 장지량 중령과 김영환 대령. 이 두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아마도 지금쯤 팔만대장경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 것이다. 그중 한사람으로 생존인물인 전 공군참모총장 장지량 장군(75). 그는 팔만대장경이 지켜질 수 있었던 이유를 바로 '불력(佛力)' 때문이라고 말한다.


◇목숨을 걸고 해인사를 지킨 장지량 장군.

51년 8월 경남 사천에서 제1전투비행단 작전참모를 맡고 있었던 장중령에게 미국비행고문단으로부터 해인사 폭격명령이 하달됐다. 산청경찰서에서 해인사가 빨치산 1개대대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보고를 받고 상부로 보고서를 올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장중령은 즉시 전투비행단에 폭탄과 로켓을 장착한 F-51전투기 4대의 출격대기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아찔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해인사라면 팔만대장경이 있는 곳 아닌가?'

장중령의 머릿속에서는 많은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2차 세계대전때 프랑스의 한 장군이 파리를 지키기 위해 독일군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도 있지 않은가. 팔만대장경이라면 세계적인 문화재인데 인민군 몇명 잡자고 해인사를 폭격했다가는…'

장중령은 고민끝에 결심을 굳히고는 전투비행단장인 김영환 대령과 상의했다.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팔만대장경을 지킬 것인가.' 숙의 끝에 장중령과 김대령은 명령을 거부키로 했다.

"빨치산들이 해인사를 점령한 것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래 있지 않을 것이고, 해인사를 빠져나왔을 때 폭격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목숨으로 여기는 군인에게 이런 결심은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출격이 지연되자 상부에서는 전투기를 출격시키라는 독촉명령이 계속 하달됐다. 그러나 장중령은 시간을 끌었고 결국엔 날이 어두워져 출격이 중단됐다. 이같은 사실은 곧 당시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급기야는 총살도 아닌 '포살(砲殺)'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자 김정렬 당시 공군참모총장이 방패역할을 맡고 나섰다. 김참모총장은 팔만대장경을 지켜야겠다는 장중령의 뜻을 위로 전하는데 성공했다.

"내가 불교신자였기때문에 명령을 거부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팔만대장경은 종교를 떠나 우리의 문화유산이고, 군인은 국민과 국가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군인으로서 순리에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보이지 않는 힘이 바로 팔만대장경을 제작하면서 의도했던 부처님 가피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장장군은 전쟁이 끝난 뒤에 팔만대장경을 직접 보고는 당시의 결정이 현명한 판단이었음을 새삼느꼈다고 회고했다. 만약 군인정신만을 고집하며 상부의 명령대로 해인사를 폭격했더라면 이렇게 위대한 문화재가 흔적없이 사라졌을테고, 후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아내와 함께 사찰을 참배하면 꼭 팔만대장경의 불력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도 팔만대장경이 있는 한 우리 강토는 꼭 지켜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장장군은 66년 제9대 공군 참모총장에 임명됐으며 68년 8월에 예편했다. 69년부터 79년까지 이디오피아, 필리핀, 덴마크 대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군사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노숙자 쉼터 체육대회 부산보현의집 종합우승

노숙자쉼터 부산보현의 집(원장 이기표)이 10월 31일 해운대 솔밭공원에서 열린 노숙자쉼터 연합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0개 노숙자쉼터 시설에서 참가한 체육대회에서 부산보현의 집은 축구 우승, 족구 2차전 승리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천미희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밝은길 아바타센터
◐아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초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마스터 / 위저드 김회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새천년의 신비한 향
스님께서 직접 만든 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새천년의 신비한 향
스님께서 직접 만든 향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대학 사업부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慧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華嚴經」 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華嚴經』 선재행선품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 五分香을 찾아나서는데 龍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레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병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하여진다. 그리고 계향 · 정향 · 혜향 · 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며 향을 얻어 삼악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청정하고 복덕이 구족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五分香

五分香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게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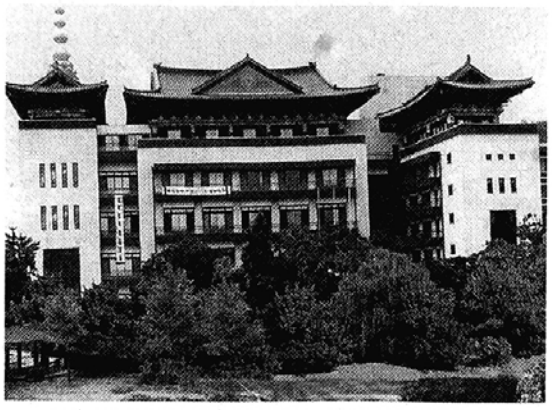

生氣香

生氣香 …
중국 황제가 천하제일 향으로 인정한 보원향 처방입니다.
보배중에 가장 으뜸으로 인정한 향입니다.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보원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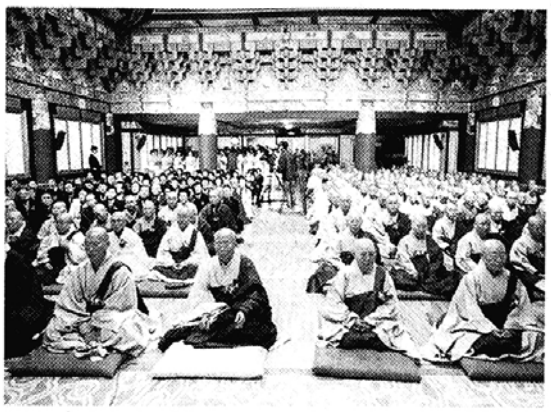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을 사루어 부처님께 공양올려 염불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름모를 각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맵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소납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확 달라질 새천년의 신비한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인정해준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왜 향을 가까이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님들,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삼화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제조원: 만복당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사업부 혜인선원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4-5828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9
농 협 071-02-25740
한빛은행 550-046374-02-003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연건평 2884평 지상5층 지하4층 규모의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새 법당 전경.



◇10월31일 봉행된 낙성법회에는 교계지도자들과 정·관계 인사등 1천여명이 참석, 축하했다.

한마음선원 새법당 낙성

사부대중 1천명 법회동참
선방·회의실·도서실 갖춰
인터넷방송국 12월중 개국

조계종 한마음선원(원장 대행) 안양본원이 6년여 공사끝에 새 법당을 완공하고 10월 31일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테이프절단식에 이어 삼귀의례, 반야심경봉독, 헌화, 경과보고(명을식 한마음선원 신도회장), 인사말씀(대행스님), 법어(월운 등국역경원장), 격려사(일면 조계종교육원장) 축사(광우 전국비구니회장, 백창기 조계종중앙신도회장), 표창패 전달, 축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동국역경원장 월운스님은 법어에서 "안양지역의 불교발전을 선도해온 한마음선원이 새 법당불사를 계기로 전법에 더욱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권한대행 원택스님은 종정 혜암스님을 대신해 중생교화와 불법전파에 탁월한 공적을 인정해 대행스님에게 표창패를 전달했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월운 일면 광우 원택스님과 현성(중앙승가대 총장) 인환·보광(동국대 교수) 법륜(정토회 지도법사), 혜명 진관 명우 수현 해주 경륜 지광 계환 영운 묘순 스님 등과 박청수 교무(원불교 강남교당), 조순(한나라당 명예총재) 손학규·주양자(전 보사부 장관), 김일주 이석현 정문화 국회의원, 김종서박사(전 교육개혁위원장) 등 교계 및 정 관계 인사 약 1천여명이 동참, 축하했다.

6년반만에 완공된 새법당은 연건평 2884평, 지상 5층 지하 4층 규모로 대법당과 강당, 선방, 회의실(결혼식장 겸용), 방송실 비디오실 도서실 공양간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118평 대법당의 본존불과 법상은 인간문화재 박찬수씨가 조각했고 문화재 기능보유자인 청원스님과 김성규씨가 각각 목탱화와 단청·개금을 담당했다.

한편 한마음선원은 10월 31일자로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를 개설했다. 한마음선원은 또한 11월 한마음인터넷방송국(hbn.hanmaum.org)과 한마당 한마음(madang.hanmaum.org)을 시범운영하여 12월중 정식 오픈할 예정이다. 이경숙 기자

삼각산 보도각백佛 '훼손'

인근 발파공사로 균열…시멘트로 엉터리 덧칠

서울시 불광터널배수지공사로 지정문화재인 마애석불이 새겨진 바위 10여곳에 30~100cm의 균열이 생겨 시멘트로 덧칠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성보문화재 관리에 헛점이 드러났다.

이 마애석불은 높이 10m 가량의 불암(佛岩)이라고 불리는 큰 바위에 새겨진 관음보살좌상으로 서울시 삼각산 옥천암(주지 성전)에 있는 보도각백불(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7호)이다.

불암의 훼손을 처음 발견한 성전스님에 따르면 균열은 옥천암에서 100m 떨어진 불광터널배수지공사장의 잦은 발파로 인해 지난해 가을 발생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는 국가에서 공인한 보수업체에 의뢰해야 하는데, 당시 시공을 담당한 삼주건설의 하도급업체인 오성토건이 시멘트로 덧칠했다는 것이다. 또 서울시와 서대문 구청이 최근까지도 지정문화재 훼손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불광터널배수지공사는 삼각산을 관통하는 상수도 터널을 뚫는 것으로, 2000년까지 계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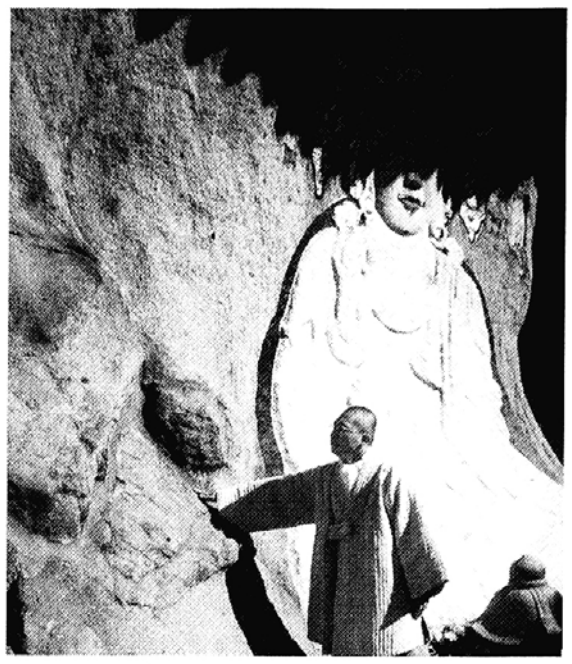
불암에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올 9월까지 옥천암 반경 70~1800m 이내에서 발파가 집중·실시됐다.

이에 따라 옥천암 측은 서대문구청과 삼주건설 측에 보도각백불의 보수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적절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 서대문 구청 측은 문화재 보수비를 책정했으나, 보수비 규모에 옥천암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삼주건설측은 안전검사를 한만큼 균열에 원인을 제공치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 전문가들은 "덧칠된 시멘트는 대기의 수분과 결합해 문화재 곳곳에 백화현상을 일으킬 것"이라며 불암의 보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서울시 유형문화재 17호 보도각백불 왼쪽 암반의 균열과 시멘트 덧칠자국을 옥천암스님이 가리키고 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법회 연다

매달 서울도심서 야단법석

14일 인사동서 '현각스님과의 만남'

불자시민 네트워크 설립위

밀레니엄시대 시민들과 직접 호흡하고 불교를 허심탄회하게 만날 수 있는 야단법석이 결쳐진다.

불자시민네트워크 설립준비위(위원장 김용권, 와세다통역관광학원장)는 매달 서울역광장, 대학로 마로니에공원등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 열린법회를 열기로 하고 14일 오후 2시 인사동 로터리에서 현각스님을 법사로 첫 행사를 연다.

길거리에 임시로 단을 만들어 진행되는 열린법회는 사물놀이패의 길굿과 현각스님(화계사 국제선원)이 '21세기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를 주제로 영문과 한국어로 일반시민들에게 법문한다. 또 불교포교를 위한 전단도 배포하여 불자저변확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용권 준비위원장은 "현재불교의 깨달음과 사찰중심의 관료주의에서 직접 중생들을 찾아가 괴로움을 직접 해결해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자네트워크는 일반시민들에게 불교의 참모습을 전하는 자체적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인적네트워크와 불자일꾼을 양성하는 열린불자시민학교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선본사 충돌' 폭력배개입 경찰수사

조계종 총무원 직영사찰인 경산 선본사(갓바위)에서 총무원과 정화개혁회의측과의 충돌과정에 폭력배가 동원됐다는 정보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새벽 선본사 기도도량인 갓바위(약사여래불)에서 빚어진 각목과 쇠파이프 등을 동원한 유혈충돌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11명의 부상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자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총무원호법부 심우스님과 정화회의측 보연스님에 대해 8일 참고인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며, 폭력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 전원을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산=이윤호 기자

중신회 불교자주화 회복 나선다

8일부터 법회·토론회 등 행사 다채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백창기)는 1일 중신회 상임운영회의와 산하 연합신행단체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종단사태에 관한 경과보고, 서명운동에 관한 안내 및 협조, 지역신도회 결성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교수불자연합회 대불총동문회 등 9개 신행단체 대표들은 불교자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했다.

일정은 △8일 사찰별 '불교자주화 선언 전국 동시법회' △13일 오후3시 '불교혁신과 불교자주화' 대토론회(조계사문화교육관) 및 연등(촛불) 침묵 행진, 문화공연, 철야 정진법회 △14일 오후1시 '사회정의와 불교자주권 찾기 불교도 전진대회' 및 '화엄10선계 수계법회 및 철야정진' △15일 이후 헌법소원과 피해보상청구소송 등 법적 명예회복 추진 등이다.

중신회는 이어 3일 대구 동화사에서 제12차 전체 운영회의를 열고 '종단 자주성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신도회의 입장' 제하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종단이 이번의 사법사태를 자주의 원칙에 근거해 '사법절차의 흠결보전'이라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또 다시 총무원장 선거라는 종권경쟁에 휘말린다면 종도들의 자존심회복을 차치하고, 한갓 세간의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지나친 경쟁은 자제해 줄것을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자원봉사단 '99 수해복구 공로인정 행자부장관 표창받아

조계종 자원봉사단(단장 양산)이 행정자치부가 시상하는 '99 수해복구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 대상자로 선정돼 지난 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자부장관상을 받았다.

조계종 자원봉사단은 올해 문산·연천지역 수해때 6일간 연인원 1천4백여명의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수해복구활동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

조계종 자원봉사단은 96년 문산·연천지구 수해복구 및 98년 동두천 수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을 벌인 바 있다. 한명우 기자

교계 인터넷홈페이지 조계종 사태 '속보경쟁'

조계종사태와 관련하여 교계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실시간 상황을 속보로 전달하는 등 속보경쟁이 치열하다.

부다피아(www. buddhapia. com)는 173개 속보중 40여개의 조계종 관련내용을 수시로 띄워 최고 1백80여명이 검색하는등 열기가 뜨겁다. 특히 부다피아는 영문서비스란에 영문속보를 띄워 외국에서도 발빠른 검색을 통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있다.

달마넷(www. dharmanet. net/)은 '조계종사태 재연위기 바람직한 해결방법은 없는가'라는 토론방을 개설했는데 현재 3백여건의 내용이 올라있다.

불교정보센터(www. budinfo. or.kr)도 특별게시판 '조계종사태 나도 할말있다'를 운영하여 143명이 글을 올린 상태다. 김원우 기자

뉴스 & 뉴스

동국대 장례문화학과 신설

동국대 불교대학원에 국내 최초로 장례문화학과가 신설됐다.

교육부가 3일 인가한 동국대 장례문화학과는 석사학위과정(5학기)과 지도자과정(4학기)으로 내년부터 30여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교과목은 기초과목의 불교·불교문화특강을 비롯 종교의례, 입종론, 장례경영론, 사치관리제도론, 장례식장 운영실습 등으로 짜여져 있다. 김중근 기자

11개 종립학교에 장학금

조계종 서울·경기지역 포교사단(상임운영위원장 김기병)은 10월27일 포교원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1일 대전에서 전국운영위원회(팀장회의) 회의를 열어 포교사단 정관 제정안과 중앙운영위원회 및 임원 구성, 포교사단 출범식 준비위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포교사단은 또 오는 15일부터 11개 종립 중학교의 추천(마감 6일)을 받은 불우 청소년 11명에게 4/4분기 장학금(생활보조금) 각 15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경 기자

'로우터스 랜턴' 3호 발간

조계종의 영문소식지인 〈로우터스 랜턴〉 3호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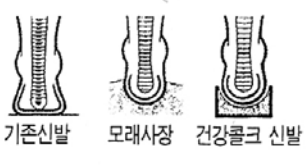
이번 호에서는 초발심으로 출가한 행자들의 생활과 교육을 집중 조명하는 한편 승보사찰 송광사와 생명나눔 실천회를 소개했다. 또 불교음악 범패와 티벳불교 미술, 불교뉴스 등을 다뤘다. (02)720-7060 김재경 기자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귀行"

귀行 신제품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건강 콜크 신발의 구조와 기능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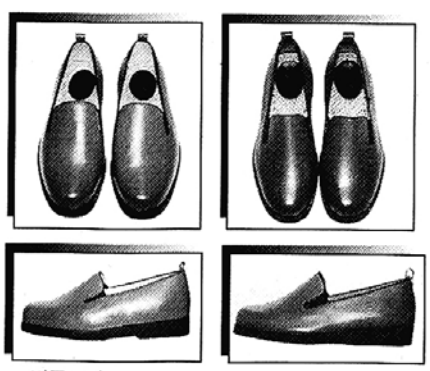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드·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상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종횡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정맥·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산화합물)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전용신발 - 귀行 만 행



· 비구스님 用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用 · 회색, 흑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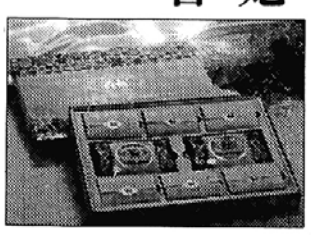
건강신발 귀行의 특 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42)742-0296. 742-0297
귀行대표 박동진 합장

"향기"로 아름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皿)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등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괴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1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주부신행담

집착 ㊦

이틀 후 부처님 오신날이었다. 난 복잡한 심경으로 아이들과 시어머님을 모시고 여느때처럼 어머니가 다니시던 절을 찾았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일주문을 들어서는 순간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마음에서 울컥 올라와서는 걷잡을 수 없이 눈으로 넘쳐나려 하고 있었다. 처음 겪는 일이었고 초파일 법회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염려도 되고 창피하기도 해 난감하기 이를데가 없었다.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것이 부족한 내 탓이다' 싶어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마음 속에 일고 있는 표현할수 없는 충만함을 나는 선생님께 전했다. '부처님 법에 눈 뜨게 해준 고마운 인연 선생님, 평생 당신과의 인연이 계속될 수 있길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고 적어 다음날 아침 아이의 등교 길에 보냈다. 그렇게 난 부처님 법을 향한 첫 걸음을 떼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게 부처님 법 인연이 없진 않았던 듯 싶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5형제 중의 나 하나만 새벽 단잠을 떨치고 어머니를 따라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도선사에 다니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고 나만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으니 말이다. 나를 인도하셨던 어머니의 공덕으로 나는 얼마 전 어머니를 역으로 한마음선원 본원에 인도해 드렸다. 아이들도 지금은 주인공 도리를 익혀 어설프게나마 마음을 내려 노력하는 것을 보니 한 인연이 이렇게 여러 중생을 구제하는구나 싶어 부처님 법과의 인연이 그저 귀하고 감사할 뿐이다.

지난 주에는 선생님과 대전지원 청년법회에 다녀왔다. 승용차로 한 시간여를 달려 법당에 들어서자 전에 몇 번 뵈었던 보살님께서 부처님과 마주한 채 참선을 하고 있었다. 누가 될까 쉽사리 그 곳에 함께 할 수 없었다.

'성역과도 같은 그 공간 속에서 부처님과 둘 아니게 마주하신 보살님은 어떤 말을 나누고 계시는 것일까? 내게도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을까'

"세상 만물은 인연에 의해 만나고 인연에 의해 헤어진다" 법문듣고 선한 인연 지으며 살리라 다짐

법당에서 내려와 차 한잔을 마시고 잠시 후 청년 법우들의 법회가 있어 다시금 올라갔다. 모두들 입정에 들어 있었는데, 내가 이고 사는 이 하늘 아래 나와 같은 땅에서 이런 공간과 시간을, 그리고 정진을 하는 이들이 있었구나 하는 감동이 일었다. 그 시간쯤이면 현란한 네온싸인 쏟아지는 거리를 무리지어 활보할 젊은이들이 법당에 앉아 소중한 인연을 지어가고 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뿌듯했다. 캄캄한 사바세계를 밝히는 한줄기 빛과도 같은 청량한 모습이었다. 법당 안에서 마주한 선생님의 얼굴 또한 투명하고 밝은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공간에 잠시나마 함께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법회를 마치고 혼자 대전지원 뜰을 거닐었다. 바람 타고 가을비가 꽃가루처럼 흩날리며 촉촉히 부딪혀 왔다. 그 안에는 분홍빛 석류가 익어가고 이름모를 보라빛 꽃과 풀, 돌, 나무가 까만 하늘 아래 속삭이며 꿈꾸고 있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 어울리며 살아가면 좋겠다. 그처럼 여여하게 살 수만 있다면 더 이상의 욕심은 과욕이리라.

"이 세상 만물 만생은 모두 인연에 의해서 만나지고, 인연에 의해서 헤어지니 우연이란 없다"



그림 · 문병성

시던 대행 큰 스님의 법문 한 구절이 마음에 울려 퍼진다.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억 겁을 거듭나도 만나기 어렵다는 부처님 법에 다가서고 지원에서 값진 삶의 모습도 배우고 소중한 인연들도 만났으니 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 인연인가.

귀가하는 손에 마음 공부거리를 쥐어주시는 혜림스님, 언제나 환한 미소로 반겨주시는 보살님들과 법우들, 그리고 부처님 법으로 인도해 주신 선생님 이젠 제 마음이 편히 쉴 곳을 알았습니다.

부처님! 당신의 가없이 깊은 법 한치를 아직도 모르지만 그 안에서 광안하기에 선한 업, 선한 인연 지으며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도 부족하기에 부끄러운 이 한마음 당신께 맡기려니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로 맞아 주소서.

이정민(충남 천안시 신부동)

고침 243호 24면의 '주부신행담'에서 이정민씨가 대화를 나눈 큰 아이의 답임은 여선생님인데 그림에서 남선생님으로 잘못 묘사되었습니다.



法華三部經(법화삼부경)金泥(금니)8폭조각병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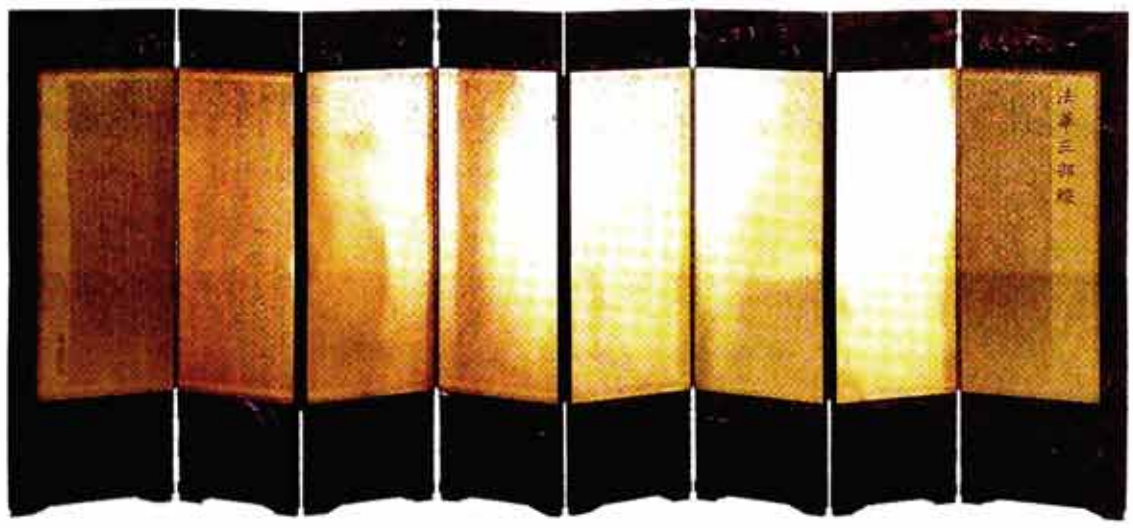


시방삼세에서 가장 최고의 법(法)이며, 부처님께서 이땅에 오신 일대사 인연의 모든 진실을 밝혀 놓으신 법화삼부경이 오늘 이자리에 금니 팔폭조각 병풍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법화삼부경(法華經)은 개경(開經)인 무량의경 3품과 본경(本經)인 묘법연화경 28품과 결경(結經)인 불설 관보현보살행법경 1품을 말하며, 총 32품에 8만4천여 자로 되어 있습니다. 법화삼부경은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이시며 8만4천여자의 경문은 문자 하나 하나가 모두 법신(法身)의 참부처님임을 나타내는 경문으로서 이를 1년여에 걸쳐서 웅장하고 장엄스러운 대작불사(大作佛事)의 성품(聖品)으로 조성 승화시킨 본 법화삼부경 금니 팔폭조각 병풍은 지금부터 제불보살님과 특별한 인연을 맺게될 삼천 삼백 불자(佛子)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소중하게 모실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를 모심은 곧 부처님 몸을 모신 것이 되며, 부처님의 정법(正法)을 잇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를 모시게 될 불자는 그 공덕으로 그 시절부터 현세는 물론 대대손손으로 집안에 불은(佛恩)이 항상 함께 하시며 자손의 번창과 재물의 풍족과 가문의 번영을 구가하며 살게되는 큰 가피를 받게되는 선택된 불자(佛子)가 될것입니다.

귀의 무량의경
귀의 묘법연화경
귀의 관 · 보현보살행법경



〈규격〉 높이 : 152cm 길이 : 366cm 무게 : 70kg

◇ 특 징

- 법화삼부경 8만4천여 자가 8폭 금속판 위에 한자 한자 양각으로 입체 조각되어 99.9% 순금으로 도금된 후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표면에 특수코팅 처리를 하여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 병풍은 한폭마다 연꽃, 구름, 법륜, 하늘, 바다, 등 모든 구성요인이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가지 않는 목재와 특수재질을 혼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 본 병풍 소장자는 부부이름이 금속판에 조각, 순금으로 도금한 후 병풍 뒷면에 부착되므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님으로 길이 남게 됩니다.
- 본 병풍은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폭 한폭 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신청 후 받으시는데 1~ 2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인도방법은 손상의 우려가 있어 한폭 한폭을 원하시는 장소까지 본회에서 직접 모셔다 드립니다.



전면



후면

- 부처님의 지중한 공덕으로 이 세상에 오신 법화삼부경 금니 팔폭조각 병풍은 이를 모실 인연 있는 3천 3백명 불자가 이미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만나뵐 수 있기를 비랍니다.
- 연락 주시면 카타로그 및 설명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성 :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0335)334-9490, 334-9491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에서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을 보내드립니다



- 현상공덕향 특별할인가 5,000원 (개당)

불사만족용 및 보시용으로 대량구매시 추가할인 하여드립니다.
※ 1~2개 주문시 등기로 구매자부담, 3개이상 구매시 판매자부담

- 판매원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 Tel: 02)732-1522 · Fax:02)737-0697
-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http://mall.buddhapia.co.kr

- 제조원 : 금 성 통 상 (전국대리점 모집)
- Tel: 051)324-3731 · Fax:051)324-3733

마하몰 경품대잔치

- 행사기간 : 1999. 9. 8 ~ 11. 22
- 응모기간 : 1999. 11. 30 까지
- 추첨 및 발표: 1999년 12월 3일자 , 현대불교신문게재
- 응모방법 : 행사중 「현상공덕향」을 구입하신후 포장지에 금박인쇄 되어있는 「현상공덕향」을 오려서 우편엽서에 붙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하여 푸짐한 경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마하몰 앞

◆경품내용

- 대상 : 1명 (금강산 성지순례 관광 여행권 2매)
- 1등 : 2명 (고승기념메달 8개/세트)
- 2등 : 3명 (고산다기 및 다기합/세트)
- 3등 : 5명 (고산다기/세트)
- 4등 : 10명 (문구암스님 법음, 범패집 각 1질)
- 5등 : 50명 (참선명상방석 각1개)
- 마하몰상 : 200명(법성게걸망 각1개)

"수험생 입시성취 기도를 위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구입처 · 서울 :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 (02)732-1522, 견지불교사 (02)739-3032 · 대구 : 불광불교용품사 (053)421-4766, 마하몰 대구지사 (053)768-8008, 대구불교방송 사업팀 (053)427-1011 · 부산 : 삼장원 (051)646-6255, 마하몰 부산지사 (051)634-5114, 관음불교 (051)808-5655, 대성불교사 (051)332-0289, 부다가야 (051)865-4383, 부산불교전시관 (051)632-7393 · 광주 : 마하몰 광주지사 (062)375-9966 · 대전 : 대전불교사 (042)257-0318 · 전주 : 전주불교전시관 (0652)282-7054 · 창원 : 경남불교전시관 (0551)295-6911 · 진주 : 마하몰 진주지사 (0591)747-0106 · 밀양 : 부용불교사 (0627)352-3756 · 속초 : 관영불교사 (0392)631-7907 ※ 전국 유명불교 용품점 및 시설내 용품점